

정책연구  
2021-08

# 취업자로서 자영업자 연구

김영아 · 손연정 · 윤준현 · 홍정림



# 목 차

요 약 .....	i
제1장 서 론 .....	(김영아) .....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구성 .....	2
제2장 자영업 경험자의 노동이동 .....	(손연정) ..... 4
제1절 연구의 배경 .....	4
제2절 선행연구 .....	6
제3절 연구방법론 .....	7
1. 분석 자료 및 분석 표본의 특성 .....	7
2. 분석 모형 및 방법 .....	9
제4절 분석 결과 .....	11
1. 자영업 경험자 .....	11
2. 자영업 경험자의 노동이동 .....	13
3. 자영업 경험자의 노동이력 유형 분석 .....	20
제5절 소 결 .....	29
제3장 경력단절 여성의 자영업 진입 .....	(김영아) ..... 31
제1절 연구 배경 .....	31
제2절 선행연구 .....	32
1. 경력단절 여성 정의 .....	32
2.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요인 .....	33

3. 여성의 자영업 선택요인 .....	35
제3절 연구방법 .....	36
1. 분석자료 및 방법론 .....	36
2. 변수 측정 .....	39
제4절 분석 결과 .....	40
1.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	40
2. 경력단절 여성의 자영업 진입 .....	48
제5절 소 결 .....	56
제4장 자영업자의 건강 .....	(홍정림) 63
제1절 연구의 배경 .....	63
제2절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	64
제3절 자료 및 방법 .....	66
1. 분석자료 및 대상 .....	66
2. 변수 및 기초통계 .....	66
3. 분석 방법 .....	72
제4절 분석 결과 .....	74
제5절 소 결 .....	82
제5장 자영업자의 직업 매칭에 관한 연구 .....	(윤준현) 85
제1절 연구의 배경 .....	85
제2절 분석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와 청년패널조사 .....	87
제3절 분석방법: 선형 확률 모형 .....	92
제4절 분석 결과 .....	95
1. 50대 이상 중고령층 자영업자의 직업 매칭 .....	96
2. 청년층 자영업자의 직업 매칭 .....	105
제5절 소 결 .....	114

제6장 요약 및 결론 ..... (김영아) .... 116

참고문헌 ..... 123

## 표 목 차

<표 2- 1> 일자리 배열 예시 .....	10
<표 2- 2> 생애노동 과정 중 자영업 경험자와 비경험자의 인구학적 특성 비교 .....	12
<표 2- 3> 자영업 경험자가 생애노동 동안 경험한 일자리 수 .....	13
<표 2- 4> 자영업 경험자의 첫 일자리 입직 후 시점별 종사상 지위 분포 .....	16
<표 2- 5> 자영업 경험자의 종사상지위 변화 (첫 직장 입직 5년 후) .....	18
<표 2- 6> 자영업 경험자의 종사상지위 변화 (첫 직장 입직 10년 후) .....	19
<표 2- 7> 자영업 경험자의 종사상지위 변화 (첫 직장 입직 25년 후) .....	19
<표 2- 8> 노동이력 유형에 따른 8개 집단의 특징 및 분포 .....	23
<표 2- 9> 자영업 경험자의 노동이력 유형별 인구학적 특성 .....	25
<표 2-10> 자영업 경험자의 노동이력 유형별 첫입직 연령 및 로그 평균임금 .....	26
<표 2-11> 노동이력 유형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	27
<표 3- 1> 변수 정의 .....	39
<표 3- 2> 관측치(observations)의 기술통계 .....	39
<표 3- 3>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결정요인: 콕스비례해저드 모형 결과(Hazard Ratio) .....	44
<표 3- 4> 경력단절 여성의 상용직 및 비상용직으로의 재취업 결정요인: 콕스비례해저드 모형 결과(Hazard Ratio) .....	46

<표 3-5> 전체 경력단절 여성의 자영업 진입 결정요인: 콕스비례 해저드 모형 결과(Hazard ratio) .....	49
<표 3-6> 임금근로 및 비임금근로 이후 경력단절 여성의 자영업 진입 결정요인: 콕스비례해저드 모형 결과 .....	52
<표 3-7> 상용직 및 비상용직 임금근로 이후 경력단절 여성의 자영업 진입 결정요인: 콕스비례해저드 모형 결과 .....	55
<표 4-1> 종속변수 .....	68
<표 4-2> 기초통계량 .....	69
<표 4-3> 종사상지위별 기초통계 .....	70
<표 4-4> 주관적 건강상태 .....	76
<표 4-5> 동년배 비교 건강상태 .....	77
<표 4-6> 응급실 방문 여부 .....	78
<표 4-7> 격렬한 신체활동 일수 .....	79
<표 4-8> 과거 및 현재 흡연 여부 .....	80
<표 4-9> 과음 횟수 .....	81
<표 5-1> 요약 통계량 .....	93
<표 5-2> 임금근로자 대비 자영업자의 직업 매칭의 질 (50대 이상 중고령층): 교육 수준 대비 적합 .....	97
<표 5-3> 임금근로자 대비 종업원 있는 자영업자 및 종업원 없는 자영업자의 직업 매칭의 질(50대 이상 중고령층): 교육 수준 대비 적합 .....	98
<표 5-4> 임금근로자 대비 자영업자의 직업 매칭의 질(50대 이상 중고령층): 기술 수준 대비 적합 .....	100
<표 5-5> 임금근로자 대비 종업원 있는 자영업자 및 종업원 없는 자영업자의 직업 매칭의 질(50대 이상 중고령층): 기술 수준 대비 적합 .....	101
<표 5-6> 임금근로자 대비 자영업자의 직업 매칭의 질(50대 이상 중고령층): 과거 종사했던 산업과 일치 .....	103

<표 5- 7> 임금근로자 대비 종업원 있는 자영업자 및 종업원 없는 자영업자의 직업 매칭의 질(50대 이상 중고령층): 과거 종사했던 산업과 일치 .....	104
<표 5- 8> 임금근로자 대비 자영업자의 직업 매칭의 질(청년층): 교육 수준 대비 적합 .....	106
<표 5- 9> 임금근로자 대비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및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직업 매칭의 질(청년층): 교육 수준 대비 적합 .....	107
<표 5-10> 임금근로자 대비 자영업자의 직업 매칭의 질(청년층): 기술 수준 대비 적합 .....	109
<표 5-11> 임금근로자 대비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및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직업 매칭의 질(청년층): 기술 수준 대비 적합 .....	110
<표 5-12> 임금근로자 대비 자영업자의 직업 매칭의 질(청년층): 전공과 일치 .....	112
<표 5-13> 임금근로자 대비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및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직업 매칭의 질(청년층): 전공과 일치 .....	113

## 그림목차

[그림 2-1] 첫 직장 입직 연도별 자영업 경험자 수 분포 .....	14
[그림 2-2] 자영업 경험자의 첫 직장 입직 이후 상태 간 이행 확률	15
[그림 2-3] 첫 직장 입직 이후 각 시점별 종사상지위 분포 (남성/여성) .....	17
[그림 2-4] 첫 직장 입직 이후 각 시점별 종사상지위 분포 (출생코호트별) .....	17
[그림 2-5] 자영업 경험자의 시점별 노동이력 분포(남성/여성) .....	20
[그림 2-6] 자영업 경험자의 유형별 노동이력 분포 .....	22
[그림 3-1] 경력단절 탈출의 누적 기준선 해저드(Estimated baseline cumulative hazard) .....	41
[그림 3-2] 임금근로 진입 누적 기준선 해저드: 상용직(좌), 임시직(중), 일용직(우) .....	42
[그림 3-3] 비임금근로 진입 누적 기준선 해저드: 자영업(좌), 무급가족종사자(우) .....	42



## 요약

본 연구는 개별 취업자로서 자영업자의 노동이동과 삶의 질의 실태가 어떠한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노동이동 분석은 생애사적 차원에서 자영업 경험자의 노동시장 이력을 분석하고, 특정 사회인구집단으로서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형태로서 자영업 진입의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본 분석은 결혼, 출산, 육아의 생애주기 시점을 포괄하는 핵심 노동 연령대와 가족돌봄을 이유로 경력단절을 겪은 여성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중·고령 및 청년에 집중된 기존 자영업자의 노동이동 분석의 대상을 확대하는 데 기여한다. 삶의 질 분석은 자영업자들의 건강상태와 직업 매칭 질에 대해 분석한다. 임금근로자와의 비교를 통한 자영업자들의 건강과 직업 매칭 질의 실태 파악은 취업자로서 자영업자의 일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방향 설계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치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 1. 자영업 경험자의 노동이동

제2장은 자영업 경험자들의 첫 일자리 시작부터 25년에 걸친 노동이력을 분석하고, 유사한 노동이력을 가지는 집단을 유형화하여 노동이력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았다. 배열분석 및 군집분석의 결과, 자영업 경험자의 노동이력은 ① 상용직으로 일하다 다른 종사상지위로 전환되기도 하지만 대체로 오래 상용직을 지속하는 집단, ② 상용직에서 일정기간 지속 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고용주)로 전환되거나 고용주로 첫 일자리 시작 후 지속하는 집단, ③ 상용직 또는 임시일용직에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자영자)로 전환하거나 자영자로 시작하여 지속하는 집단, ④ 대체로 무급가족종사자를 오래 지속하는

집단, ⑤ 상용직이나 임시일용직으로 시작해서 다른 종사상지위나 실직 상태로 잦은 전환이 일어나는 집단, ⑥ 임시일용직을 오래 지속하는 집단, ⑦ 상용직을 오래 지속하다 퇴직하는 집단, ⑧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에서 비교적 이른 시기에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집단으로 총 8개의 유형으로 요약되었다.

노동이력 유형별 인적 특성과 소득을 비교한 결과,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고용주)의 지위를 오랜 기간 동안 지속하는 유형2가 학력과 소득이 가장 높은 집단으로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는 상용직을 오랜 기간 유지하는 집단인 유형1이 학력과 소득 모두에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자영업 경험자의 생애 첫 일자리 시작부터 25년간의 노동이력을 살펴본 결과, 많이 알려진 바와 같이 임금근로자에서 조기 퇴직 후 자영업에 진출하는 개인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여러 종사상지위를 거쳐 자영업에 진출하거나, 자영업을 거쳐 다시 임금근로자나 무직 상태로 전환되는 경우도 관측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이 자영업을 오랜 기간 지속하는 경우보다 자영업에서의 경력을 축적하기 전에 다른 종사상지위로 옮겨가는 단기간 자영업 경험자들에 더욱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큰 틀에서는 자영업으로의 안정적인 진입과 퇴출을 돕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정책이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자영업 집단 내 이질성을 고려한 개인 맞춤형 컨설팅과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의 정책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2. 경력단절 여성의 자영업 진입

제3장은 경력단절 여성의 노동시장 재취업 형태별 진입 패턴을 살펴보고, 자영업으로의 진입에 인적자본 특성, 가족요인 그리고 노동시장 경력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경력단절 직전 일자리를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으로 구

분하여, 직전 일자리의 종사상지위에 따른 자영업 진입의 특성 차이를 비교하였다.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결정요인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30대 후반에서 40대 연령대 여성의 재취업 가능성이 컸다. 이는 학령기 아동을 둔 어머니의 연령대로 여성 고용률의 M자 곡선이 30대 후반에 다시 증가하는 것과 일치하는 현상이다. 특히,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가능성이 낮게 나타나 가족 돌봄을 이유로 경력단절을 겪고 있는 여성에게 있어 자녀돌봄이 재취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가구소득이 높은 경우 경력단절 탈출 가능성이 낮았다. 노동시장 경력의 영향을 보면, 직전 일자리가 상용직일수록, 현재까지 노동시장에서 가졌던 일자리 수가 많을수록 경력단절 상태를 벗어날 가능성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노동시장 이탈 이전 노동시장에서 다양한 일자리 경험뿐 아니라 안정적인 지위에서 일한 경험이 경력단절 상태 이탈에 긍정적 영향요인임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재취업 상태를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 연령은 임시·일용직으로의 재취업에만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전체 재취업 결정요인에서 확인되었던 고등학생 이하 자녀 존재의 부정적 영향은 상용직 및 임시·일용직으로의 재취업에서 모두에서 나타나 자녀돌봄의 책임이 임금근로자로의 재취업에 부정적 영향요인임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높은 가구소득은 임시·일용직으로 재취업할 가능성을 유의미하게 낮추지만, 상용직으로의 재취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가구의 경제적 여건이 좋을수록 경력단절 여성이 불안정한 일자리를 통해서라도 노동시장에 복귀해야 할 필요성이 줄어들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경력단절 이전 노동시장에서 축적한 경력 중 상용직 일자리의 경력이 길수록 임시 및 일용직 재취업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낮고, 직전 일자리가 상용직이었던 경우에도 임시 및 일용직에 비해 상용직으로 재취업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경력단절 이전 안정적인 종사상지위를 통해 축적한 경력은 경력단절 상태를 벗어나 재취업 시 안정적인 지위를 가지는 데

중요한 영향요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경력단절 여성의 자영업 진입 결정요인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체 여성의 자영업 진입 결정요인 결과는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자영업 진입 해저드는 감소하였다. 이는 기존의 여성 자영업 결정요인 연구에서 확인된 학력이 높을수록 자영업보다는 임금근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경력단절 여성들의 자영업 진입에도 유사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경력단절 이전까지 노동시장에서 축적한 상용직 경력이 많을수록 자영업 진입 가능성이 줄어들었으며, 경력단절 이전 일자리가 자영업 및 고용주 일수록 자영업 진입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또한 주관적으로 건강할수록 자영업 진입을 통해 경력단절 상태를 벗어날 가능성이 낮았다. 두 번째, 경력단절 직전 일자리를 임금근로와 비임금근로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높은 학력의 부정적 영향이 임금근로 이후 경력단절 여성에게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임금근로 이후 경력단절 상태에 있는 30대 여성의 경우만 20대에 비해 자영업 진입 확률이 높게 나타나, 자영업이 노동시장 재진입을 위한 하나의 경로로 작용하는 기제는 임금근로 이후 특정 연령대의 여성에게 국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배우자의 존재 또한 임금근로 이후 경력단절 여성의 자영업 진입에만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배우자의 경제활동 여부에 상관없이 배우자의 존재는 자영업 진입 가능성을 높였다. 상용직 임금경력의 부정적 효과 또한 임금근로 이후 경력단절 여성에게서만 확인되었다. 세 번째, 임금근로 이후 경력단절 여성을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여부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고등학생 이하 자녀 존재는 상용직 이후 경력단절 여성이 자영업 진입을 통해 경력단절 상태를 이탈할 가능성을 줄였다. 돌봄이 필요한 자녀의 존재가 여성의 자영업 선택의 주요 요인으로 알려졌지만, 상용직 일자리를 가족돌봄의 이유로 그만둔 경력단절 여성에게 학령기 자녀 존재는 자영업 진입을 통한 경력단절 탈출보다는 경력단절 상태를 지속하게 하는 요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앞의 임금근로 이후 경력

단절 여성의 자영업 진입 분석에서 확인된 배우자 존재의 긍정적인 영향과 상용직 임금근로 경력의 부정적 영향은 상용직 일자리를 가졌던 경우에만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임시·일용직 이후 경력단절 상태에 있는 여성은 30-40대 초반까지 자영업을 통한 경력단절 이탈 가능성이 크고, 직전 일자리가 비상용직일지라도 임금 수준이 높았던 일자리였다면 자영업을 통한 경력단절 가능성이 줄어들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가족돌봄 등의 이유로 경력단절 상태에 있는 여성에게 학령기 자녀의 존재는 재취업 일자리의 종사상지위에 상관없이 재취업의 저해요인으로 확인될 뿐 아니라 상용직 일자리 이후 경력단절 상태에 있는 여성의 자영업 진입에도 부정적 영향요인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경력단절 이전 안정적 지위에서 축적한 노동시장 경력은 노동시장 재진입을 유리하게 하며, 임시·일용직 일자리로의 재취업과 자영업 진입의 가능성을 낮추는 역할을 하였다. 자영업 진입을 통한 경력단절 상태 이탈에 있어 여성 개인의 인적 특성, 가족요인 그리고 노동시장 경력이 미치는 영향은 경력단절 이전 일자리의 임금 및 비임금 여부, 그리고 종사상지위에 따라 달랐다. 이러한 결과는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서비스가 각 개인의 노동시장 경력을 바탕으로 특화된 맞춤형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창업을 통한 재취업이 자영업 분야의 경력을 가진 경우에 선택되는 경력단절 탈출 경로라는 점에서 창업 지원서비스가 이전 자영업 경험을 세분화하여 상담 및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3. 자영업자의 건강

제4장은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의 건강상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한 연구이다.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간에 건강 및 건강행동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종사상지위가 건강상태

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를 추정하였다. 주관적 건강지표, 객관적 건강지표, 건강행동 등 다양한 변수를 활용하여 다각도로 건강상태를 확인하였으며, 자영업자 구성의 이질성을 고려하여 고용주와 자영업자로 구분하여 임금근로자에 비해 이 두 그룹의 건강상태가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관적 건강지표로 확인했을 때 임금근로자에 비해 자영업자의 주관적 건강이 나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용주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종사상지위가 건강에 미친 인과관계를 추정한 결과는 종업원 유무에 관계없이, 즉 고용주인지 자영업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자영업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건강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객관적 건강지표로 종사상지위와 건강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에도 주관적 건강지표와 유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종사상지위와 건강행동(격렬한 신체활동 일수, 과거 및 현재 흡연 여부, 과음 횟수) 간에는 유의한 인과적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자영업자의 건강상태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며, 이는 건강하지 못한 개인이 자영업을 선택하여 나타난 결과가 아닌 자영업이 건강에 미친 인과적 효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자료상의 한계로 인해 자영업의 어떤 특성이 자영업자의 건강을 악화시키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은 확인할 수 없었으나, 우리나라 자영업의 특성과 선행 연구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소득 상실, 재해, 폐업 등의 위험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데서 오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더불어 장시간 근로 및 열악한 근로환경 등이 자영업자들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일 것으로 짐작된다.

자영업자의 경제적 취약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되어 왔다. 이

를 반영하여 정부는 2005년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시작으로 경영 지원, 혁신, 자생력 강화, 규제혁신 등을 목표로 이들에 대한 정책을 꾸준히 내놓고 있다. 이에 더해 본 연구의 결과는 자영업자들의 건강 체고 측면에서의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정신적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근로 환경으로 인한 건강 약화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해결책 마련이 요구된다.

불충분한 의료이용과 건강검진 미수진으로 인한 질병의 악화는 개인의 의료비용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연결된다. 또한 건강검진을 포함한 의료이용의 격차는 종사상지위 간 건강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사전적이고 예방적 대책으로서 자영업자들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고 건강검진 수진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제도’를 통해 유급휴가가 없어 병원 방문이 어려운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종사자, 1인 영세자영업자 등의 근로취약계층에게 입원과 건강검진으로 인한 근로소득 손실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대전·성남 등의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또한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를 자영업자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대상자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 4. 자영업자의 직업 매칭에 관한 연구

제5장은 50대 이상 중고령층과 청년층 자영업자의 직업 매칭의 질이 임금근로자의 직업 매칭의 질과 비교하여 어떠한지 살펴보고, 현재의 실정에 맞는 창업지원정책이나 다른 자영업 관련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과학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 연구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

면, 50대 이상 중고령층 사이에서는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에 비하여 교육 수준이나 기술 수준과 비교하여 적합한 일을 하고 있을 확률이 더 높으며, 과거에 종사하였던 산업에서 일하고 있을 확률도 더 높다. 종업원 있는 자영업자와 종업원 없는 자영업자 모두에게서 이러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반면 청년층 사이에서는 자영업자, 그 중에서도 특히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임금근로자와 비교하여 업무 내용이 자신의 전공과 일치할 확률이 더 낮다.

이러한 발견은 50대 이상 중고령층에서는 자영업 노동시장이 임금근로자 노동시장에 비하여 인적 자원의 낭비가 적으며, 자영업자들이 임금근로자들과 비교하여 노동시장 성과나 자아실현의 측면에서 보다 나은 기회를 누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를 고려하면 50대 이상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지원정책이나 자영업 관련 대책과 관련해서는 창업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적합한 창업 기회를 찾아주는 것도 여전히 그 중요성을 부정하기는 어렵지만,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의 공정 거래를 확립하는 일 등에 더 많은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동시에 이 연구의 분석 결과는 50대 이상 중고령층과는 대조적으로 청년층의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들은 자신들이 학창 시절 배우고 익힌 지식을 활용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청년층의 경우 임금근로자 노동시장과 비교하여 자영업 노동시장에서는 인적 자원의 낭비가 발생하는 비효율성이 존재하며,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들이 노동시장 성과 또는 자아실현의 관점에서 충분한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고려하면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지원정책이나 자영업 관련 대책에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창업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자신들이 학창 시절 배운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창업 기회를 찾아주는 일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2020년 11월 기준 자영업 종사자 수는 656만 3,000명으로 이는 전체 취업자 2,724만 1,000명의 24.1%로, 취업자 4명 중 1명은 자영업자이다. 2019년의 자영업자 비중은 24.6%로 OECD 회원국 중 8번째로 높았으며, 이는 주요 선진국인 독일 9.6%, 일본 10.0%, 프랑스 12.1%, 미국 6.1%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자영업자의 비중이 증가함으로 인해 개별 취업자로서 자영업자와 관련된 변화와 특성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개별 취업자로서 자영업자 구성의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력단절 여성의 창업 증대, 청년의 입직 일자리로서 자영업 증가, 그리고 생애 주된 일자리 이후 자영업으로의 전환 등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성별 및 연령대 구성의 다양성이 증대하고 있다. 즉, 자영업 진입 경로는 다양해지고, 이로 인한 인구학적 특성이 변화하고 있다. 둘째, 개별 자영업자의 업무와 근로환경이 달라지고 있다. 자영업은 업종, 서비스 또는 규모별 개별 자영업자의 업무수행 방식이 다를 뿐 아니라, 같은 업종이라도 개별 자영업자의 근로강도의 이질성은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최근 플랫폼 확산으로 인한 자영업 서비스 제공방식의 변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증가 등으로 자영업자 본인의 업무강도와

환경은 변화할 수밖에 없다. 셋째, 자영업자는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민감할 뿐 아니라, 사회적 위험에 취약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임금근로자 대비 경기변동 및 사회적 위험에 취약하며, 자영업자의 사회 안전망 강화는 주요한 사회적 이슈이기도 하다.

자영업자의 특성과 업무환경 등이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개별 취업자의 측면에서 자영업자의 일과 삶을 다각적으로 분석한 실증적 연구는 부족하다. 어떤 개인이 자영업에 진입하는지, 어떤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가진 집단인지, 취업자로서 이들의 삶의 질은 어떠한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부재하다. 현재까지 자영업 연구는 주로 사업체로서 자영업 경영상황의 동태적 변화와 이의 결정요인(김일광, 2018; 홍민기·오상봉, 2018) 또는 자영업의 성패에 관한 분석(남윤미, 2017)에 초점을 두었다. 노동이동 관점에서 취업자 개인으로서 가장 주목을 받은 사회인구집단은 중고령자로 나타났다(임진, 2013; 손연정, 2019). 새로운 자영업 진입 집단으로 청년층에 관한 연구(신재열·김종성, 2020)가 최근 등장하고 있다. 경력단절 여성의 창업에 관한 지원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력단절 이탈로서 자영업 진입에 관한 연구는 여전히 미미하다. 또한, 자영업자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권명진·김선애, 2019)는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임금근로자와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어 취업자로서 자영업자의 건강과 자영업 일자리 질에 관한 관심은 부재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별 취업자로서 노동이동 실태 파악을 위해 자영업 경험자의 노동시장 이력을 생애사적 차원에서 살펴보고, 특정 사회인구집단으로서 경력단절 여성의 자영업 진입을 분석하고자 한다. 자영업자들의 건강상태와 직업 매칭 질 분석을 통해 취업자로서 자영업자의 일과 삶의 질에 대한 이해를 확대하고자 한다.

## 제2절 연구의 구성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한국노동패널, 청년패널, 그리고 한국의료패널

이다. 자영업자는 조사 자료의 종사상지위 정보를 바탕으로 비임금근로자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또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즉, 고용주)라고 응답한 경우를 자영업자로 정의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은 한국노동패널 1-22차 자료(1998-2019)를 이용하여, 생애 노동이력에서 자영업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개인을 대상으로 이들의 첫 직장 입직 이후 25년에 걸친 노동이력을 분석한다. 배열분석과 군집분석을 이용하여, 노동이력에 따라 개인을 유형화하고, 성별, 출생코호트, 학력 등이 유형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제3장은 한국노동패널 1-22차 자료(1998-2019)를 이용한 콕스비례해저드 모형 분석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의 노동시장 재취업 형태별 진입 패턴을 살펴보고, 자영업으로 진입에 인적자본 특성, 가족 요인 그리고 노동시장 경력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또한, 경력단절 직전 일자리의 종사상지위에 따라 자영업 진입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제4장은 한국의료패널 4-12차 자료(2010-2017)를 이용한 고정효과 로짓 및 순수형 로짓모형 분석으로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 간에 건강 및 건강행동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종사상지위가 건강상태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를 추정한다.

제5장은 한국노동패널 1-22차(1998-2019) 자료와 청년패널 1-13차(2007-2019) 자료를 이용하여, 중고령층과 청년층 자영업자의 직업 매칭 질을 분석한다. 선형확률 모형을 이용하여, 현재 하고 있는 일이나 업무 내용의 교육 수준 대비 적합도 및 기술 수준 대비 적합도, 현재 종사하고 있는 산업이 과거 종사하였던 산업과 일치하는지 여부, 업무 내용이 학교 전공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자영업자의 직업 매칭의 질이 임금근로자에 비하여 어떠한지를 분석한다.

## 제2장

# 자영업 경험자의 노동이동

### 제1절 연구의 배경

자영업자에 대한 현재까지의 연구들은 대체로 자영업의 선택과 이동, 성장과 생멸, 노동 환경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하지만 자영업에 종사하는 개인이 생애주기적으로 어떤 노동시장 경로를 거치는지를 보여주는 노동시장 이력에 대한 실증 연구는 많지 않다.

한국노동패널조사의 가장 최신 자료인 22차 직업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처음부터 자영업자로 출발하기보다는 임금근로자에서 시작해 자영업으로 이행한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생애 노동이력에서 자영업 경력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개인보다 종사상지위의 변동횟수가 훨씬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자영업 취업자의 높은 직업 변동성을 고려할 때 이들이 어떤 경로를 거쳐 자영업에 이르게 되는지, 그 이후에는 어떠한 노동시장 경로를 거치는지에 대한 분석은 자영업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를 위해 의미있는 작업이라 판단된다.

또한, 자영업 종사자들은 다른 종사상지위를 갖는 취업자에 비해 인구 구성이나 소득 등에서 집단 내 이질성이 매우 크다고 알려져 있다. 매우 이질적인 집단들이 섞여 있을 때, 그 구성의 효과를 간과하고 이들의 평균적인 특성만을 비교하는 것으로는 현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져오기 어렵다. 또한 노동시장 정책 수립에 있어 대상 집단에 가장 적합한 정

책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대상이 되는 집단을 특성에 따라 분류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장지연 외, 2009).

이상에서 기술한 자영업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직업력 자료를 이용하여 생애 노동 과정에서 자영업 경력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이들의 노동시장 이력을 자세히 들여다봄으로써 지금까지의 자영업 연구에서 결핍되었던 부분을 채우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영업을 경험해 본 사람의 첫 일자리 입직 이후 약 25년간의 노동이력을 생애사적 차원에서 살펴본다. 평균적인 첫 일자리 입직 시기가 20대 중후반인 점을 감안하면 본 연구는 개인의 20대 중후반에서 50대 초중반에 이르는 노동이력을 분석하는 연구이다. 이 기간은 핵심 노동연령에 해당될 뿐 아니라 개인의 생애주기상 결혼, 출산, 육아 등의 주요한 생애 사건들이 집중되는 시기이며 이러한 생애 사건들은 개인의 노동이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최근의 자영업 관련 연구들은 대체로 청년층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과정 또는 중고령층의 주된 일자리에서의 은퇴시점을 전후한 노동이력 변화 연구에 집중되어 있는바,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분석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개인의 노동공급 결정과 공급유형을 분석하는 것은 특정 시점에서 개인의 의사결정이 해당 시점에서의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결과라기보다는 이전부터 축적되어온 경험과 상황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전제한다. 즉, 특정 시점에 다다랐을 때 개인들의 노동공급 의사결정은 이전부터 축적된 기술, 직종, 그리고 자산 상태가 복합적으로 고려되어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한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첫 일자리 입직 이후 25년간의 노동이력을 상용직,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고용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 비취업 또는 실업 등 6개 종사상지위를 기본요소로 구분하고, 이러한 종사상지위의 전환을 사건의 연쇄(event sequence)로 구성한 후 배열분석(sequence analysis) 및 군집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노동이력의 패턴이 유사하게 나타나는 사례끼리 묶어 몇 개의 집단으로 유형화한다. 본 연구는 이질적인 노동이력 유형에 속한 사람들의 인적 특성을 파악함으

로써 자영업 집단 내 이질성을 고려한 노동시장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제2절 선행연구

노동이동에 관한 연구는 중고령층, 청년층, 여성 등 특정 인구 계층의 노동시장 지위의 변화를 살펴보는 연구들이 한 축을 이룬다. 먼저 중고령층의 노동이동에 관한 연구는 노년기의 경제상황과 빈곤화 위험에 주목하면서 중고령층의 은퇴 및 퇴직과정 및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 이후 노동시장참여 여부와 형태를 결정하는 요인 등을 분석하는 연구들로 이루어졌다(장지연, 2003; 방하남·신인철, 2011).

청년층의 노동이동에 관한 연구는 주로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의 원인을 설명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어 왔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파악된 청년층 실업의 주된 원인은 노동시장 진입과정에서의 노동수요와 공급 사이의 불균형, 노동시장에 진입 이후 노동시장 내에서의 고용 불안정 등으로 요약된다(안주엽·홍서연, 2002; 강순희·안준기, 2010). 또한, 청년층의 노동이동의 경우,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과정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 외에도 노동시장 진입 이후 직장 변동 및 그에 따른 임금변화에 주목하는 연구들도 있다(이병희, 2002; 강순희, 2016).

여성의 노동이동을 분석한 연구들은 주로 경력단절 현상에 집중하면서 M자형으로 나타나는 여성의 연령별 취업곡선을 성별화된 여성의 생애라는 맥락으로 설명해 왔다(박경숙·김영혜, 2003; 이유진·김의준, 2014). 그밖에 경제위기가 여성 노동의 경험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주목하는 연구들도 있는데, 경제위기 전후에 급격히 증가한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가 양상이 경제적 위기 국면에서 여성의 임금노동에 대한 요구 증가 및 같은 시기 고조되어온 성평등 요구와 상호상승작용을 일으킨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정이환, 2013; Kwon, 2009). 한편, 경제위기 이후 기업의 성별화된 구조조정 및 저비용 정책이 재정당화됨으로써 노동시장의 젠더

분절이 더욱 심화되었음을 보여주는 연구도 있다(김이선 외, 2019).

이처럼 특정 인구 집단, 또는 특정 시점에서의 노동이동에 집중하는 연구들 외에 특정 고용지위 또는 종사상지위에 있는 개인들의 노동이동에 관한 연구들도 있다. 그중에서 본 연구와 관련된 자영업 노동이동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임금근로자에 비해 고용 불안정성이 높은 자영업자의 노동시장 이동의 실태와 성격, 자영업으로의 노동 이행에 영향을 주는 영향요인들을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하여 지민용 외(2020)에서는 우리나라의 전체 자영업자 중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것을 고려하여 소상공인에 초점을 맞추어 자영업자의 동학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개인·가구·직업력 속성들 중 소상공인을 선택하는 데 주요하게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또한, 임금노동자의 자영업 이행과 근로소득을 분석한 성재민 외(2018)에서는 상당수의 자영업자들이 임금근로 일자리를 거쳐 현재의 자영업 일자리에 도달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자영업 일자리가 첫 일자리인 사람들의 비중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을 보였다. 한편, 중고령층의 자영업 부문 노동시장 진입 및 성과에 집중한 이승렬·손연정(2018)에서는 중고령층의 노동이동 과정을 유형화하고 각각의 하위집단에 속하는 것이 소득과 지출, 일자리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임금근로에서 자영업으로 이행한 경우 또는 자영업 상태를 지속한 경우 등 중고령층에서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상용직을 유지하는 경우와 비교해 소득과 지출, 일자리 만족도가 모두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

### 제3절 연구방법론

#### 1. 분석 자료 및 분석 표본의 특성

자영업 경험자의 노동시장 이행의 동태성과 성격을 규명하기 위한 계량적 분석을 위해 한국노동패널(KLIPS: Korean Labor & Income Panel

Study) 자료를 활용한다. 한국노동패널조사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와 그 가구원을 대상으로 매년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 이동, 소득 및 소비 활동, 교육 및 직업훈련, 고용상의 특성, 사회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하여 추적 조사하는 종단면 조사이다. 본 연구에서는 처음 조사를 시작한 1998년도(1차)자료부터 공개된 가장 최신 자료인 22차 자료(2019년 조사)에서 가구정보가 포함된 개인자료와 1~22차년도 모든 일자리 정보가 누적되어 있는 직업력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다.

직업력 자료는 전체 조사 시점의 주된 일자리뿐 아니라 회고적 일자리를 포함하여 개인이 경험한 모든 일자리의 직종과 고용 형태, 근무 형태 및 조건, 직위 변동 등을 보여준다. 단 직업력을 조사한 자료이므로 미취업 비경제활동과 관련된 정보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또한 직업력은 개인 속성 변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연령, 성별, 교육 수준 등 개인의 인적 특성을 연결하여 분석하기 위해서 직업력과 개인자료를 병합하여 사용하였다.

한국노동패널의 취업력 자료 형태를 보면, 상태별 지속기간(episode)을 단위로 하여 자료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구조를 상태의 배열(sequence) 형태로 전환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노동이력은 노동패널의 주된 일자리에 대한 종사상지위 정보에 기반하여 무급가족종사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고용주), 임시·일용직, 상용직 등으로 범주화하였다. 그런데 노동시장 이행은 다른 직종으로의 이동뿐 아니라 취업에서 미취업, 미취업에서 취업으로의 이동도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한국노동패널 직업력 데이터는 미취업 혹은 실업 정보를 보여주는 변수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전 일자리를 그만 둔 시점과 새로 시작한 일자리의 시작 시점을 비교하여 실업상태 변수를 생성하여 활용하였다. 그리고 자영업을 고용주와 고용인 없는 자영업자로 구분하기 위해 고용인 유무를 묻는 문항을 활용하여 고용주와 고용인 없는 자영업자를 구분하여 노동시장 이행 분석에 포함시켰다.

## 2. 분석 모형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생애 노동이력에서 자영업을 한번이라도 경험한 개인을 대상으로 이들의 첫 직장 입직 이후 25년에 걸친 노동이력을 분석한다.

분석방법은 배열분석과 군집분석을 택하였으며, 이를 통해 노동이력에 따라 개인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속하는 성별, 출생코호트, 학력 등의 영향을 분석한다. 첫 직장 입직 이후 개인의 노동이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첫 직장 입직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후의 각 시점에서의 노동 상태를 나열하여 하나의 배열로 만들어야 한다. 개인마다 첫 직장 입직 이후 노동이력의 길이가 상이하지만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노동이력의 길이를 25년으로 제한하였다. OECD의 연령 구분에 따르면 25세-54세를 핵심 노동 연령으로 구분하고 있다. 평균적으로 첫 직장 입직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하였을 때 첫 직장 입직 후 25년이라는 기간은 개인이 20대 후반-30대 초반에서 50대 초반-50대 중반에 이르는 기간이므로 핵심 노동 연령을 포함하는 기간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첫 직장 입직 후 25년이라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결혼, 출산, 육아 등 주요한 생애 사건들이 일어나는 시기이므로 이러한 생애 사건들로 이러한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분석기간을 25년으로 정하였다.

노동이력은 각 응답자가 25년 동안 어떤 범주에 속하는가를 표현한다. 개인마다 살아온 경로가 다양하기 때문에 노동이력은 개인들마다 각기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다양한 배열 간의 유사성과 상이성을 측정하면, 유사한 배열들로 구성된 유형들로 나누는 군집분석이 가능하다.

배열 간의 유사성과 상이성은 두 배열을 똑같이 만들기 위해 구성 요소를 넣거나 빼는 과정, 혹은 새로운 요소로 대체하는 과정에 드는 비용을 고려해 총비용이 가장 적은 작업 조합을 찾는 최적일치법(optimal matching methods)에 따라 측정된다(Abbott and Tsay, 2000). 최적일치법의 기본발상은 다음과 같다. 만약 두 사람의 노동이력이 첫 일자리 입직 시점을 기준으로 시기별로 다음과 같다고 가정해 보자.

〈표 2-1〉 일자리 배열 예시

	0	1	2	3	4	5	6
개인 1	상용직	상용직	상용직	자영자	자영자	자영자	임시일용
개인 2	상용직	상용직	상용직	자영자	자영자	-	고용주

자료: 저자 작성.

최적일치법의 원리는 이러한 배열 자료에 대해 각 시점에서의 상태를 교체(substitution), 삽입(insertion), 또는 삭제(deletion)함으로써 두 개인의 직업배열이 일치(matching)하도록 만드는 과정에 따라서 두 배열 간의 거리 혹은 근접성을 계산하는 것이다. 개인 1의 경우 첫 일자리가 상용직으로 시작해 3년 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전환, 그로부터 다시 3년 뒤 임시일용직으로 전환되는 노동이력을 보여준다. 한편, 개인 2의 경우 상용직으로 시작해 3년 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자영자)를 거쳐 그로부터 3년 뒤에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고용주)로 전환되는 노동이력을 가진다. 이들 두 사례를 비교해 보면 첫 일자리 시작 이후 4년까지는 두 사람의 종사상지위가 동일하므로 아무런 조작이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두 배열을 정확히 일치시키기 위한 조작이 필요하다. 첫 일자리 시작 후 5년이 경과된 시점에는 개인 2에 대해서 자영자를 삽입하거나 개인 1에 대해 자영자를 삭제하여야 하며, 6년이 경과된 시점에는 개인 1 또는 개인 2 둘 중 하나를 다른 것으로 교체해야 한다. 이러한 조작은 두 개의 배열(sequence) 쌍(pair) 간에 대응되는 상태를 시간의 축을 기준으로 비교해서 이루어지며 본 연구에서는 각 개인이 첫 번째 일자리를 가진 시점을 기준으로 25년 동안의 시간의 경과를 축으로 이용하였다.

최적일치법은 각각의 배열 쌍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일련의 조작과 관련하여 비용이 초래된다고 가정했을 때, 한 쌍의 배열을 일치시키기 위해 필요한 교체, 삭제, 삽입 등의 조작 횟수와 각 조작에 초래되는 비용을 곱해서 얻은 총비용을 최소화하는 일련의 조작을 찾는 것이다. 여기서 배열 간 거리 측정 알고리즘은 리벤슈타인 거리(Levenshtein distance) 개념을 이용한다<sup>1)</sup>.

1) 배열간 거리 계산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Brzinsky-Fay et al.(2006) 참조.

마지막으로 이렇게 계산된 거리 값을 일종의 상이성(dissimilarity) 값으로 간주하여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적용하여 여러 배열들 간에 서로 유사한 배열들의 유형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몇 개로 구분이 되는지, 구분된 각 유형의 전형적인 배열은 어떠한지 등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분석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 제4절 분석 결과

### 1. 자영업 경험자

<표 2-2>는 생애노동 과정 중 한번이라도 자영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개인과 그렇지 않은 개인의 인구학적 특성을 비교한 것이다. 출생코호트별 비중을 보면 자영업 경험자가 1950-1959년, 1960-1969년 출생코호트의 비중이 각각 20.5%와 19.7%로 비경험자의 12.5%, 15.0%와 비교하여 높게 나타난 반면, 1990년 이후 출생코호트의 비중은 자영업 경험자와 비경험자가 각각 7.0%와 20.3%로 자영업 경험자보다 비경험자에서 그 비중이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자영업 진입이 초기자본을 필요로 하므로 청년층에서 자영업 진입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반면 퇴직 이후 자영업으로 진입하는 중고령층이 많기 때문에 자영업 종사자의 평균 연령이 임금근로자와 비교해 높은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교육 수준을 살펴보면, 자영업 경험자에 비해 비경험자의 교육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성별 분포를 보면 자영업 경험자의 경우 남성과 여성의 비중이 각각 48.5%와 51.5%로 나타나, 자영업 비경험자의 46.2%, 53.9%에 비해 남성의 비중이 약간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 2-3>은 자영업 경험자와 자영업 비경험자의 생애노동 동안 경험한 일자리의 수 분포를 성별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자영업 비경험자의 경우 개인의 전 생애노동 동안 하나의 일자리만 갖는 경우가 남성은 49.2%, 여성은 56.1%이며, 2개의 일자리를 갖는 경우도 남성과 여성이

〈표 2-2〉 생애노동 과정 중 자영업 경험자와 비경험자의 인구학적 특성 비교

(단위: 명, %)

		자영업 경험자			자영업 비경험자		
		남성	여성	합계	남성	여성	합계
출생 년도	1949년 이전	893 (19.5)	909 (18.7)	1,802 (19.1)	1,035 (16.3)	1,773 (23.9)	2,808 (20.3)
	1950년-1959년	937 (20.5)	956 (19.7)	1,893 (20.1)	795 (12.5)	1,111 (15.0)	1,906 (13.8)
	1960년-1969년	937 (20.5)	1,048 (21.6)	1,985 (21.1)	955 (15.0)	963 (13.0)	1,918 (13.9)
	1970년-1979년	906 (19.8)	949 (19.6)	1,855 (19.7)	1,188 (18.7)	1,176 (15.8)	2,364 (17.1)
	1980년-1989년	592 (13.0)	639 (13.2)	1,231 (13.1)	975 (15.3)	1,031 (13.9)	2,006 (14.5)
	1990년 이후	307 (6.7)	350 (7.2)	657 (7.0)	1,421 (22.3)	1,379 (18.6)	2,800 (20.3)
학력	고졸 이하	1,219 (26.7)	1,752 (36.1)	2,971 (31.5)	1,529 (24.0)	2,900 (39.0)	4,429 (32.1)
	고졸	1,653 (36.2)	1,580 (32.6)	3,233 (34.3)	1,796 (28.2)	1,914 (25.8)	3,710 (26.9)
	대졸 이상	1,700 (37.2)	1,519 (31.3)	3,219 (34.2)	3,044 (47.8)	2,619 (35.2)	5,663 (41.0)
전 체		4,572 (48.5)	4,851 (51.5)	9,423 (100.0)	6,369 (46.2)	7,433 (53.9)	13,802 (100.0)

주: ( ) 안은 비중임.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22차 직업력 조사 원자료.

각각 23.8%와 23.2%로, 전체의 70% 이상이 생애노동 전반에 걸쳐 한두 개의 일자리를 경험하는 데 그친다. 반면, 자영업 경험자의 경우 생애노동 중 하나의 일자리만 경험하는 경우는 남성은 11.8%, 여성은 17.9%에 그치고 있으며 2개의 일자리를 경험하는 경우도 21.3%와 21.4%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60% 이상이 생애노동 전반에 걸쳐 3개 이상의 일자리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 자영업 경험자가 생애노동 동안 경험한 일자리 수

일자리 수	자영업 경험자				자영업 비경험자			
	남성		여성		남성		여성	
	N	%	N	%	N	%	N	%
1	537	11.8	867	17.9	2,451	49.2	2,669	56.1
2	972	21.3	1,037	21.4	1,188	23.8	1,103	23.2
3	848	18.6	857	17.7	641	12.9	503	10.6
4	628	13.7	317	12.7	290	5.8	228	4.8
5	407	8.9	467	9.6	194	3.9	111	2.3
6	361	7.9	309	6.4	83	1.7	79	1.7
7	278	6.1	253	5.2	71	1.4	37	0.8
8	190	4.2	158	3.3	26	0.5	14	0.3
9	118	2.6	97	2.0	12	0.2	5	0.1
10개 이상	233	4.9	489	3.8	27	0.6	8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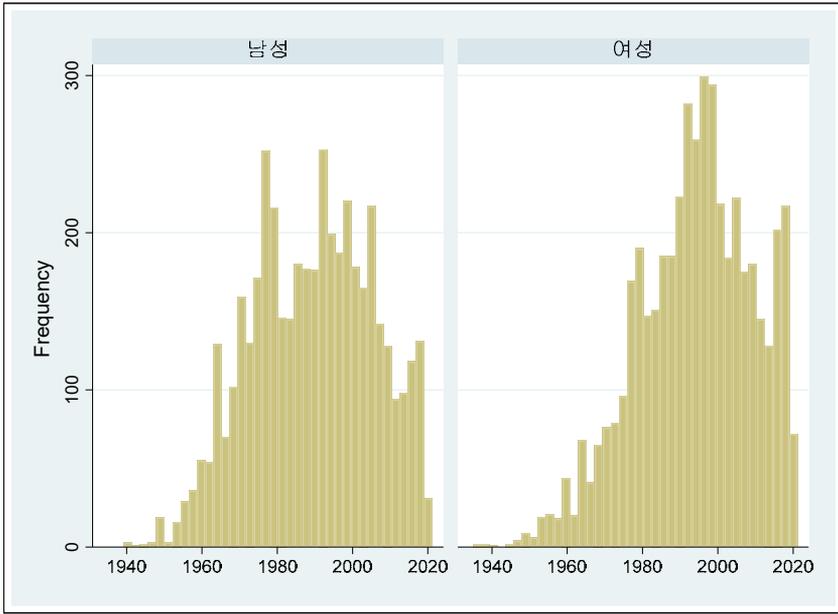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22차 직업력 조사 원자료.

이를 통해 자영업 경험자가 비경험자에 비해 잦은 일자리 이동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의 분석에서는 일자리 이동을 이전 직장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방향으로의 경력 내 이동과 이전 직장 상이한 산업 또는 업무로 전환하는 경력 간 이동을 구분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잦은 일자리 이동은 효과적인 경력 축적을 저해함으로써 노동시장 성과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자영업 경험자의 노동이동 과정에 대해 보다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연구들이 필요할 것이다.

## 2. 자영업 경험자의 노동이동

본 연구의 분석 틀에서는 시간 축을 첫 일자리를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얼마나 시간이 경과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첫 일자리 시작부터 25년 경과 후까지의 시기를 분석한다. 따라서 이후 소개할 분석에서는 총 25년간의 노동이력을 모두 파악할 수 있는 개인들로 분석대상을 한정하였다. 즉, 노동패널조사의 가장 최신 자료인 2019년 자료를 기준으로 25년 전인 1994년 또는 그 이전에 첫 일자리를 시작한 개인들이 분석대상이 된다.

(그림 2-1) 첫 직장 입직 연도별 자영업 경험자 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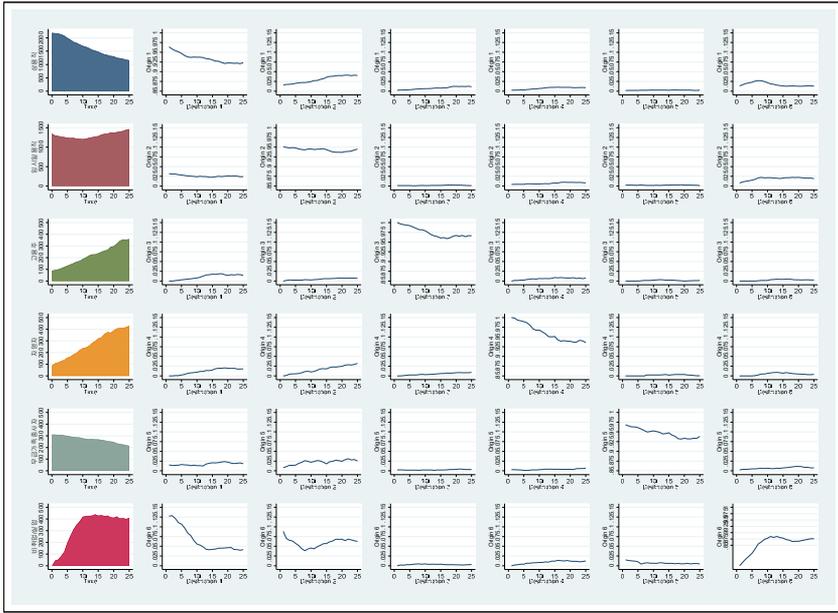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22차 직업력 조사 원자료.

[그림 2-1]은 한국노동패널 22차 직업력 자료에서 파악된 9,423명의 자영업 경험자의 첫 일자리 시작 시점별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이 가운데 1994년 이전 첫 일자리로 입직한 개인은 4,054명으로, 이 가운데 각 시점에 대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무응답인 경우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분석에 이용된 자료는 1,883개 사례를 포함한다.

[그림 2-2]는 자영업 경험자의 첫 일자리 입직 시기를 기준으로 시점별 종사상지위 간 이행 확률을 보여준다. 첫 번째 열을 제외하면, 대각선에 위치한 그래프는 동일한 종사상지위가 유지될 확률을, 나머지 그래프는 다른 종사상지위로 각각 전환될 확률을 나타낸다. 첫 번째 행의 상용직의 경우 초기에는 동일 지위에 머무를 확률이 비교적 높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임시일용직으로 전환할 확률이 높아진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고용주)의 경우 다른 종사상지위와 비교하여 변동성이 가장 작은 집단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동일 지위에 머무를 확률은 줄어드는 반면 상용직으로의 전환 확률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며, 고용원이 없는 자

[그림 2-2] 자영업 경험자의 첫 직장 입직 이후 상태 간 이행 확률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22차 직업력 조사 원자료.

영업자(자영자)의 경우에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동일 종사상지위에 머무르기보다는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으로 전환할 확률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비취업/실업 등 무직 상태의 경우 초기에는 상용직이나 임시일용직으로 전환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동일한 종사상지위에 머무를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는 성별, 출생코호트별로 자영업 경험자의 첫 일자리 입직 시점을 기준으로 1년, 5년, 25년 후의 종사상지위의 분포를 제시하고 있다. 1950년 이전, 1950-1959년, 1960-1969년 코호트의 경우 남성과 여성 모두 상용직의 비중이 첫 일자리 시작 이후 10년, 25년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1970년 이후 코호트의 경우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상용직 비중이 10년 경과된 시점에서 증가하였다가 25년 후에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주와 자영업자의 비중을 보면, 첫 일자리 시작 시점에 비해 10년, 25년으로 시간이 경과하면서 그 비중이 모든 코호트와 성별에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남성의 경우 고용주와 자영업자의

〈표 2-4〉 자영업 경험자의 첫 일자리 입직 후 시점별 종사상지위 분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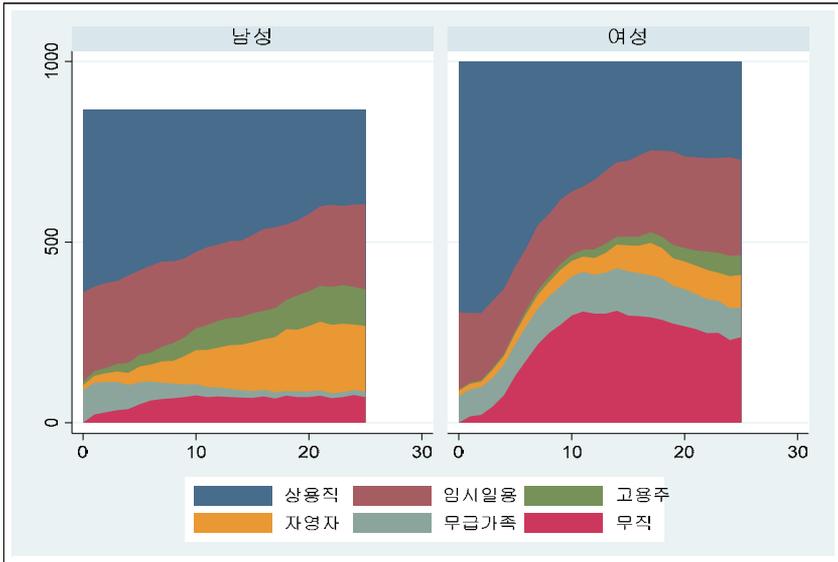
시점	종사상지위	남성					여성				
		1950 이전	1950- 1959	1960- 1969	1970 이후	전체	1950 이전	1950- 1959	1960- 1969	1970 이후	전체
0년	상용직	41.2	53.0	55.3	30.5	42.0	21.7	39.2	56.0	37.8	39.2
	임시일용	43.7	34.8	33.9	63.3	48.1	58.1	47.8	37.7	59.0	52.0
	고용주	2.8	4.1	6.1	4.3	4.4	1.1	2.2	1.4	1.7	1.6
	자영자	2.9	1.6	2.1	1.1	1.7	5.1	2.3	1.4	0.7	1.9
	무급가족	9.5	6.5	2.6	1.0	3.9	14.1	8.5	3.6	0.8	5.3
10년	상용직	39.7	44.9	42.8	56.7	47.6	18.0	32.3	42.7	45.2	36.7
	임시일용	40.8	33.6	27.5	21.7	29.3	49.0	38.3	24.9	25.1	32.5
	고용주	4.3	6.9	14.5	10.9	9.6	1.1	3.5	1.5	3.9	2.7
	자영자	7.1	7.4	10.4	5.9	7.5	7.7	3.9	3.9	4.5	4.8
	무급가족	3.9	3.3	0.9	0.5	1.9	15.2	11.0	6.4	2.3	7.6
	비취업	4.2	4.0	3.9	4.4	4.1	9.0	11.0	20.6	19.0	15.8
25년	상용직	30.9	29.0	29.0	44.0	30.7	12.2	25.2	31.4	33.0	24.9
	임시일용	41.3	31.7	33.2	26.5	34.5	46.4	36.4	32.3	33.6	37.4
	고용주	6.6	13.8	18.8	11.0	13.0	2.0	4.0	6.2	6.4	4.5
	자영자	13.2	16.9	15.0	14.5	15.1	9.0	6.9	7.0	7.9	7.7
	무급가족	0.7	1.8	1.5	1.0	1.3	13.8	9.8	7.3	4.1	9.2
	비취업	7.3	6.9	2.6	3.0	5.4	16.5	17.8	15.9	14.9	16.4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22차 직업력 조사 원자료.

비중 증가가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첫일자리 시작 시점에서 고용주와 자영자 비중이 각각 4.4%와 1.7%에서 25년 경과 후에는 각각 13.0%와 15.1%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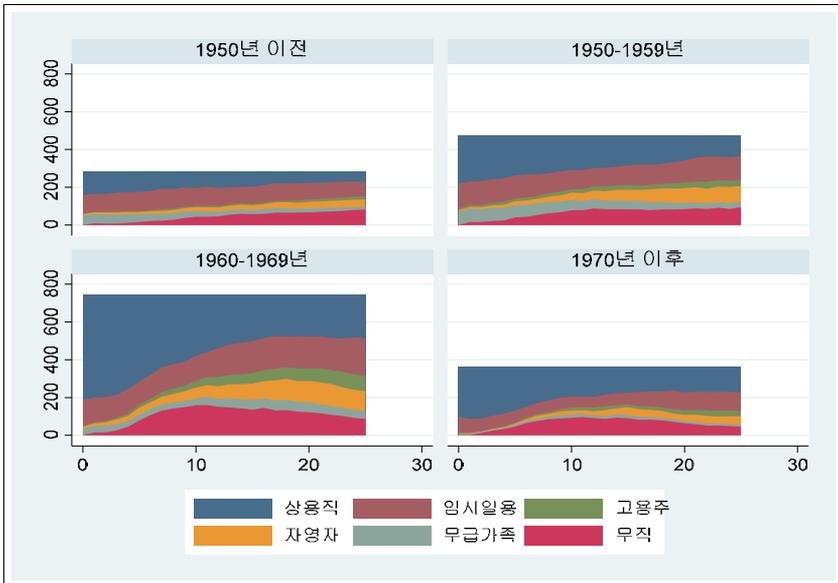
[그림 2-3]과 [그림 2-4]는 성별, 출생코호트별로 자영업 경험이 있는 개인들이 첫 일자리 입직 이후 25년간 거친 종사상지위를 연도별 분포로 나타낸 것이다. 이 그림들은 첫 일자리 입직 이후 연도별로 각 성별 또는 출생코호트에 속하는 개인들 중 몇 퍼센트가 특정 종사상지위에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개인별 노동이력을 보여주지는 않지만 종사상지위 분포로 포착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 추이를 보여준다.

[그림 2-3] 첫 직장 입직 이후 각 시점별 종사상지위 분포(남성/여성)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22차 직업력 조사 원자료.

[그림 2-4] 첫 직장 입직 이후 각 시점별 종사상지위 분포(출생코호트별)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22차 직업력 조사 원자료.

종사상지위 분포의 변화는 성별 격차가 뚜렷하게 관찰되는데, 남성은 첫 일자리 시작 이후 상용직 비중이 서서히 감소하는 데 비해, 여성은 상대적으로 첫 일자리 시작 시점에서 상용직 비중이 큰 편이나, 시간이 지나면서 상용직 비중은 급격히 감소하고 임시일용직 비중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여성은 비취업/실업 비중이 첫 일자리 시작 후 10년 경과 시점까지 급격히 증가하며 그 이후 완만하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여성이 출산과 육아의 부담으로 경력 형성 초기에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현상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된다. 경력 후반부에 여성의 임시일용직 비중이 높은 것은 경력단절 이후 노동시장에 재진입한 여성들 대부분이 임시일용직 일자리에 진출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남성의 경우 자영업자의 비중이 경력 후반부로 갈수록 크게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는데, 임금근로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조기에 퇴직한 후 자영업으로 전환되는 상황이 빈번한 현실을 반영하는 결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5>~<표 2-7>은 자영업 경험자의 종사상지위가 첫 직장 입직 후 5년, 10년, 2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각각 어떠한 상태로 변화하였는지를 보여준다.

<표 2-5> 자영업 경험자의 종사상지위 변화(첫 직장 입직 5년 후)

(단위: 명)

종사상지위	전체	상용직	임시·일용직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비취업/실업
상용직	2,190 (100.0)	1,843 (84.2)	132 (6.0)	32 (1.5)	31 (1.4)	18 (0.8)	134 (6.1)
임시일용	1,353 (100.0)	142 (10.5)	1,094 (80.9)	9 (0.7)	31 (2.3)	20 (1.5)	57 (4.2)
고용주	89 (100.0)	0 (0.0)	1 (1.1)	87 (97.8)	1 (1.1)	0 (0.0)	0 (0.0)
자영업자	90 (100.0)	0 (0.0)	1 (1.1)	0 (0.0)	89 (98.9)	0 (0.0)	0 (0.0)
무급가족	311 (100.0)	18 (5.8)	17 (5.5)	4 (1.3)	5 (1.6)	262 (84.2)	5 (1.6)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22차 직업력 조사 원자료.

〈표 2-6〉 자영업 경험자의 종사상지위 변화(첫 직장 입직 10년 후)

(단위: 명, %)

종사상 지위	전체	상용직	임시·일용직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 종사자	비취업/실업
상용직	2,190 (100.0)	1,452 (66.3)	246 (11.2)	79 (3.6)	73 (3.3)	41 (1.9)	299 (13.7)
임시일용	1,353 (100.0)	219 (16.2)	916 (67.7)	19 (1.4)	68 (5.0)	27 (2.0)	104 (7.7)
고용주	89 (100.0)	1 (1.1)	0 (0.0)	85 (95.5)	1 (1.1)	1 (1.1)	1 (1.1)
자영자	90 (100.0)	0 (0.0)	3 (3.3)	1 (1.1)	86 (95.6)	0 (0.0)	0 (0.0)
무급가족	311 (100.0)	28 (9.0)	44 (14.2)	5 (1.6)	9 (2.9)	210 (67.5)	15 (4.8)

주: ( ) 안은 비중임.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22차 직업력 조사 원자료.

〈표 2-7〉 자영업 경험자의 종사상지위 변화(첫 직장 입직 25년 후)

(단위: 명, %)

종사상 지위	전체	상용직	임시·일용직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 종사자	비취업/실업
상용직	2,190 (100.0)	841 (38.4)	622 (28.4)	222 (10.1)	184 (8.4)	78 (3.6)	243 (11.1)
임시일용	1,353 (100.0)	266 (19.7)	718 (53.1)	44 (3.3)	149 (11.0)	36 (2.7)	140 (10.4)
고용주	89 (100.0)	4 (4.5)	2 (2.3)	77 (86.5)	4 (4.5)	0 (0.0)	2 (2.3)
자영자	90 (100.0)	4 (4.4)	17 (18.9)	6 (6.7)	62 (68.9)	1 (1.1)	0 (0.0)
무급가족	311 (100.0)	42 (13.5)	106 (34.1)	10 (3.2)	30 (9.7)	98 (31.5)	25 (8.0)

주: ( ) 안은 비중임.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22차 직업력 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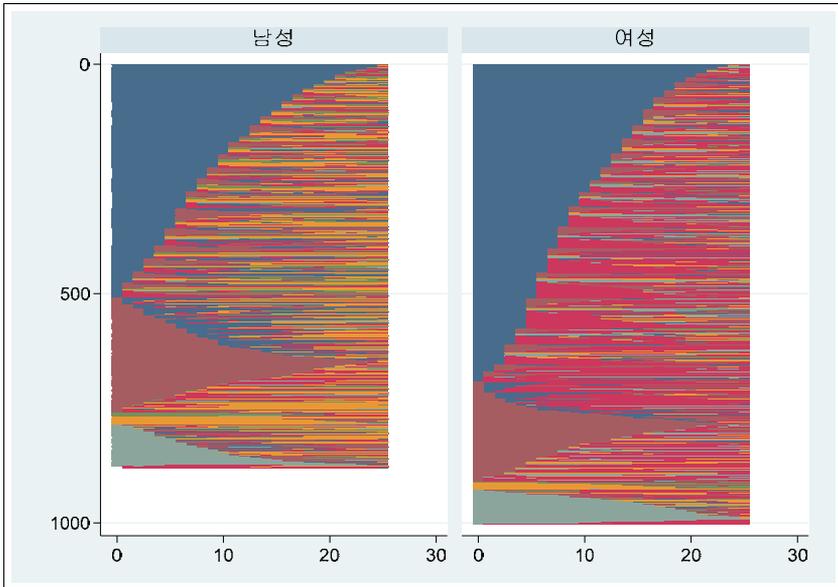
두 시점 간의 종사상지위 변화 여부를 보여주는 이러한 이동표(mobility table)는 한 개인의 경력이동에 관한 전반적인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준다. 하지만 두 시점 사이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구체적

인 정보는 파악할 수 없으며 종사상지위의 이동이 일어나는지 여부, 즉 상태 변화 여부에 관한 분석으로 집중되기 때문에 변화 시점이 언제인지 어떤 직업들을 거쳐 경력이동이 일어났는지의 경로에 대한 연구는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하의 분석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개인의 경력을 각 시점 단위로 나누어 분석함으로써 개인의 장기간에 걸친 노동이력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 3. 자영업 경험자의 노동이력 유형 분석

[그림 2-5]는 자영업 경험자의 첫 일자리 입직 이후 15년 동안의 노동이력을 배열한 것이다. 각 그래프의 가로선 하나 하나는 개별 자영업 경험자의 15년 노동이력을 나타낸다. 성별로 그림의 세로 폭이 다른 것은 사례 수의 차이 때문이다. [그림 2-3]과 [그림 2-4]와 마찬가지로 파란색은 ‘상용직’을, 자주색은 ‘임시일용직’을, 연두색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그림 2-5) 자영업 경험자의 시점별 노동이력 분포(남성/여성)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22차 직업력 조사 원자료.

를, 노란색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를, 민트색은 ‘무급가족종사자’를, 빨간색은 ‘비취업 또는 실업’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파란색으로만 이루어진 선은 첫일자리 입직 후 15년 내내 상용직에 있던 사람을 나타내고, X축의 0에서 5까지는 파란색이다가 그 이후 15까지 노란색인 선은 첫일자리 입직 후 5년 동안 상용직을 유지하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을 시작해 15년까지 유지한 사람을 나타낸다.

이러한 노동이력은 노동시장의 구조가 반영된 개인의 삶의 궤적을 하나의 선으로 압축한 것이다(Halpin, 2017). 그러나 사람들이 제각기 다른 이력을 가진 만큼 수없이 다양한 형태의 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림 2-5]에 제시된 선들의 단순 집합은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적으로 드러내기에는 너무 복잡하다. 따라서 유사한 패턴을 가지는 선들, 즉 배열 간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가까운 노동이력들을 묶어 각기 구별되는 집단으로 구분하는 유형화 작업이 필요하다.

[그림 2-6]은 개인들의 노동이력을 최적일치법에 따라 유형화한 결과이다. 전체 자영업 경험자 중에서 각 시점에 대한 정보에 결측치가 포함되어 분석에서 제외된 경우를 제외하면 최종 분석에 이용된 자료는 1,883개의 노동이력 배열을 포함한다. 사건배열을 최적일치법(OM)으로 배열간 거리를 계산하여 매트릭스를 구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최종적으로 8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각 집단의 전형적인 특성과 전체 분석대상에서 각 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표 2-8>에 함께 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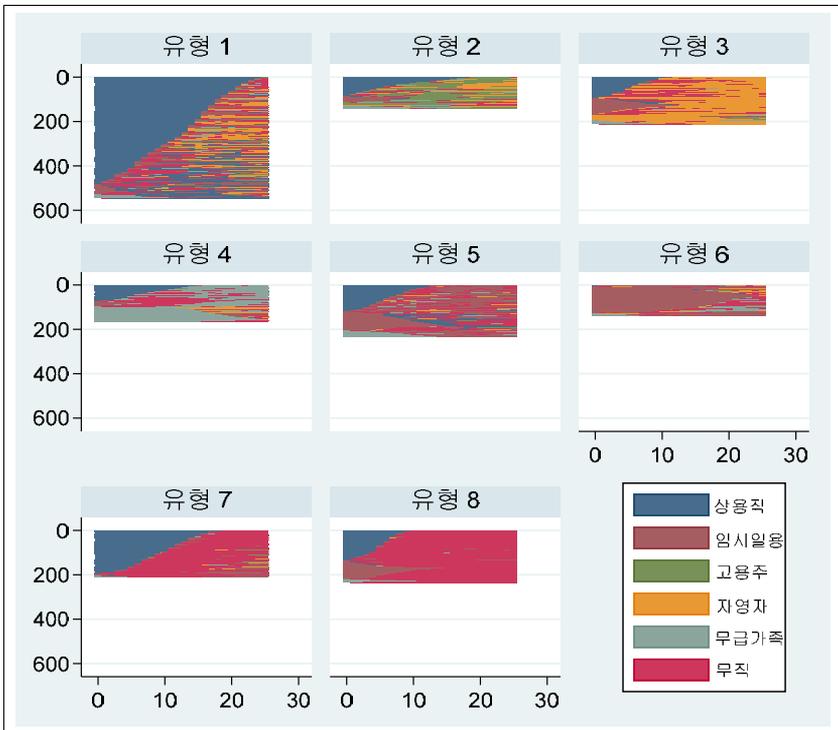
첫 번째 유형(유형1: 상용직지속형)은 첫 일자리의 종사상지위가 상용직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상용직에서 다른 종사상지위로 전환되기도 하지만 대체로 첫 일자리 시작 이후 25년간의 기간 동안 상용직을 오래 지속하는 집단으로, ‘상용직지속형’이라고 명명하였다. 유형1은 전체 분석대상의 2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 8개 집단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두 번째 유형(유형2: 자영업(고용주)지속형)은 상용직 또는 임시일용직에서 일정 기간 일한 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로 전환되어 분석 기간 중 고용주로서의 종사상지위를 오래 지속하는 경우와 고용원이 있는 자

영업자로 첫 일자리를 시작해 대체로 그 지위를 분석 기간 내내 지속하는 경우를 아우르고 있어 ‘자영업(고용주)지속형’으로 명명하였다. 유형2는 전체 분석대상의 7.4%를 차지하고 있다.

세 번째 유형(유형3: 자영업(자영자)지속형)은 상용직 또는 임시일용직으로 첫 일자리를 시작하지만 비교적 이른 시기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자영자)로 전환되어 분석 기간의 상당 부분을 자영자로 머무는 경우와 첫 일자리를 자영자로 시작하여 분석 기간 내내 자영자의 지위를 대체로 유지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유형3은 ‘자영업(자영자)지속형’으로 명명하였다. 이 유형은 전체 분석대상의 11.3%

(그림 2-6) 자영업 경험자의 유형별 노동이력 분포



주: 유형1: 상용직지속형, 유형2: 자영업(고용주)지속형, 유형3: 자영업(자영자)지속형, 유형4: 무급가족종사자지속형, 유형5: 빈번한종사상지위전환형, 유형6: 임시일용직지속형, 유형7: 상용직지속후퇴직형, 유형8: 임금근로조기퇴직형.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22차 직업력 조사 원자료.

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 유형(유형4: 무급가족종사자지속형)은 첫 일자리가 상용직이거나 무급가족종사자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일시적으로 상용직이나 무직 상태를 거치기도 하나 분석 기간 중 대체로 무급가족종사자 지위를 오랫동안 지속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이 유형은 ‘무급가족종사자지속형’이라고 명명하였다. 유형4는 전체 분석대상의 약 8.8%를 차지하고 있다.

다섯 번째 유형(유형5: 빈번한종사상지위전환형)은 전반적으로 종사상지위 전환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사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용직이나 임시일용직(무급가족종사자도 일부 존재)으로 첫 일 자리를 시작하여 임시일용직, 상용직, 무직상태 등으로 전환되었다 그 후에 다시 다른 종

〈표 2-8〉 노동이력 유형에 따른 8개 집단의 특징 및 분포

유형	명칭	집단의 특성	사례수(%)
1	상용직지속형	상용직으로 일하다 다른 종사상지위로 전환되기도 하지만 대체로 상용직을 오래 지속하는 유형	546(29.0)
2	자영업(고용주) 지속형	상용직에서 일정 기간 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고용주)로 전환되거나 고용주로 시작해 오랫동안 지속하는 유형	140(7.4)
3	자영업(자영자) 지속형	상용직 또는 임시일용직을 짧은 기간 유지하다 무직 상태를 거쳐 자영자로 전환되거나 처음부터 자영자로 시작하여 지속하는 등 자영자로 오랫동안 노동시장에 있는 유형	212(11.3)
4	무급가족종사자지속형	상용직이나 무직 상태를 거치기도 하나, 대체로 무급가족종사자를 오래 지속하는 유형	166(8.8)
5	빈번한 종사상지위 전환형	상용직이나 임시일용직으로 시작해서 다른 종사상지위나 실직 상태로 잦은 전환이 일어나는 유형	234(12.4)
6	임시일용직 지속형	임시일용직을 오래 지속하는 유형	139(7.4)
7	상용직지속 후퇴직형	상용직을 오래 지속하다 퇴직하는 유형	208(11.1))
8	임금근로조기 퇴직형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으로 비교적 이른 시기에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유형	238(12.6)

자료: 저자 작성.

사상지위로 여러 차례 전환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처럼 노동이동이 빈번한 사례들로 구성된 유형5는 ‘빈번한종사상지위전환형’으로 명명하였으며, 전체 분석대상의 12.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 번째 유형(유형6: 임시일용직지속형)은 임시일용직으로 첫 일자리를 시작하여 같은 종사상지위를 오랫동안 지속하는 유형으로, 시간이 경과하면서 분석 기간 끝부분에서는 종사상지위의 전환이 관측되는 사례들도 있으나 임시일용직을 분석기간 내내 유지하는 사례들이 대부분인 집단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유형6은 ‘임시일용직지속형’으로 명명하였으며, 전체 분석대상의 7.4% 정도이다.

일곱 번째 유형(유형7: 상용직지속후퇴직형)은 상용직으로 첫 일자리를 시작하지만 일정 기간 경력 형성 이후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집단으로, ‘상용직지속후퇴직형’으로 명명하였다. 이 유형은 전체 분석대상의 11.1%를 차지하고 있다.

마지막 여덟 번째 유형(유형8: 임금근로조기퇴직형)은 상용직 또는 임시일용직으로 첫 일자리를 시작하여 비교적 경력 초기에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유형으로, ‘임금근로조기퇴직형’으로 명명하였다. 이 유형은 전체 분석대상의 12.6%를 차지하고 있다.

<표 2-9>는 자영업 경험자의 각 노동이력 유형의 인구학적 특징을 보여준다. 먼저 각 유형별 성비를 살펴보면, 유형2와 유형3과 같이 자영업에 종사하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노동이력을 가진 집단의 경우 남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무급가족종사자로 오래 지속하는 유형4와 임금근로자로 퇴직하여 다른 종사상지위의 경험이 거의 없는 집단인 유형7과 유형8은 여성의 비중이 훨씬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노동이력 유형별 출생코호트 비중을 보면, 임시일용직을 오래 지속하는 집단인 유형6의 경우가 다른 유형들에 비해 연령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상용직 유지 시기가 상대적으로 긴 집단인 유형1과 유형2, 유형7의 경우 타 유형에 비해 젊은 세대(1960년대와 1970년 이후 코호트)의 비중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학력분포를 살펴보면, 상용직에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의 전환이 빈번한 집단인 유형2의 경우가 학력 수

〈표 2-9〉 자영업 경험자의 노동이력 유형별 인구학적 특성

(단위: %)

변수	구분	빈도(%)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유형5	유형6	유형7	유형8
성별	남성	55.3	70.0	67.9	16.9	59.8	59.7	21.6	16.8
	여성	44.7	30.0	32.1	83.1	40.2	40.3	78.4	83.2
출생 코호트	1950년 이전	9.9	7.1	15.6	18.1	18.4	31.7	13.0	20.6
	1950년대	22.7	24.3	27.4	33.7	31.6	30.2	16.4	24.0
	1960년대	42.5	51.4	41.5	36.8	29.1	32.4	44.2	37.0
	1970년 이후	24.9	17.1	15.6	11.5	20.9	5.8	26.4	18.5
학력	고졸 이하	27.7	17.1	25.9	53.0	41.9	56.1	33.7	38.2
	2-3년제 대학	46.0	39.3	48.1	35.5	42.7	34.5	51.4	44.5
	4년제 대학	26.4	43.6	25.9	11.5	15.4	9.4	14.9	17.2
거주 지역	수도권 거주	59.3	50.7	63.2	71.1	55.6	61.9	55.3	60.9
	그 외 지역	40.7	49.3	36.8	28.9	44.4	38.1	44.7	39.1
Obs. (1,883)		546	140	212	166	234	139	208	238
		29.0	7.4	11.3	8.8	12.4	7.45	11.1	12.6

주: 유형1: 상용직지속형, 유형2: 자영업(고용주)지속형, 유형3: 자영업(자영자)지속형, 유형4: 무급가족종사자지속형, 유형5: 빈번한종사상지위전환형, 유형6: 임시일용직지속형, 유형7: 상용직지속후퇴직형, 유형8: 임금근로조기퇴직형.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22차 직업력 조사 원자료.

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자영업의 고학력화 현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임시일용직으로 장기간 지속하는 집단인 유형6과 무급가족종사자를 오래 지속하는 집단인 유형4는 전체 8개 유형 가운데 학력 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에 속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거주 비중을 보면, 무급가족종사자로의 이력이 주를 이루는 유형4가 수도권 거주 비중이 71.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형3, 유형6, 유형8 역시 수도권 비중이 6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2-10>은 자영업 경험자의 노동이력 유형별 첫 일자리 입직 연령과 로그 평균임금을 보여준다. 평균임금은 첫 일자리 입직 이후 25년 동안 월임금의 평균을 계산한 것이다. 유형별 평균 입직 연령을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무급가족종사자 지위를 오래 유지하는 유형4의 입직 연령이 18.2세로 가장 낮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고용주) 지위를 오래 지속하는 유형2가 25.1세로 입직 연령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상용직을 오래 지속하는 집단인 유형1의 입직 연령이 21.9세로 가장 낮았으며, 임시일용직을 오랜 기간 지속하는 유형6이 27.8세로 첫일자리 시작 연령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로그 평균임금은 남성과 여성 모두 상용직에서 이른 시기에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집단이 유형8이 가장 낮고, 그 다음으로 무급가족종사자 지위를 분석 기간 동안 대체로 지속하는 유형4가 분석기간 중 평균임금이 두 번 째로 낮은 집단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분석기간 평균임금이 가장 높은 집단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고용주)를 오래 지속하는 집단인 유형2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표 2-10>에서 살펴본 유형별 로그 평균임금의 차이는 각 유형의 인구학적 구성에 따른 임금 수준의 차이를 모두 포함한 결과이다.

<표 2-10> 자영업 경험자의 노동이력 유형별 첫입직 연령 및 로그 평균임금

	노동이력 유형	입직연령		로그 평균임금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자영업 경험자	유형 1	22.5	21.9	4.69	4.01
	유형 2	25.1	24.9	5.32	4.87
	유형 3	23.5	25.7	4.48	4.08
	유형 4	18.2	22.0	3.84	2.60
	유형 5	21.8	25.9	4.38	3.93
	유형 6	22.6	27.8	3.90	3.36
	유형 7	23.3	22.0	3.90	3.21
	유형 8	23.6	23.0	3.42	2.56
	전체	22.8	23.2	4.52	3.50
자영업 비경험자		24.0	24.6	4.95	3.62

주: 유형1: 상용직지속형, 유형2: 자영업(고용주)지속형, 유형3: 자영업(자영자)지속형, 유형4: 무급가족종사자지속형, 유형5: 빈번한종사상지위전환형, 유형6: 임시일용직지속형, 유형7: 상용직지속후퇴직형, 유형8: 임금근로조기퇴직형.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22차 직업력 조사 원자료.

예컨대 유형7과 유형8의 평균임금이 타 유형에 비해 낮은 것은 이 집단들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이 집단에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여성, 저학력·저숙련 노동자가 많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따라서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특성들을 통제한 후 각 노동이력에 속하는 것이 소득에 미치는 순수한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 종속변수를 로그 평균임금으로 한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는 <표 2-11>에 제시되어 있다.

<표 2-11>의 모형 (1)은 통제변수를 포함하지 않은 분석 결과이며 모형 (2)는 인적 특성들을 통제한 결과이다. 모형 (2)의 분석 결과는 성별, 학력, 연령, 거주 지역이 동일할 경우 특정 노동이력 유형에 속하는 것이

<표 2-11> 노동이력 유형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구분		(1)	(2)
노동이력 유형 (기준: 유형1)	유형2	0.783*** (0.076)	0.637*** (0.071)
	유형3	-0.038 (0.073)	-0.044 (0.067)
	유형4	-1.612*** (0.129)	-1.234*** (0.121)
	유형5	-0.142** (0.063)	-0.061 (0.056)
	유형6	-0.642*** (0.132)	-0.434*** (0.119)
	유형7	-1.024*** (0.074)	-0.761*** (0.069)
	유형8	-1.678*** (0.087)	-1.345*** (0.082)
성별	여성		-0.647*** (0.043)
학력 (기준: 고졸 이하)	고졸		0.090 (0.058)
	대졸 이상		0.388*** (0.062)

〈표 2-11〉의 계속

구분		(1)	(2)
연령 (기준: 1950년 이전)	1950년대		0.353*** (0.095)
	1960년대		0.541*** (0.091)
	1970년 이후		0.760*** (0.096)
지역	수도권 거주		0.096** (0.043)
상수		4.378*** (0.039)	3.971*** (0.089)
R-squared		0.371	0.488
Obs		1,640	

주: 1)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2) 1집단을 기준 범주로 설정하여 다항로짓 분석을 시행하였음. 유형1: 상용직 지속형, 유형2: 자영업(고용주)지속형, 유형3: 자영업(자영자)지속형, 유형4: 무급가족종사자지속형, 유형5: 빈번한중사상지위전환형, 유형6: 임시일용직 지속형, 유형7: 상용직지속후퇴직형, 유형8: 임금근로조기퇴직형.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22차 직업력 조사 원자료.

첫 일자리 입직 이후 25년간 개인의 평균임금에 미치는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모형 (2)의 결과를 해석하면, 다른 인적 특성이 동일할 경우, 유형2는 유형1에 비해 평균임금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반면, 유형4와 유형6, 유형7, 유형8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평균임금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유형8의 경우 노동시장에서 이른 시기에 이탈한 집단인 만큼 타 유형들에 비해 평균임금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종사상지위의 전환이 빈번한 집단인 유형5의 경우 모형 (1)에서는 유형1에 비해 평균임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형 (2)에서 인적 특성을 통제한 후 통계적 유의성이 사라져 이러한 차이가 대체로 인적 특성에서 기인한 것임을 시사한다.

## 제5절 소 결

그동안 자영업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자영업을 선택하고 어떤 요인들로 인해 자영업에서 퇴출되는지, 자영업 선택의 결과로서 자영업 소득은 어떠한지 등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편이다. 하지만 자영업 경험자들이 생애노동 동안 언제 어떠한 노동지위를 거쳐 자영업에 이르는지, 또 자영업에서 이탈한 경우 그 뒤에 어떤 노동경력을 갖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는 연구는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영업 경험자들의 첫 일자리 시작부터 25년에 걸친 노동이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유사한 노동이력을 가지는 집단을 유형화함으로써 각 노동이력 유형별로 전형적인 특성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개인의 생애노동에서 25년이라는 기간은 노동시장에서 경력이 안정되는 시기, 생애주기적으로 결혼, 출산, 육아 등 주요한 생애 사건들이 발생하는 핵심적인 시기이다. 그동안 청년층이나 중고령층에 대한 연구가 빈번하였던 자영업 관련 연구에서 이러한 핵심 노동 연령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던 것을 고려하면 본 연구가 그러한 연구의 공백을 채워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자료 22차조사의 직업력 자료를 이용하여 개인의 종사상지위를 생애 첫 일자리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배열하고 이러한 직업배열을 최적일치법(OM)을 통해 비교하여 자영업 경험자들의 노동이력의 경로를 탐색하고 유형별 비교를 시도한 연구이다.

배열분석 및 군집분석의 결과, 자영업 경험자의 노동이력은 8개의 유형으로 구분되었는데, 각각의 유형은 ① 상용직으로 일하다 다른 종사상지위로 전환되기도 하지만 대체로 오래 상용직을 지속하는 집단(유형1), ② 상용직에서 일정기간 지속 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고용주)로 전환되거나 고용주로 첫 일자리 시작 후 지속하는 집단(유형2), ③ 상용직 또는 임시일용직에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자영자)로 전환하거나 자영자로 시작하여 지속하는 집단(유형3), ④ 대체로 무급가족종사자를 오래

지속하는 집단(유형4), ⑤ 상용직이나 임시일용직으로 시작해서 다른 종사상지위나 실직 상태로 잦은 전환이 일어나는 집단(유형5), ⑥ 임시일용직을 오래 지속하는 집단(유형6), ⑦ 상용직을 오래 지속하다 퇴직하는 집단(유형7), ⑧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에서 비교적 이른 시기에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집단(유형8)으로 요약된다.

유형별 인적 특성과 소득을 비교한 결과,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고용주)의 지위를 오랜 기간 동안 지속하는 유형2가 학력과 소득이 가장 높은 집단으로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는 상용직을 오랜 기간 유지하는 집단인 유형1이 학력과 소득 모두에서 높은 수준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자영업 경험자의 생애 첫 일자리 시작부터 25년간의 노동이력을 살펴본 결과, 많이 알려진 바와 같이 임금근로자에서 조기 퇴직 후 자영업에 진출하는 개인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여러 종사상지위를 거쳐 자영업에 진출하거나, 자영업을 거쳐 다시 임금근로자나 무직 상태로 전환되는 경우도 관측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이 자영업을 오랜 기간 지속하는 경우보다 자영업에서의 경력을 축적하기 전에 다른 종사상지위로 옮겨가는 단기간 자영업 경험자들에게 더욱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큰 틀에서는 자영업으로의 안정적인 진입과 퇴출을 돕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정책이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자영업 집단 내 이질성을 고려한 개인 맞춤형 컨설팅과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의 정책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제 3 장

### 경력단절 여성의 자영업 진입

#### 제1절 연구 배경

노동시장 내 여성의 역할이 증대하고 있음에도, 결혼·출산·양육 등 생애주기 사건 전후 노동시장을 이탈함으로써 겪게 되는 경력단절은 한국 여성 고용의 주요 특징으로 남아 있다. 이에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정책적 지원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2008년에 제정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근거하여 2009년부터 여성새로일하기 센터가 전국적으로 설치되어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맞춤형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연계, 구인·구직관리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형태는 임금근로뿐 아니라 창업을 통한 자영업 진출로 다양화되고 있다.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2019년 현재 비취업 여성 중 향후 창업을 희망하는 비율은 19.7% (창업 12.0% + 프리랜서 7.7%), 2016년에는 21.3%, 2013년에는 20.3%로 나타났으며, 기혼일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창업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창업 분야로의 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창업 지원체계 구축방안 마련 등 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새일센터의 창업 상담사를 확대 배치(2019년 30명에서 2020년 40명)하여, 창업 지원금 및 창업 공간 등 연계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까지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과 관련된 연구들은 경력단절 상태를 벗어나 노동시장에 재진입하게 되는 개인적 요인들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춰왔다(김난주, 2016; 장정연 외, 2019; 김정원, 2021). 이들 연구에서 사용한 재취업 상태 일자리는 임금근로자로 국한(장정연 외, 2019)하거나, 재취업한 일자리의 종사상지위 구분 없이 재취업 상태만을 종속변수(김난주, 2016)로 분석하고 있어 재취업 형태의 다양성이 반영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특히, 경력단절 여성의 자영업으로의 진입에 초점을 둔 연구는 부재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력단절 여성의 노동시장 재취업 형태별 진입 패턴을 살펴보고, 자영업으로 진입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경력단절 여성의 경력단절 직전 일자리의 지위에 따라 자영업 진입의 결정요인의 영향이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하기 위해 경력단절 직전 일자리의 종사상지위별로 분석하고자 한다.

## 제2절 선행연구

### 1. 경력단절 여성 정의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은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즉, 연령과 혼인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하지만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경력단절 여성은 만 15-54세의 기혼여성 중 현재 비취업인 여성으로서, 결혼, 임신 및 출산, 육아, 자녀교육, 가족돌봄의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으로 한정하고 있다. 법적 정의와 달리 연령과 혼인 여부를 포함하여 정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까지 경력단절 여성의 연구에서 사용된 정의를 보면 주로 결혼, 출산, 자녀양육 및 가족돌봄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여 경력단절을 겪고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이다(민무숙 외, 2013; 장정연 외 2019; 정혜주 외 2019).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의 정의에 따라 결혼, 출산, 자녀양육 및 가족돌봄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경우와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지만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으로 보는 연구도 존재한다(전혜진·박재환, 2015; 김난주, 2016; 황선주 2017). 그 외에도 임은정·오상도(2018)은 여성의 생애사건으로 인한 경제활동 중단인 경우에 기존 경제활동 중단상태까지 포함한 경력단절 여성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경력단절 여성의 창업요인을 분석하였다. 정인구·양동우(2020)는 생애사적 사유로 퇴직한 여성과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퇴직을 경험한 여성 모두를 포함하여 경력단절 여성의 창업의지에 관해 연구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분석대상자는 현재 미취업자인 여성 중 직전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가 결혼, 출산 및 가족돌봄 등의 생애 사건인 여성으로 제한하고자 한다. 본 분석에 사용되는 생존분석은 자영업 진입이라는 주요 사건이 발생할 위험에 놓여 있는 기간을 측정하여 사건의 발생 여부를 분석한다. 법적 정의상 경제활동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지만 취업의사가 있는 경우도 경력단절 여성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경제활동 경험이 없는 여성의 경우 미취업에서 자영업 진입이라는 사건이 발생할 위험 기간에 대한 관측은 처음 미취업 상태가 된 시점에서 시작된다. 즉 최종교육이 종료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노동패널 조사 시작 전에 최종교육이 종료되어 미취업 상태에 있는 여성의 경우 최종학업 기간과 회고자료인 직업력 조사를 통해 과거 미취업 기간을 파악할 수 있으나, 해당 미취업 기간 동안의 취업의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결혼, 출산, 육아 및 가족돌봄의 가사문제로 일을 그만두어 현재 미취업 상태인 여성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 2.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요인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요인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여성들의 인적자본 요인, 가구특성 요인, 그리고 일자리 특성 요인의 영향을 주로 살펴보고 있다.

김난주(2016)는 2013년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25-59세 기혼여성으로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요인과 재취업 이후 고용유지 요인을 분석하였다. 콕스비례위험 모형을 이용한 재취업 결정요인 분석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경력단절 당시 일자리의 근속기간이 짧을수록, 경력단절 당시 일자리의 임금 수준이 높을수록, 단순노무직보다는 나머지 직종일수록, 제조업 및 도소매 숙박음식업 이외일수록, 민간부문에서 일하였을수록, 임금근로자였을수록 재취업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항로짓 모형을 이용한 재취업 유지 요인 분석 결과, 연령이 낮을수록, 무배우자일수록, 8세 이하 자녀가 없는 집단일수록, 재취업 목적이 생계책임일수록, 재취업까지 걸린 기간이 길수록, 재취업훈련을 받은 집단일수록 재취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재취업한 일자리의 특성 또한 재취업 유지에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재취업 일자리의 임금이 낮을수록, 근로시간이 짧을수록,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상용직 및 임시일용직의 임금근로자가 비임금근로자에 비해 재취업을 유지할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장정연 외(2019)는 2016년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경력단절 여성의 좋은 일자리로의 재취업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경력단절을 경험하고 임금근로자로 재취업된 505명을 분석대상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인적자본요인, 가계생산요인, 이중노동시장요인, 구직경로요인 등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취업 관련 자격증을 보유할수록, 배우자의 월평균 수입이 높을수록, 배우자가 자녀육아에 참여하지 않을수록, 이전 일자리의 근로형태가 상용직일수록, 이전 일자리를 통한 업무상 관계를 바탕으로 구직한 경우 좋은 일자리 재취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정원(2021)은 2020년 3월까지 수행된 연구 879편을 바탕으로 메타분석을 이용하여,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영향요인을 살펴보았다. 연령, 학력, 건강, 혼인상태, 거주지역, 가치관 등의 개인요인, 자녀, 배우자 배경, 가계 경제, 가구구조, 이전 취업 경험, 시장 환경 등의 상황요인, 배우

자의 지원, 정책제도 등의 지원요인, 교육훈련 및 네트워크 등의 전략요인으로 구분하여 이들 변수들의 평균 효과를 분석하였다. 상황요인의 평균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개인요인, 지원요인 그리고 전략요인의 순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배경, 이전 취업 경험, 그리고 학력의 영향력이 높게 확인되었다. 한편, 지원요인과 전략요인들의 세부 변수들의 영향력은 비교적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고졸 이하 학력의 30대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률이 높은 편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의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이 상황요인임을 시사한다.

### 3. 여성의 자영업 선택요인

경력단절 여성의 자영업으로의 재취업에 초점을 두고 결정요인을 분석한 연구는 미미하다. 주로 결혼, 출산 및 육아의 생애주기적 요인들이 여성들의 자영업 및 무급가족종사자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있다.

정진성·장지연(2001)은 다항로짓분석을 이용하여, 서울에 거주하는 20-60세 여성의 비임금근로자의 선택요인을 살펴보았다. 고졸 미만의 학력은 고학력에 비해 비임금근로자의 가능성을 높였고, 50대 이상의 연령은 젊은 여성보다 비임금근로자의 가능성이 높았다. 기혼인 경우와 자녀가 많을수록 임금근로자 대신 비임금근로자가 될 가능성이 크게 나타났다. 이변량프로빗 모형을 이용한 성지미(2002)는 20-55세 여성의 자영업 선택 결정요인을 살펴보았다. 비록 어린 자녀가 여성 취업에 있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영업 결정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배우자의 종사상지위가 자영업일 경우 여성의 자영업 선택에 긍정적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의 높은 소득이 여성 자영업 선택에 긍정적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여성가족 패널데이터 1-2차 자료를 이용한 김주영(2010)은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요인을 분석하였다. 배우자의 소득이 높을수록, 어린 자녀 수가 많을수록, 소유 주택의 가격이 높을수록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가능성이 낮았다. 하지만 결혼 기간이 길수록 재취업 가능성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최민정(2015)은 한국노동패널 15차(2012년) 자료를 바탕으로 프로

빗 모형을 사용하여 만 64세 이하 여성들의 자영업 선택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임금근로 대비 자영업을 선택하게 되는 요인으로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학령기 이하의 어린 자녀가 있을수록,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자영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게 나타났다. 조동훈(2013)은 자영업 결정요인이 한국과 미국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 분석하였다. 가족구조 효과와 근로자가 속한 산업의 구조의 효과에 초점을 둔 분석 결과를 보면, 여성의 경우 7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그리고 자녀 수가 많을수록, 남성일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배우자가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을수록 자영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과 관련하여서는 근로자가 속한 산업이 전기·운수통신, 도소매, 숙박 및 음식점, 금융·보험·임대, 그리고 기타서비스 분야인 경우 자영업 선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미취학 어린 자녀를 둔 여성들의 경우 근로시간과 근로시간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유연성으로 인해 자영업으로 진입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요인과 여성의 자영업 선택요인으로 확인되는 인적자본 특성, 노동시장 경력 그리고 가족요인의 영향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제3절 연구방법

### 1. 분석자료 및 방법론

본 분석은 한국노동패널 1차년도(1998년)에서 22차년도(2019년)까지 조사된 여성 중 결혼, 출산, 육아 및 가족돌봄 등의 가사 문제로 일을 그만두어 현재 미취업 상태인 55세 미만의 여성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경력단절 여성의 최대 연령을 54세로 제한한 것은 통계청의 경력단절 여성 규모 분석을 위한 연령 범주가 15-54세, 여성가족부의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실태조사의 연령 범주가 25-54세임을 고려하였다. 노동패널

조사의 직업력 조사는 그만둔 일자리에 대해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를 임금근로자인 경우 22가지, 비임금근로자인 경우 14가지로 자세하게 나열하고, 응답자가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김종숙 외, 2011: 72).

분석대상을 결혼이나 출산 혹은 육아 등 가족돌봄으로 인해 일자리를 그만둔 전형적 의미의 경력단절 경험자로 국한한다. 이에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 선택지 중 명시적으로 결혼, 출산, 육아, 가사 등을 선택한 경우만 분석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선택지의 항목은 조사기간 동안 변화되어 왔기에 항목 선택에 주의가 필요하다. 5차년도 조사 이전에는 “결혼, 출산, 육아 등 가사문제”라는 선택지를 두었다가 5차년부터 10차년도까지는 “결혼, 가족간병 등 가사문제”로 선택지를 바꾸고 출산, 육아의 이유는 “기타” 문항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이후 11차년도부터는 “출산, 육아를 위해서”를 별도의 선택지로 독립되며, “결혼, 가족간병 등 가사문제”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김종숙 외, 2011: 72). 이에 가족돌봄을 이유로 일자리를 그만둔 여성은 1-4차년도까지 13번 가족생애 사건 관련 이유로 임금 및 비임금 일자리를 그만둔 여성, 5-10차년도는 13번 결혼 및 가족간병 등 가사문제로 일을 그만둔 여성(기타에 출산과 육아가 들어간 경우가 포함되어 이 경우 제외함), 11-22차년도까지 13번 결혼, 가족간병 등 가사문제 또는 21번 출산, 육아를 위해서 그만두었다고 응답한 경우로 한정하였다.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1-22차년도까지 그만둔 이유가 9번 결혼, 육아, 가사 등 가사문제로 일치되어 있어, 9번을 그만둔 이유로 선택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 가족돌봄을 이유로 임금 및 비임금근로 일자리를 그만둔 55세 미만 여성 1,064명을 분석한다. 관측기간 동안 이들이 만들어낸 4,335개의 관측치(observation)를 분석단위로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가족돌봄을 이유로 경력단절에 있는 여성들이 자영업 진입이라는 사건을 경험할 확률과 사건 발생까지 걸리는 기간을 추정하고, 이러한 사건 발생 확률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콕스비례해저드 모형(Cox proportional hazards model)을 사용한다. 콕스해저드 모형은 사건사 분석 모형 중 사건발생 위험 기간과 사

건발생 시점이 상대적으로 명확한 시간 단위를 가진 연속시간 생존데이터인 경우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는 모형이다.

식 (3-1)은 콕스비례해저드 모형을 나타낸다. 좌편  $h_i(t)$ 는 시점  $t$ 에서 여성  $i$ 가 자영업 진입이라는 사건이 발생할 위험을 나타낸다. 식의 우편  $h_0(t)$ 는 시점  $t$ 에서 모든 공변의 값이 0일 때( $X_i = 0$ )일 때, 자영업 진입 발생에 대한 기준선 해저드 또는 기본적 위험을 나타낸다.  $X_i(t)$ 는 시점  $t$ 에서 여성  $i$ 에게서 관측되는 공변량벡터로 시변변수이거나 시불변 변수를 나타내며, 이에 대한 회귀계수는  $\beta$ 이다.

$$h_i(t) = h_0(t)\exp(\beta X_i(t)) \quad (3-1)$$

콕스 모형의 가장 큰 장점은  $h_0(t)$ 의 분포에 대해 가정을 하지 않는 유연성에 있다. 하지만 공변량의 영향인 회귀계수  $\beta$ 에 대한 분포를 가정해야 하므로 콕스 모형은 준모수적 모형이라고도 표현된다. 또 다른 장점은 회귀계수  $\beta$ 의 지수가 상대적 위험(relative risks) 또는 해저드비(hazard ratio)로 해석된다는 점이다.

한 여성이 경력단절 상태를 벗어나 취업 상태로 변환되어 가질 수 있는 일자리의 유형은 상용직, 임시 및 일용직의 임금근로와 자영업 및 무급가족종사자 등의 비임금근로가 있다. 이는 경력단절 상태에서 한 일자리 유형으로의 진입이 다른 일자리 형태로의 진입 발생위험을 제거하게 되는 경쟁리스크 문제를 야기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의 주 관심 사건인 자영업 진입 이외의 형태로 경력단절을 탈출한 경우는 우측절단(right censored)으로 처리한다. 즉, 경력단절 상태에서 자영업으로 진입한 경우에만 1, 그 외의 경우 0으로 처리한다. 본 연구에서는 경력단절 상태에서 자영업으로의 진입을 살펴보기 이전에 경력단절 이탈, 즉 재취업으로 이행한 경우 또한 살펴본다. 이 경우 주 관심 이행사건은 재취업한 경우 1로, 경력단절 상태가 유지되거나 관측이 중단된 절단(censoring)인 경우 0으로 처리한다.

## 2. 변수 측정

종속변수는 이항(binary) 변수로 경력단절이 시작된 시점 이후부터 관측이 종료되는 시점 동안 자영업으로 진입이 일어났는지를 측정하며, 자영업으로 진입이 되었으면 1로 일어나지 않았으면 0으로 나타낸다.

〈표 3-1〉 변수 정의

종속변수	경력단절 상태에서 자영업자로 진입한 경우
인적 특성	연령(20대,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학력(고졸 미만, 고졸, 전문대졸 이상, 4년제졸 이하, 석사 이상)
가구특성	15세 이상 가구원 수
	고등학생 이하 자녀 유무
	배우자의 종사상지위(배우자 없음, 배우자-취업, 배우자-비경활)
	자가 여부 (dummy)
	지난해 가구소득(logged household income)
노동시장 경력	임금근로자로서 주된 일자리들의 총근무경력(상용직)
	임금근로자로서 주된 일자리들의 총근무경력(종사상지위 상관없음)
	자영업자로서 주된 일자리들의 총근무경력
	처음 노동시장 진입 이후 가진 총일자리 수
	직전 일자리 소득(만원)
	직전 일자리 고용 형태(상용직, 임시/일용직, 자영업/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
통제변수	지역(서울, 광역시, 그 외)
	건강상태(보통 이하, 건강 또는 매우 건강)

자료: 저자 작성.

분석대상인 관측치에 대한 기술통계는 다음 표와 같다.

〈표 3-2〉 관측치(observations)의 기술통계

(단위: %)

구 분		비중	구 분		비중		
연령	20대	17.1	직전일자리 고용형태	상용직	61.7		
	30-34세	32.4		임시/일용직	21.1		
	35-39세	25.5					
	40-44세	13.9				자영업/고용주	11.5
	45-49세	6.8					
	50-54세	4.1					

〈표 3-2〉의 계속

구 분		비중	구 분		비중
학력	고졸	41.5	직전 일자리 소득(만원)		116.7
	전문대졸 이상	58.4	경력단절 이전까지 가진 총일자리 수		3.0
15세 이상 가구원 수		2.4명	임금근로자로서 총근무경력(상용직)		45개월
고등학생 이하 자녀 유무	없음	78.1	임금근로자로서 총근무경력 (중사상지위 상관없음)		52개월
	있음	21.8			
배우자 중사상지위	배우자없음	7.7	자영업자로서 총근무경력		10개월
	배우자-경제 활동상태	90.1	노동시장 총 경력 (임금근로자 총근무경력+자영업 경력)		62개월
	배우자-비경 제활동상태	2.0	지역	서울	18.5
				광역시	28.9
				그 외	52.4
자가여부	자가	54.4	건강상태	보통이하	29.0
가구소득(만원)		4,763		건강 또는 매우건강	71.0
전체 관측치 (Observations)			4,335		

주: 여부인 경우 더미변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기초통계량의 수치는 1로 코딩된 경우의 수치를 나타냄.

자료: 한국노동패널 1-22차(1998-2019).

## 제4절 분석 결과

### 1.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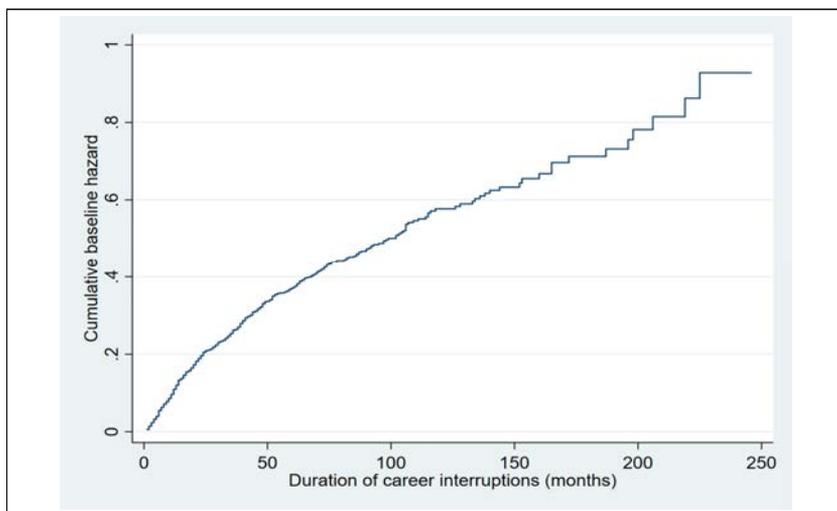
#### 가. 재취업 일자리 고용형태별 기준선 해저드

[그림 3-1]은 경력단절 상태 탈출률, 즉 재취업률을 보여주는 누적 기준선 해저드이다(경력단절 여성의 경력단절 상태 지속률을 보여주는 기

준선 생존함수는 appendix 참조). 누적 기준선 해저드 함수는 모든 독립 변수의 값이 0인 여성의 경력단절 기간 경과에 따른 누적 재취업률을 나타낸 것으로 재취업 또는 경력단절 상태 탈출 해저드의 패턴을 보여준다. 경력단절 기간 24개월 정도까지 재취업 해저드율이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이후부터 증가폭이 작아지고 있다. 즉, 경력단절 2년 정도까지 재취업 비율이 높아지다가, 그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력단절 상태에서 벗어날 확률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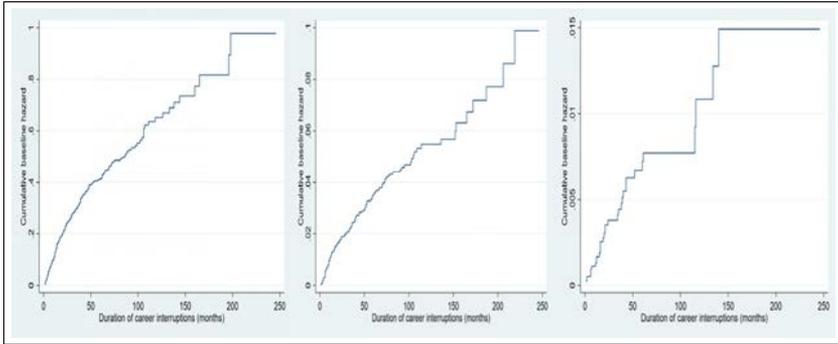
진입한 일자리의 고용 형태별 누적 기준선 해저드를 임금근로와 비임금근로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임금근로 중 상용직으로 진입할 해저드가 가장 높은 편이며, 다음으로 임시직, 그리고 일용직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력단절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경력단절을 벗어날 확률이 감소하는데 이는 상용직, 임시직, 그리고 일용직 모두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특히, 경력단절 이후 약 4년까지 일용직으로 진입할 해저드가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으며, 그 이후에 해저드율의 증가폭은 감소하였다.

(그림 3-1) 경력단절 탈출의 누적 기준선 해저드(Estimated baseline cumulative hazard)



자료 : 한국노동패널 1-22차 웨이브(1998-2019)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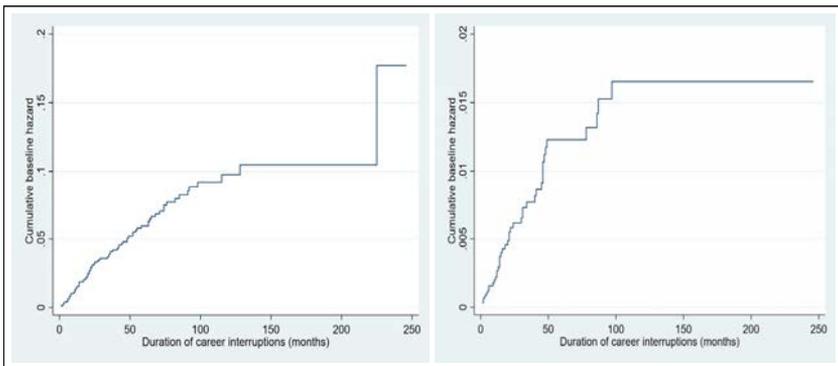
(그림 3-2) 임금근로 진입 누적 기준선 해저드 : 상용직(좌), 임시직(중), 일용직(우)



자료 : 한국노동패널 1-22차 웨이브(1998-2019) 자료.

비임금근로자로 재취업할 누적 기준선 해저드를 보면, 자영업으로 진입할 해저드가 무급가족종사자로 진입할 해저드보다 높다. 자영업과 무급가족종사자 해저드 모두 경력단절 기간이 증가할수록 진입할 가능성이 점차 줄어드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경력단절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해저드의 증가폭은 무급가족종사자가 자영업보다 높게 나타난다. 특히 경력단절 이후 약 4년 이후 무급가족종사자가 될 확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림 3-3) 비임금근로 진입 누적 기준선 해저드 : 자영업(좌), 무급가족종사자(우)



자료 : 한국노동패널 1-22차 웨이브(1998-2019) 자료.

## 나. 재취업 결정요인

경력단절 여성의 경력단절 이탈 또는 재취업 해저드의 분석 결과는 아래의 <표 3-3>과 같다. 모형 1은 인적 특성, 가족요인, 그리고 노동시장 경력 등 개인의 객관적인 특성을 고려한 모형이다.

인적 특성의 영향을 보면, 연령은 재취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교육 수준의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구체적으로 20대에 비해 35-39세의 재취업 해저드는 1.37배, 45-49세는 1.68배 높게 나타난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경력단절 이탈 해저드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재취업 가능성이 높아지는 30대 후반과 40대 후반의 연령은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 이상의 자녀를 둔 어머니의 연령대와 일치한다. 이는 학령기 아동을 둔 어머니의 재취업이 30대 중후반에서 시작되어 M자형 고용패턴을 보인다고 밝힌 연구를 뒷받침해준다(Bonneuil and Kim, 2017).

가족요인은 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경우, 그렇지 않은 경력단절 여성에 비해 재취업 해저드가 38%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5세 이상 가구원의 수가 1명 증가함에 따라 재취업 해저드는 17% 증가한다.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경력단절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가 여부와 배우자의 경제활동상태가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노동시장 경력은 재취업 해저드에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된다. 상용직 임금근로자로서 일한 경력 1년 증가는 경력단절 이탈 해저드를 1% 낮추는 것으로 나타난다. 경력단절 직전 일자리의 종사상지위는 재취업 해저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 직전 일자리가 안정성이 높은 임금근로자일수록 재취업의 가능성이 높다. 상용직에 비해 임시 및 일용직의 일자리를 가졌던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재취업 해저드는 20% 감소하며, 자영업자는 21%, 그리고 무급가족종사자였던 경우 34% 감소한다. 직전 일자리의 임금은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 않는다. 현재까지 가진 총일자리 수가 많을수록 재취업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일자리 수가 1개 증가하면 재취업 해저드는 9% 증가된다.

모형 2는 주관적 건강상태와 거주 지역을 추가적으로 고려한 모형이다. 주관적 건강상태와 지역 모두 재취업 해저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이들을 통제한 이후 상용직 임금 경력은 정(+)의 방향으로 영향력이 바뀌었다. 상용직 경력이 길수록 재취업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증가한다. 또한 연령 효과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표 3-3〉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결정요인 : 콕스비례해저드 모형 결과(Hazard Ratio)

	모형 1	모형 2
20대(reference)		
30-34세	1.22 (0.18)	1.28 (0.21)
35-39세	1.37** (0.22)	1.48** (0.27)
40-44세	1.25 (0.23)	1.36 (0.28)
45-49세	1.68** (0.35)	2.00** (0.46)
50-54세	1.27 (0.32)	1.58 (0.44)
고졸(reference)		
전문대졸 이상	0.92 (0.09)	0.97 (0.10)
고등학생 이하 자녀 유무	0.62** (0.09)	0.54** (0.08)
15세 이상 가구원 수	1.17** (0.06)	1.20** (0.07)
가구소득(logged)	0.81** (0.06)	0.81** (0.06)
자가 여부	1.01 (0.09)	1.02 (0.10)
배우자 없음(reference)		
배우자 있음-경제활동상태	0.98 (0.18)	0.95 (0.20)
배우자 있음-비경제활동상태	1.21 (0.36)	1.10 (0.38)

〈표 3-3〉의 계속

	모형 1	모형 2
상용직으로서 총경력	0.99** (0.00)	1.00* (0.00)
총임금근로 경력	1.00 (0.00)	1.00 (0.00)
총자영업 경력	1.00 (0.00)	1.00 (0.00)
상용직(reference)		
임시 및 일용직	0.80* (0.10)	0.81 (0.11)
자영업 및 고용주	0.79* (0.11)	0.76* (0.12)
무급가족종사자	0.66* (0.14)	0.72 (0.17)
직전 일자리 소득	1.00 (0.00)	1.00 (0.00)
총일자리 수	1.09** (0.03)	1.09** (0.03)
건강상태 보통 이하(reference)		
건강 또는 매우 건강		0.89 (0.09)
서울(reference)		
광역시		1.07 (0.16)
그 외		1.22 (0.17)
Log-likelihood	-3366.5295	-2801.2552
AIC	6773.059	5648.51
Observations	3,888	3,496

주: \* p<0.1, \*\* p<0.05, 괄호 안 표준오차.  
 자료: 한국노동패널 1-22차(1998-2019년도) 자료.

#### 다. 상용직 및 임시·일용직으로의 재취업 결정요인

경력단절 상태를 벗어나 상용직 및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로 재취업 할 해저드를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적 특성, 가구요인, 노동시장 경력 그리고 건강과 지역을 통제한 모형 2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연령은 상용직으로의 재취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임시·일용직으로의 재취업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비상용직으로의 진입 가능성이 증가하였는데, 특히 40대 후반의 경우 20대에 비해 비상용직 진입 해저드가 4배 이상 높으며, 그 이후 연령대인 50대 초반에는 다소 감소하지만 여전히 20대에 비해 비상용직이 될 가능성이 2배 이상 높다.

가족요인은 상용직과 비상용직 진입 해저드에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상용직으로 재취업할 해저드를 45% 감소시키며, 임시 또는 일용직으로 재취업할 해저드는 53% 감소시킨다. 즉 학업이 완료되지 않은 자녀의 존재는 경력단절 여성이 중사상지위에 상관없이 임금근로자로 재취업할 가능성을 줄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상용직으로 재취업할 가능성이 증가하며,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임시·일용직으로 재취업할 가능성이 낮아진다.

〈표 3-4〉 경력단절 여성의 상용직 및 비상용직으로의 재취업 결정요인 : 콕스비례 해저드 모형 결과(Hazard Ratio)

	상용직으로 재취업		임시·일용직으로 재취업	
	모형 1	모형 2	모형 1	모형 2
20대(reference)				
30-34세	1.06 (0.21)	0.99 (0.22)	1.28 (0.37)	1.33 (0.44)
34-39세	1.10 (0.25)	1.09 (0.27)	1.81* (0.55)	1.87* (0.64)
40-44세	1.19 (0.31)	1.15 (0.33)	1.76* (0.59)	1.82 (0.68)
45-49세	1.09 (0.36)	1.25 (0.44)	4.11** (1.42)	4.31** (1.68)
50-54세	1.17 (0.43)	1.42 (0.57)	2.91** (1.20)	2.89** (1.37)
고졸(reference)				
전문대졸 이상	1.07 (0.15)	1.11 (0.17)	0.82 (0.14)	0.88 (0.16)
고등학생 이하 자녀 유무	0.63** (0.13)	0.55** (0.12)	0.56** (0.14)	0.47** (0.12)

〈표 3-4〉의 계속

	상용직으로 재취업		임시·일용직으로 재취업	
	모형 1	모형 2	모형 1	모형 2
15세 이상 가구원 수	1.18** (0.09)	1.21** (0.11)	1.05 (0.10)	1.08 (0.11)
가구소득(logged)	0.84 (0.09)	0.87 (0.10)	0.79* (0.10)	0.79* (0.11)
자가 여부	0.85 (0.11)	0.80 (0.11)	1.10 (0.18)	1.10 (0.19)
배우자 없음(reference)				
배우자 있음-경제활동상태	0.79 (0.20)	0.81 (0.23)	1.17 (0.41)	1.08 (0.42)
배우자 있음-비경제활동상태	0.76 (0.38)	0.60 (0.38)	0.63 (0.42)	0.65 (0.44)
상용직으로서 총경력	1.00 (0.00)	1.00 (0.00)	0.99* (0.00)	0.99* (0.00)
총임금근로 경력	1.00 (0.00)	1.00 (0.00)	1.00 (0.00)	1.00 (0.00)
총자영업 경력	1.00 (0.00)	1.00 (0.00)	1.00 (0.00)	1.00 (0.00)
상용직(reference)				
임시 및 일용직	0.71* (0.14)	0.67* (0.14)	1.05 (0.22)	1.14 (0.26)
자영업 및 고용주	0.49** (0.13)	0.49** (0.14)	0.73 (0.19)	0.84 (0.23)
무급가족종사자	0.38** (0.15)	0.42** (0.18)	0.52 (0.22)	0.65 (0.29)
직전 일자리 소득	1.00 (0.00)	1.00 (0.00)	1.00 (0.00)	1.00 (0.00)
총일자리 수	1.12** (0.04)	1.11** (0.04)	1.09** (0.04)	1.08* (0.05)
건강상태 보통 이하(reference)				
건강 또는 매우 건강		0.97 (0.15)		1.20 (0.21)
서울(reference)				
광역시		1.12 (0.24)		1.07 (0.28)
그 외		1.05 (0.20)		1.29 (0.31)

〈표 3-4〉의 계속

	상용직으로 재취업		임시·일용직으로 재취업	
	모형 1	모형 2	모형 1	모형 2
Log-likelihood	-1567.2688	-1293.902	-1051.3201	-921.78338
AIC	3174.538	2633.804	2142.64	1889.567
Observations	3,888	3,496	3,888	3,496

주: \*  $p < 0.1$ , \*\*  $p < 0.05$ . 괄호 안은 표준오차.  
 자료: 한국노동패널 1-22차(1998-2019년도) 자료.

노동시장 경력 중 상용직으로서의 경력이 길수록 임시·일용직으로 재취업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단절 이전 축적한 상용직 경력은 경력단절 상태를 벗어나 비상용직으로 재취업할 위험을 낮추는 보호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경력단절 직전 가졌던 일자리가 상용직인 경우 임시·일용직인 경우에 비해 상용직으로 재취업할 해저드가 1.5배 정도 높고, 자영업자에 비해 2배, 무급가족종사자에 비해 2.4배 정도 높다. 현재까지 많은 일자리를 가졌을수록 상용직 및 비상용직으로의 재취업 가능성이 증가하여, 임금근로로 재취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경력단절 여성의 자영업 진입

### 가. 전체 경력단절 여성

〈표 3-5〉는 전체 경력단절 여성의 자영업 진입 해저드의 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개인의 인적 특성, 가족요인 그리고 노동시장 경력을 고려한 모형 1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경력단절 상태를 벗어날 가능성이 높았던 앞의 분석 결과와 달리, 연령별 자영업 진입 가능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교육 수준은 경력단절 여성의 자영업 진입 해저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고졸에 비해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 자영업 진입 해저드는 35% 감소한다. 즉, 고졸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전문대졸에 비해 자영업을 통해 경력단절 상태를

벗어날 가능성이 1.5배 높다. 이는 기존의 여성 자영업 결정요인 연구(성지미, 2002; 최민정, 2015)에서 확인된 학력이 높을수록 자영업보다는 임금근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경력단절 여성들의 자영업 진입에도 유사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가구요인으로는 15세 이상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자영업 진입의 가능성이 증가한다. 가구원 수 1명 증가는 자영업 진입 해저드를 32% 증가시킨다. 노동시장 경력 중 상용직으로서 경력이 증가할수록 자영업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줄어든다. 또한 직전 일자리의 종사상지위가 고용주나 자영업자였을 경우 상용직에 비해 자영업으로 진입하여 경력단절 상태를 벗어날 가능성이 1.9배 높게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상태와 거주지역을 추가로 통제한 모형 2의 결과는 연령이 유의미한 영향을 가지고 있음을 보인다. 20대에 비해 30대의 자영업 진입 해저드는 6배 증가한다. 하지만 40대 이후 중장년층 경력단절 여성들의 자영업 진입 해저드는 20대와 비교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자영업 진입 해저드가 줄어든다. 노동시장 경력 중 상용직 임금근로자로서 총근무경력이 길수록 자영업 진입 해저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건강하거나 매우 건강한 경우 보통 이하의 건강상태를 가진 경우에 비해 자영업 진입 해저드가 45% 감소한다. 즉, 주관적으로 건강할수록 자영업 진입을 통해 경력단절 상태를 벗어날 가능성이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3-5〉 전체 경력단절 여성의 자영업 진입 결정요인 : 콕스비례해저드 모형 결과 (Hazard ratio)

	모형 1	모형 2
20대(reference)		
30-34세	1.88 (0.80)	5.42** (4.05)
35-39세	1.95 (0.88)	5.71** (4.38)
40-44세	1.03 (0.56)	3.46 (2.88)

〈표 3-5〉의 계속

	모형 1	모형 2
45-49세	0.72 (0.52)	2.50 (2.42)
50-54세	0.30 (0.34)	1.21 (1.62)
고졸(reference)		
전문대졸 이상	0.65* (0.16)	0.56** (0.15)
고등학생 이하 자녀 유무	0.52 (0.22)	0.45 (0.23)
15세 이상 가구원 수	1.32* (0.20)	1.33 (0.23)
가구소득(logged)	1.05 (0.22)	1.17 (0.29)
자가 여부	1.10 (0.26)	1.36 (0.37)
배우자 없음(reference)		
배우자 있음-경제활동 상태	1.63 (1.19)	2.35 (2.61)
배우자 있음-비경제활동 상태	4.04 (3.43)	6.38 (7.88)
상용직으로서 총경력	0.99* (0.00)	0.99* (0.00)
노동시장 총경력	1.00 (0.00)	1.00 (0.00)
상용직(reference)		
임시 및 일용직	0.80 (0.27)	0.65 (0.25)
자영업 및 고용주	1.90** (0.59)	1.66 (0.57)
무급가족종사자	0.70 (0.38)	0.76 (0.43)
직전 일자리 소득	1.00 (0.00)	1.00 (0.00)
총일자리 수	1.05 (0.07)	1.05 (0.07)
건강상태 보통 이하(reference)		
건강 또는 매우 건강		0.55** (0.17)

〈표 3-5〉의 계속

	모형 1	모형 2
서울(reference)		
광역시		1.61 (0.77)
그 외		1.88 (0.84)
Log-likelihood	-481.7817	-382.47186
AIC	1001.563	808.9437
Observations	3,888	3,496

주: \*  $p < 0.1$ , \*\*  $p < 0.05$ . 괄호 안은 표준오차.  
 자료: 한국노동패널 1-22차(1998-2019년도) 자료.

#### 나. 임금근로 vs. 비임금근로 이후 경력단절을 겪은 여성의 자영업 진입

경력단절 직전 일자리를 임금근로와 비임금근로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모형 2의 결과를 보면, 경력단절 직전 일자리가 임금근로자였던 여성들의 인적 특성인 연령과 교육 수준이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지만, 비임금근로자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 않는다. 임금근로 이후 경력단절을 겪은 여성은 20대에 비해 30대 초반의 자영업 진입 해저드가 7배, 30대 후반의 경우 8배 증가한다. 하지만 40대 이후부터는 20대와 통계적으로 자영업 진입 해저드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임금근로 이후 경력단절을 겪은 여성 30대 여성에게서만 유의미하게 높다는 것은 자영업이 시장 재진입의 하나의 경로로 작용하는 기제는 임금근로 이후 특정 연령대의 여성에게 국한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교육 수준과 관련하여서,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에 비해 고졸의 학력의 임금근로를 직전 일자리로 가진 여성의 자영업 진입 해저드가 2.2배 높게 나타난다.

가구 특성의 영향을 보면, 15세 이상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비임금근로를 직전 일자리로 가진 경력단절 여성의 자영업 진입 해저드에 긍정적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구원 수 1명 증가는 비임금근로자였던 경력단절 여성의 자영업 진입을 통한 경력단절 상태 이탈 해저드를 2배 증가시킨다. 배우자의 종사상지위의 영향은 임금근로 경력단절 여성

의 자영업 진입에만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된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비해,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임금근로 이후 경력단절 여성의 자영업 진입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다. 배우자가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비해 임금근로 이후 경력단절 여성의 자영업 진입 해저드는 약 9배 증가(모형 2)하며, 배우자가 현재 비경제활동상태인 경우에도 약 6배(모형 1) 높다. 상용직 임금근로자로서의 경력이 길수록 임금근로 이후 경력단절을 겪은 여성의 자영업 진입 해저드를 유의미하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난다. 서울 및 광역시에 거주하는 것에 비해, 소도시에 거주하는 것이 비임금근로 경력단절 여성의 자영업 진입 해저드에 정(+)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소도시에 거주하는 비임금근로 경력단절 여성에게 자영업 진입이 경력단절 탈출의 경로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3-6〉 임금근로 및 비임금근로 이후 경력단절 여성의 자영업 진입 결정요인 :  
콕스비례해저드 모형 결과

	임금근로	임금근로	비임금	비임금
	모형1	모형2	모형1	모형2
20대(reference)				
30-34세	1.86 (0.91)	7.48* (7.72)	1.45 (1.21)	2.64 (2.96)
35-39세	2.09 (1.11)	8.63** (9.11)	1.22 (1.04)	2.00 (2.32)
40-44세	1.16 (0.78)	5.79 (6.63)	0.39 (0.41)	0.74 (1.01)
45-54세	0.69 (0.60)	5.20 (6.86)	0.19 (0.24)	0.41 (0.64)
고졸(reference)				
전문대졸 이상	0.52** (0.15)	0.46** (0.15)	1.02 (0.46)	0.79 (0.40)
고등학생 이하 자녀 유무	0.43 (0.23)	0.32 (0.22)	0.71 (0.61)	0.60 (0.60)
15세 이상 가구원 수	0.97 (0.21)	0.82 (0.25)	2.09** (0.53)	2.17** (0.64)
가구소득(logged)	1.38 (0.37)	1.37 (0.44)	0.82 (0.23)	0.79 (0.31)

〈표 3-6〉의 계속

	임금근로	임금근로	비임금	비임금
	모형1	모형2	모형1	모형2
자가 여부	1.22 (0.35)	1.63 (0.54)	0.96 (0.42)	0.95 (0.47)
배우자 없음(reference)				
배우자 있음-경제활동 상태	1.46 (1.24)	9.15e+08** (7.62e+08)	0.65 (0.85)	0.65 (0.89)
배우자 있음-비경제활동 상태	5.98* (5.89)	3.45e+09 (.)	0.98 (1.61)	1.54 (2.58)
상용직으로서 총경력	0.99* (0.00)	0.99** (0.00)	1.00 (0.01)	0.99 (0.01)
노동시장 총경력	1.00 (0.00)	1.00 (0.00)	1.01 (0.00)	1.01 (0.00)
상용직(reference)				
임시 및 일용직	0.62 (0.22)	0.53 (0.21)		
무급가족종사자			0.40 (0.23)	0.36 (0.25)
직전 일자리 소득	1.00 (0.00)	1.00 (0.00)	1.00 (0.00)	1.00 (0.00)
총일자리 수	1.04 (0.08)	1.05 (0.09)	1.05 (0.12)	1.03 (0.12)
건강상태 보통 이하(reference)				
건강 또는 매우 건강		0.53 (0.22)		0.72 (0.34)
서울(reference)				
광역시		0.92 (0.47)		8.25e+08 (.)
그 외		1.21 (0.56)		7.28e+08** (3.85e+08)
Log-likelihood	-305.14732	-236.17369	-118.26345	-91.660767
AIC	642.2946	508.3474	268.5269	219.3215
Observations	3,213	2,902	675	594

주: \* p<0.1, \*\* p<0.05. 괄호 안은 표준오차.  
자료: 한국노동패널 1-22차(1998-2019년도) 자료.

#### 다. 상용직 vs. 임시 및 일용직 임금근로 이후 경력단절을 겪은 여성의 자영업 진입

경력단절 직전 일자리가 임금근로인 여성들의 종사상지위를 상용직과 비상용직으로 구분하여 자영업 진입 해저드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상용직 이후 경력단절 여성의 자영업 진입에는 연령, 교육 수준 그리고 고등학생 이하 자녀 유무가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20대의 상용직 이후 경력단절 여성에 비해 30대의 자영업 진입 요인이 각각 6배 증가하며,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자영업 진입의 해저드는 감소한다(모형 2). 고등학생 이하 자녀의 존재가 자영업 진입 해저드에 부정적 영향요인으로 나타난다. 고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자영업 진입으로 경력단절 상태를 벗어날 가능성이 82% 감소한다. 해저드비의 역수를 취하면, 고등학생 이하 자녀가 없는 상용직 이후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자영업 진입 해저드는 약 5배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존 여성의 자영업 선택 연구에서 돌봄이 필요한 자녀의 존재는 자영업 선택의 주요 요인으로 확인되어 왔다(조동훈, 2013; 최민정, 2015). 하지만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자녀 및 가족 돌봄의 이유로 경력단절을 겪는 여성들에게 학령기 자녀의 존재는 자영업 진입을 통한 경력단절 상태 이탈보다 경력단절상태를 지속하게 하는 요인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상용직 이후 경력단절을 겪은 여성에게만 국한되는 것이다. 가구의 경제적 특성을 간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자가 여부는 상용직 이후 경력단절 여성의 자영업 진입 해저드에 정(+)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배우자가 없는 상용직 이후 경력단절 여성은 자영업을 통해 경력단절을 이탈할 가능성은 줄어들며, 기혼이며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렇지 못한 경우에 비해 자영업 진입 가능성이 줄어든다. 노동시장 경력 특성을 보면, 상용직 임금근로자로서의 노동경력이 길수록 자영업 진입을 통한 경력단절 이탈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줄어든다.

한편 임시직 및 일용직 근로자로 일했던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연령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상용직 이후 경력단절 여성과 달리, 40대 초반까지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영업 진입을 통해 경력단절 상태를 벗어날 가

능성이 증가한다. 가구요인은 임시직 및 일용직 근로자들의 자영업 진입 해저드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직전 일자리가 비상용직이었다더라도 높은 임금 수준을 가졌더라면 자영업을 통한 경력단절 이탈 가능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3-7〉 상용직 및 비상용직 임금근로 이후 경력단절 여성의 자영업 진입 결정요인 : 콕스비례해저드 모형 결과

	상용직 임금근로	상용직 임금근로	임시 및 일용직 임금근로	임시 및 일용직 임금근로
	모형1	모형2	모형1	모형2
20대(reference)				
30-34세	2.61 (1.57)	6.24* (6.50)	0.86 (0.78)	1.34e+09** (1.93e+09)
35-39세	2.88 (1.88)	6.67* (7.22)	0.78 (0.77)	1.14e+09** (1.57e+09)
40-44세	1.51 (1.27)	4.31 (5.31)	0.32 (0.41)	5.53e+08** (6.92e+08)
45-54세	0.48 (0.68)	1.46 (2.60)	0.46 (0.73)	1.45e+09 (.)
고졸(reference)				
전문대졸 이상	0.37** (0.13)	0.39** (0.15)	1.05 (0.64)	0.79 (0.53)
고등학생 이하 자녀 유무	0.18** (0.14)	0.29 (0.24)	0.98 (0.76)	0.35 (0.43)
15세 이상 가구원 수	0.96 (0.27)	0.91 (0.37)	1.06 (0.47)	0.98 (0.51)
가구소득(logged)	1.43 (0.44)	1.27 (0.46)	1.56 (0.80)	1.19 (0.75)
자가 여부	1.46 (0.51)	2.23* (0.94)	1.02 (0.56)	0.87 (0.53)
배우자 없음	0.13* (0.14)			0.25 (8.23e+07)
배우자 있음-경제활동상태	0.07** (0.05)	0.08** (0.07)	1.13e+16 (.)	8.28e+15 (8.23e+23)
상용직으로서 총경력	0.99 (0.00)	0.99* (0.01)	0.99 (0.01)	1.00 (0.01)

〈표 3-7〉의 계속

	상용직 임금근로	상용직 임금근로	임시 및 일용직 임금근로	임시 및 일용직 임금근로
	모형1	모형2	모형1	모형2
노동시장 총경력	1.00 (0.00)	1.00 (0.00)	1.00 (0.00)	1.00 (0.00)
직전 일자리 소득	1.00 (0.00)	1.00 (0.00)	0.99* (0.01)	0.99* (0.01)
총일자리 수	1.04 (0.10)	1.07 (0.11)	1.09 (0.17)	1.03 (0.19)
건강상태 보통이하(reference)				
건강 또는 매우 건강		0.72 (0.32)		0.19 (0.20)
서울(reference)				
광역시		0.96 (0.63)		0.91 (0.87)
그 외		1.57 (0.90)		0.68 (0.65)
Log-likelihood	-195.71097	-153.67074	-67.470467	-48.179703
AIC	421.4219	341.3415	160.9409	130.3594
Observations	2,377	2,153	836	749

주: \*  $p < 0.1$ , \*\*  $p < 0.05$ . 괄호 안은 표준오차.

자료: 한국노동패널 1-22차(1998-2019년도) 자료.

## 제5절 소 결

현재까지의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연구는 임금근로자로의 재취업 상태만을 분석하여, 자영업 진입을 포함한 재취업 형태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경력단절 여성의 노동시장 재취업 형태별 진입 패턴을 살펴보고, 자영업으로의 진입에 인적자본 특성, 가족요인 그리고 노동시장 경력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경력단절 직전 일자리 종사상지위별

자영업 진입의 특성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이후 경력단절 여성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패널 1-22차에 조사된 여성 중 결혼·출산·육아 및 가족돌봄 등의 이유로 일을 그만두어 현재 미취업 상태인 55세 미만인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콕스비레해저드 모형을 이용하여 경력단절 상태에서의 재취업 상태로의 진입과 자영업으로의 진입을 분석하였다.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결정요인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30대 후반에서 40대 연령대 여성의 재취업 가능성이 컸다. 이는 학령기 아동을 둔 어머니의 연령대로 기존 연구(Bonneuil and Kim, 2017)에서 여성 고용률의 M자 곡선이 30대 후반에 다시 증가하는 것과 일치하는 현상이다. 특히,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가능성이 낮게 나타나 가족돌봄을 이유로 경력단절을 겪고 있는 여성에게 있어 자녀돌봄이 재취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가구소득이 높은 경우 경력단절 탈출 가능성이 낮았다. 노동시장 경력의 영향을 보면, 직전 일자리가 상용직일수록, 현재까지 노동시장에서 가졌던 일자리 수가 많을수록 경력단절 상태를 벗어날 가능성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노동시장 이탈 이전 노동시장에서 다양한 일자리 경험뿐 아니라 안정적인 지위에서 일한 경험이 경력단절 상태 이탈에 긍정적 영향요인임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재취업 상태를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 연령은 임시·일용직으로의 재취업에만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전체 재취업 결정요인에서 확인되었던 고등학생 이하 자녀 존재의 부정적 영향은 상용직 및 임시·일용직으로의 재취업 모두에서 나타나 자녀돌봄의 책임이 임금근로자로의 재취업에 부정적 영향요인임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높은 가구소득은 임시·일용직으로 재취업할 가능성을 유의미하게 낮추지만, 상용직으로의 재취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가구의 경제적 여건이 좋을수록 경력단절 여성이 불안정한 일자리를 통해서라도 노동시장에 복귀해야 할 필요성이 줄어들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경력단절 이전 노동시장에서 축적한 경력 중 상용직 일자리의 경

력이 길수록 임시 및 일용직 재취업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낮고, 직전 일자리가 상용직이었던 경우에도 임시 및 일용직에 비해 상용직으로 재취업할 가능성이 1.5배, 자영업자에 비해 2배, 무급가족종사자에 비해 2.4배 높았다. 즉, 경력단절 이전 안정적인 종사상지위를 통해 축적한 경력은 경력단절 상태를 벗어나 재취업 시 안정적인 지위를 가지는 데 중요한 영향요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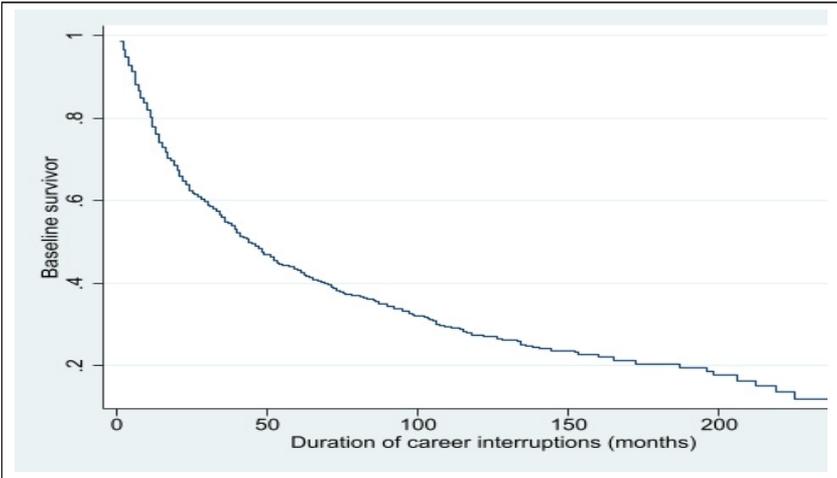
경력단절 여성의 자영업 진입 결정요인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체 여성의 자영업 진입 결정요인 결과는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자영업 진입 해저드는 감소하였다. 이는 기존의 여성 자영업 결정요인 연구(성지미, 2002; 최민정, 2015)에서 확인된 학력이 높을수록 자영업 보다는 임금근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경력단절 여성들의 자영업 진입에도 유사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경력단절 이전까지 노동시장에서 축적한 상용직 경력이 많을수록 자영업 진입 가능성이 줄어들었으며, 경력단절 이전 일자리가 자영업 및 고용주일수록 자영업 진입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또한 주관적으로 건강할수록 자영업 진입을 통해 경력단절 상태를 벗어날 가능성이 낮았다. 두 번째, 경력단절 직전 일자리를 임금근로와 비임금근로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높은 학력의 부정적 영향이 임금근로 경력단절 여성에게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임금근로 이후 경력단절 상태에 있는 30대 여성의 경우만 20대에 비해 자영업 진입 확률이 높게 나타나, 자영업이 노동시장 재진입을 위한 하나의 경로로 작용하는 기제는 임금근로 이후 특정 연령대의 여성에게 국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배우자의 존재 또한 임금근로 이후 경력단절 여성의 자영업 진입에만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배우자의 경제활동 여부에 상관없이 배우자의 존재는 자영업 진입 가능성을 높였다. 상용직 임금경력의 부정적 효과 또한 임금근로 이후 경력단절 여성에게만 확인되었다. 세 번째, 임금근로 이후 경력단절 여성을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여부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고등학생 이하 자녀 존재는 상용직 이후 경력단절 여성이 자영업 진입을 통해 경력단절 상태를 이탈할 가능성을 줄였다. 돌봄이 필요한 자녀의 존재가 여성의 자영업 선택의 주요 요인으로 알려졌지만(조동훈, 2013; 최민정, 2015), 상

용직 일자리를 가족 돌봄의 이유로 그만둔 경력단절 여성에게 학령기 자녀 존재는 자영업 진입을 통한 경력단절 탈출보다는 경력단절 상태를 지속하게 하는 요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앞의 임금근로 이후 경력단절 여성의 자영업 진입 분석에서 확인된 배우자 존재의 긍정적인 영향과 상용직 임금근로 경력의 부정적 영향은 상용직 일자리를 가졌던 경우에만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임시·일용직 이후 경력단절 상태에 있는 여성은 30-40대 초반까지 자영업을 통한 경력단절 이탈 가능성이 크고, 직전 일자리가 비상용직일지라도 임금 수준이 높았던 일자리였다면 자영업을 통한 경력단절 가능성이 줄어들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가족돌봄 등의 이유로 경력단절 상태에 있는 여성에게 학령기 자녀의 존재는 재취업 일자리의 종사상지위에 상관없이 재취업의 저해요인으로 확인될 뿐 아니라 상용직 일자리 이후 경력단절 상태에 있는 여성의 자영업 진입에도 부정적 영향요인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경력단절 이전 안정적 지위에서 축적한 노동시장 경력은 노동시장에의 재진입을 유리하게 하며, 임시·일용직 일자리로의 재취업과 자영업 진입의 가능성은 낮추는 역할을 하였다. 자영업 진입을 통한 경력단절 상태 이탈에 있어 여성 개인의 인적 특성, 가족요인 그리고 노동시장 경력이 미치는 영향은 경력단절 이전 일자리의 임금 및 비임금 여부, 그리고 종사상지위에 따라 상이했다. 이러한 결과는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서비스가 각 개인의 노동시장 경력을 바탕으로 특화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창업을 통한 재취업이 자영업 분야의 경력을 가진 경우에 선택되는 경력단절 탈출 경로라는 점에서 창업 지원서비스가 이전 자영업 경험을 세분화하여 상담 및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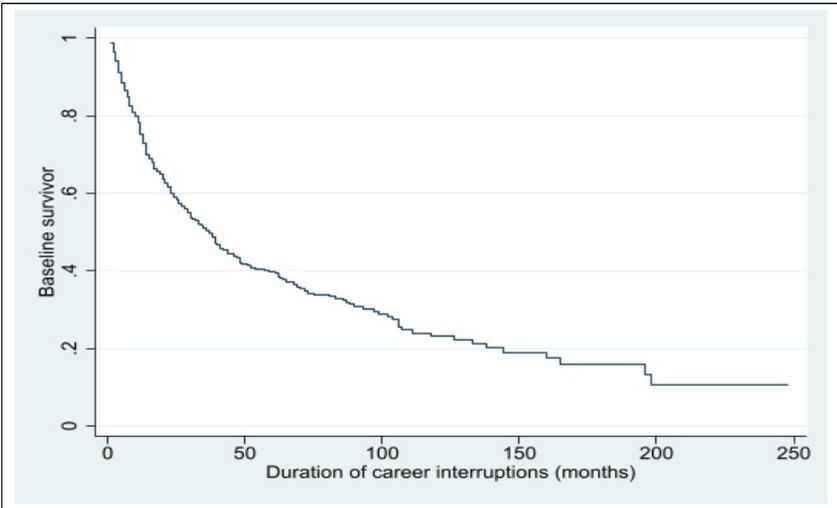
[부록]

(부도 3-1) 경력단절에서 재취업으로의 기준선 생존함수(Estimated baseline survivor fun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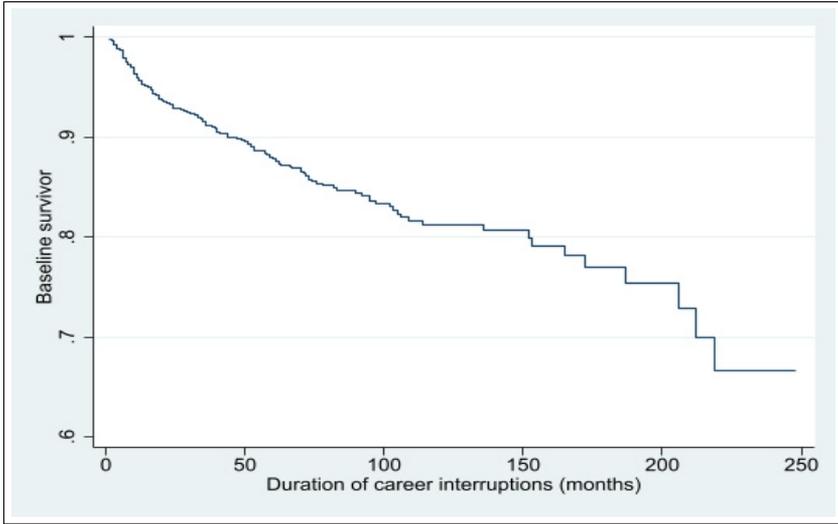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부도 3-2) 상용직으로의 진입 기준선 생존함수(Estimated baseline survivor fun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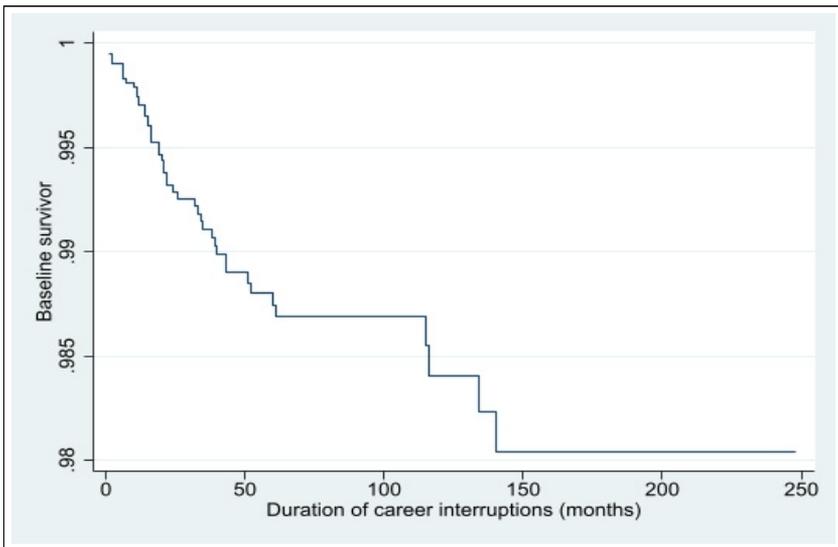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부도 3-3] 임시직으로의 진입 기준선 생존함수(Estimated baseline survivor fun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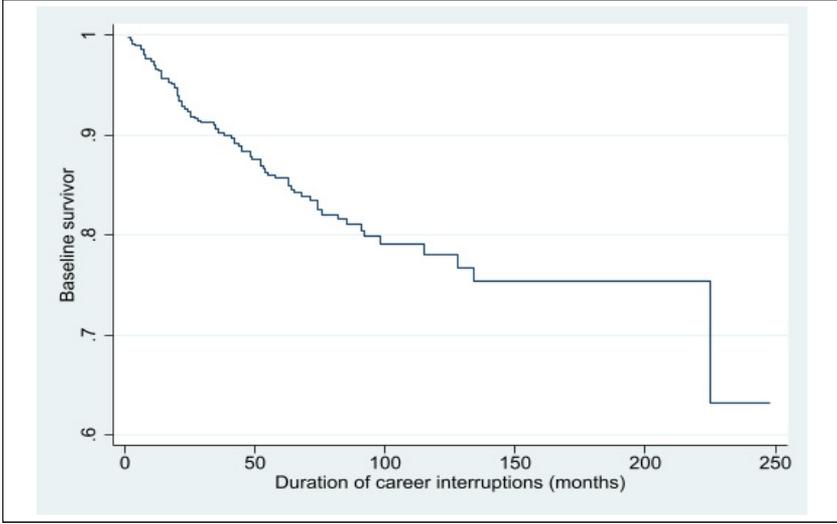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부도 3-4] 일용직으로의 진입 기준선 생존함수(Estimated baseline survivor fun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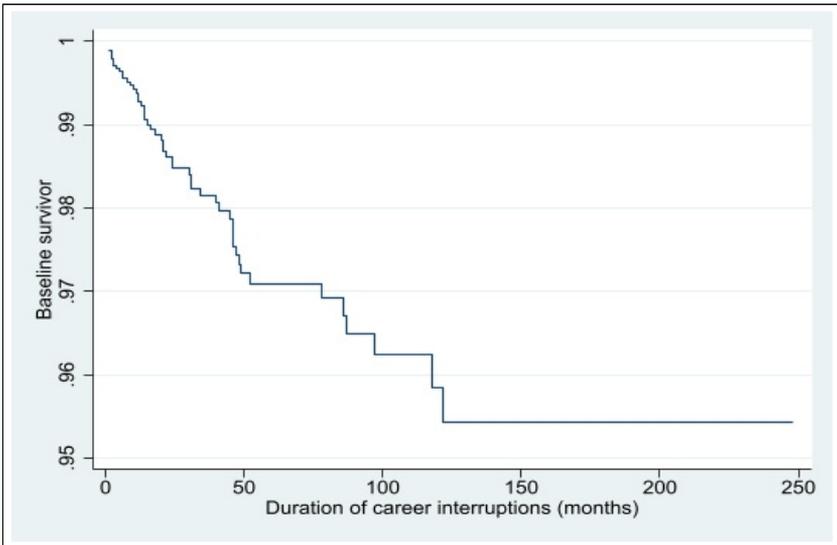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부도 3-5] 자영업으로의 진입 기준선 생존함수(Estimated baseline survivor function)



자료: 저자 작성.

[부도 3-6] 무급가족종사자로의 진입 기준선 생존함수(Estimated baseline survivor function)



자료: 저자 작성.

## 제 4 장

### 자영업자의 건강

#### 제1절 연구의 배경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OECD 회원국 중 최상위권에 속한다. 많은 선진국에서 자영업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인식되며, 이 국가들은 자영업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근거로 자영업을 장려하고 있다(김우영, 2009; Rietveld et al., 2015).

반면 우리나라에서의 높은 자영업 비율은 경제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편이라는 지적과 함께 경제적·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식되어 왔다. 이는 우리나라 자영업의 특성에 기인하는데, 선진국들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는 혁신적인 창업자라기보다는 실업의 대안으로서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고(정석영 외, 2020), 이들 중 대부분이 저부가가치 산업에 종사하는 생계형 영세자영업자로서 근로빈곤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오랜 기간 사회문제로 지적되어 온 만큼 우리나라의 자영업 관련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관련 연구의 대부분은 자영업 선택 혹은 자영업 비중의 결정 요인과 자영업 내부의 이질성에 관한 연구 등이 주를 이루고, 건강 측면에서 실증분석한 국내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자영업자들은 임금근로자에 비해 평균 근로일수, 장시간 근로일수가

더 많고, 경기변동에 민감하기 때문에 실업 등의 위험에 쉽게 노출될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기 때문에 질병, 재해 등에도 취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건강상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즉 종사상지위에 따라 건강 및 건강행동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종사상지위가 건강상태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를 추정하여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자료를 사용하여 종사상지위가 건강에 미친 인과적 효과를 처음으로 분석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 제2절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건강은 직업적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해외 선행연구들은 종종 자영업자들의 건강상태가 임금근로자에 비해 좋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며, 그에 대한 이유로 자영업자들이 더 높은 수준의 직무 통제력과 독립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Prattas and Thompson, 2006; Andersson, 2008; Rietveld et al., 2015). 반면 자영업자는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사업의 생존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고(Stephan and Roesler, 2010), 일의 강도가 높으며 장시간 근로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자영업자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와는 반대로 건강상태가 개인의 종사상지위를 결정하기도 한다. 즉, 건강상의 이유로 자영업 진퇴를 결정하기도 하며, 이는 역인과관계(선별효과)로 해석된다. 건강은 생산성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고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개인의 능력에 훨씬 더 의존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건강한 개인들이 자영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건강이 좋지 못한 사람들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생존을 위한 비자발적 자영업자가 될 수도 있고(van der Zwan et al., 2016), 건강이 악화된 근로자는 생산성이 떨어

지면서 해고되어 자영업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종사상지위와 건강 간의 관계는 인과적 효과와 선별효과가 동시에 작용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종사상지위가 건강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를 엄밀하게 분석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Andersson(2008)은 종사상지위에 따른 건강상태를 살펴보기 위해 스웨덴의 생활 수준 조사(Swedish Level-of-Living Survey) 자료를 사용하여 고정효과 로짓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간에 정신적인 건강상태, 주관적인 건강상태의 차이는 발견하지 못하였음을 밝혔다. Rietveld et al.(2015)은 미국 HRS 자료를 사용하여 합동 로짓 모형과 고정효과 로짓 모형으로 분석하였는데, 그들은 분석에 사용한 건강지표(객관적 건강상태, 주관적 건강상태, 정신건강) 모두에서 일반적으로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보다 더 건강하다는 것을 보였다. 그러나 이 효과는 건강한 개인이 자영업으로 진입하여 발생한 역인과관계에 의한 효과일 뿐,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위해 개인의 이질성을 통제한 고정효과 모형에서는 두 그룹 간의 건강상태에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밝혔다.

해외의 경우와 달리 생계형 자영업자의 특성을 갖는 우리나라의 경우, 자영업자의 건강상태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열악할 것으로 예상되나 종사상지위에 따른 건강상태를 실증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자체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산출한 자영업자의 결과와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바탕으로 산출한 일반국민의 결과를 비교하여 자영업자들의 상대적인 건강상태 및 의료이용 실태를 기초통계 수준에서 파악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이상영·신현웅, 2012). 이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자영업자의 건강상태나 의료이용이 일반국민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저자들은 이 결과를 자체 설문조사 표본추출 등 자료상의 문제와 선별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 제3절 자료 및 방법

### 1. 분석자료 및 대상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한국의료패널이다. 한국의료패널은 전국의 약 7,000가구와 그 가구원들을 대상으로 의료이용과 건강에 관련된 정보를 포괄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패널데이터로서, 인구학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및 주관적·객관적 건강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08년부터 2019년까지 공개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분석을 위한 주요 변수들이 모두 포함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만 30-64세 연령의 취업자이며, 건강상태의 변화가 종사상지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즉 역인과관계로 인한 내생성을 배제하여 종사상지위에 따른 고유한 건강상태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2년 이상 동일하게 종사상지위를 유지하거나, 종사상지위가 변경된 표본의 경우에는 변경 이전의 종사상지위가 2년 이상 동일하게 유지된 표본을 분석대상으로 한정하였다. 1차 산업 종사자 및 특수 직군인 군인, 임시직·일용직 등 일자리가 불규칙한 경우나 소득이 없는 무급가족종사자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는 자영업 종사자의 구성이 내부적으로 매우 이질적임을 감안하여(최강식 외, 2005) 자영업자 중 유급종업원을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를 “고용주”로, 유급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를 “자영자”로 구분하여 독립변수를 구성하였다.

### 2. 변수 및 기초통계

본 연구는 종속변수를 크게 “건강”와 “건강행동”으로 분류하고 총 6개의 종속변수를 구성하여 종사상지위에 따른 건강상태의 차이를 분석하였

다. 전반적인 건강을 확인하기 위한 변수로는 본인이 스스로 평가한 주관적 건강상태, 동년배와 비교했을 때의 건강상태와 객관적인 건강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응급실 방문 여부를 급성질환의 대리변수로 포함하였다.<sup>2)</sup> 건강행동 분석을 위해서는 격렬한 신체활동 일수, 과거 및 현재 흡연 여부, 과음 횟수를 포함하였다. 종속변수에 대한 정의와 설명은 <표 4-1>에 정리되어 있다.

주관적 건강상태와 동년배 비교 건강상태는 “매우 좋음”,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까지 5점의 리커트 척도로 구분된다. 응급실 방문 여부는 급성질환, 혹은 응급질환의 대리변수로서 개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의료이용 행태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외래 및 입원 의료서비스 이용에 비해 건강상태를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라 할 수 있다.

건강행동 변수인 격렬한 신체활동 일수는 지난 일주일을 기준으로 “전혀 하지 않음”부터 “매일”까지 8점 척도로 구분되며, 과거 및 현재 흡연 여부는 “현재 매일 피움”, “가끔 피움”,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 피우지 않음”, “피운 적 없음” 등 4점 척도이고, 과음 횟수는 지난 한 달을 기준으로 “전혀 없음”에서 “거의 매일”까지 7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관심변수는 종사상지위로서 임금근로자, 고용주, 자영업자로 구분하여 임금근로자에 비해 자영업자의 건강상태가 어떠한지 확인하며 자영업자 내에서도 고용주, 혹은 자영업자의 건강상태가 이질적인지 살펴볼 것이다.

통제변수로는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별, 연령, 연령 제곱, 학력, 가구원 수 대비 소득 분위(5분위), 혼인 여부 등 인구·사회경제적 특성과 산업, 직종 등의 직업변수, 그리고 연도별 고정효과를 통제하기 위하여 연도 더미를 포함하였다<sup>3)</sup>.

2) 객관적인 건강지표로서 만성·중증 질환의 이환 여부를 분석에 포함하고자 하였으나, 자료상의 한계로 인해 해당 질환의 발병 시기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 제외하였다.

3) 산업은 제조업, 건설업, 생산자서비스(사업+금융+보험+부동산+임대업), 유통서비스(도소매+운송+통신업), 개인서비스(숙박음식+오락문화+가사+기타개인서비스업), 사회서비스(공공+보건복지+교육+기타사회서비스업) 등 7개로 재분류하였으며, 직종

〈표 4-1〉 종속변수

종속변수명	설문내용 및 설명	응답항목
주관적 건강상태 (N=19,682)	귀하께서는 현재 본인의 건강상태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좋음 (2) 좋음 (3) 보통 (4) 나쁨 (5) 매우 나쁨
동년배 비교 건강상태 (N=15,426)	귀하께서는 동년배 분과 비교하여 현재 본인의 건강상태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좋음 (2) 좋음 (3) 보통 (4) 나쁨 (5) 매우 나쁨
응급실 방문 여부 (N=21,417)	지난 조사 이후, 응급실을 이용하신 적이 있습니까?	(1) 예 (0) 아니오
격렬한 신체활동 일수 (N=20,961)	지난 일주일 동안 평소보다 숨이 많이 가쁘고 심장박동이 많이 증가하는 격렬한 신체활동을 10분 이상 한 날은 며칠입니까?	(1) 전혀 하지 않음 (2) 1일 (3) 2일 (4) 3일 (5) 4일 (6) 5일 (7) 6일 (8) 7일(매일)
과거 및 현재 흡연 여부 (N=20,961)	현재 담배를 피우고 계십니까?	(1) 현재 매일 피움 (2) 가끔 피움 (3)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 피우지 않음 (4) 피운 적 없음
과음 횟수 (N=17,695)	최근 한 달간 한 번의 술좌석에서 아래 항목 이상을 마신 횟수는 얼마나 되십니까?  남성: 소주 7잔(맥주 5캔) 이상 여성: 소주 6잔(맥주 4캔) 이상	(1) 전혀 없음 (2) 월 1회 미만 (3) 월 1회 (4) 월 2-3회 (5) 주 1회 (6) 주 2-3회 (7) 거의 매일

자료: 한국의료패널 4-12차.

은 관리자+전문가+준전문가, 사무직, 서비스+판매 근로자, 기능원+조립원, 단순노무직 등 5개로 재분류하였다.

<표 4-2>에는 분석에 포함된 변수의 기초통계량이 제시되어 있으며, <표 4-3>은 종사상지위별로 나누어 기초통계량을 보고한다.

<표 4-2> 기초통계량

		N	Mean	SD
건강	주관적 건강상태	19,682	2.493	0.718
	동년배 비교 건강상태	15,426	2.531	0.698
	응급실 방문 여부	21,417	0.066	0.248
건강 행동	격렬한 신체활동 일수	20,961	1.027	1.802
	과거 및 현재 흡연 여부	20,961	2.779	1.284
	과음 횟수	17,695	2.985	2.061
종사상지위	임금근로자	21,417	0.693	0.461
	고용주	21,417	0.098	0.297
	자영자	21,417	0.209	0.407
성별	남성	21,417	0.735	0.441
	여성	21,417	0.265	0.441
연령		21,417	45.523	8.538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21,417	0.078	0.267
	고등학교	21,417	0.347	0.476
	대학 재학 이상	21,417	0.575	0.494
가구원수 대비 가구소득	1분위	21,409	0.039	0.194
	2분위	21,409	0.117	0.322
	3분위	21,409	0.189	0.392
	4분위	21,409	0.269	0.444
	5분위	21,409	0.385	0.487
혼인 여부	미혼	21,417	0.153	0.360
	기혼	21,417	0.847	0.360
산업 분류	제조업	21,349	0.268	0.443
	건설업	21,349	0.070	0.255
	생산자서비스업	21,349	0.106	0.307
	유통서비스업	21,349	0.214	0.410
	개인서비스업	21,349	0.121	0.326
	사회서비스업	21,349	0.222	0.415
직종 분류	관리자+전문가+준전문가	21,417	0.346	0.476
	사무직	21,417	0.150	0.357
	서비스+판매 근로자	21,417	0.188	0.391
	기능원+조립원	21,417	0.261	0.439
	단순노무직	21,417	0.054	0.226

〈표 4-2〉의 계속

		N	Mean	SD
연도 더미	2010년	21,417	0.092	0.289
	2011년	21,417	0.129	0.336
	2012년	21,417	0.126	0.332
	2013년	21,417	0.119	0.324
	2014년	21,417	0.113	0.316
	2015년	21,417	0.135	0.341
	2016년	21,417	0.138	0.345
	2017년	21,417	0.149	0.356

자료: 한국의료패널 4-12차.

〈표 4-3〉 종사상지위별 기초통계

		임금근로자 (N=14,840)		고용주 (N=2,095)		영세자영업자 (N=4,482)	
		Mean	SD	Mean	SD	Mean	SD
건강	주관적 건강상태	2.461	0.708	2.506	0.700	2.592	0.745
	동년배 비교 건강상태	2.502	0.688	2.534	0.706	2.611	0.717
	응급실 방문 여부	0.062	0.241	0.074	0.261	0.075	0.263
건강 행동	격렬한 신체활동 일수	1.019	1.767	1.075	1.903	1.030	1.867
	과거 및 현재 흡연 여부	2.803	1.284	2.578	1.288	2.794	1.274
	과음 횟수	2.969	2.015	3.271	2.172	2.896	2.152
성별	남성	0.741	0.438	0.799	0.401	0.689	0.463
	여성	0.259	0.438	0.201	0.401	0.311	0.463
연령		43.934	8.208	47.328	7.658	49.940	8.273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0.047	0.211	0.063	0.244	0.186	0.389
	고등학교	0.309	0.462	0.356	0.479	0.469	0.499
	대학 재학 이상	0.644	0.479	0.581	0.494	0.344	0.475
가구원수 대비 가구소득	1분위	0.029	0.169	0.028	0.165	0.077	0.266
	2분위	0.098	0.297	0.124	0.329	0.178	0.382
	3분위	0.181	0.385	0.180	0.385	0.221	0.415
	4분위	0.274	0.446	0.262	0.440	0.256	0.436
	5분위	0.417	0.493	0.406	0.491	0.268	0.443
혼인 여부	미혼	0.166	0.372	0.098	0.298	0.133	0.339
	기혼	0.834	0.372	0.902	0.298	0.867	0.339

〈표 4-3〉의 계속

		임금근로자 (N=14,840)		고용주 (N=2,095)		영세자영업자 (N=4,482)	
		Mean	SD	Mean	SD	Mean	SD
산업 분류	제조업	0.340	0.474	0.186	0.389	0.068	0.252
	건설업	0.067	0.251	0.088	0.283	0.070	0.256
	생산자서비스업	0.119	0.323	0.095	0.293	0.067	0.251
	유통서비스업	0.132	0.339	0.284	0.451	0.451	0.498
	개인서비스업	0.061	0.238	0.246	0.431	0.262	0.440
	사회서비스업	0.281	0.450	0.102	0.303	0.081	0.274
직종 분류	관리자+전문가+준전문가	0.396	0.489	0.352	0.478	0.179	0.383
	사무직	0.206	0.405	0.038	0.192	0.015	0.123
	서비스+판매 근로자	0.099	0.299	0.356	0.479	0.406	0.491
	기능원+조립원	0.239	0.426	0.233	0.423	0.349	0.477
	단순노무직	0.059	0.236	0.021	0.142	0.052	0.221
연도 더미	2010년	0.133	0.340	0.000	0.000	0.000	0.000
	2011년	0.121	0.326	0.153	0.360	0.147	0.354
	2012년	0.116	0.321	0.145	0.352	0.149	0.356
	2013년	0.110	0.313	0.145	0.352	0.138	0.345
	2014년	0.105	0.307	0.133	0.339	0.127	0.333
	2015년	0.129	0.335	0.145	0.352	0.149	0.356
	2016년	0.134	0.341	0.142	0.349	0.148	0.355
	2017년	0.152	0.359	0.138	0.345	0.143	0.350

자료: 한국의료패널 4-12차.

분석에 사용된 전체 표본의 수는 21,417개이며, 그중 임금근로자가 14,840개로 약 69.3%를 차지했으며, 고용주 및 자영자가 각각 9.8%(2,095개), 20.9%(4,482개)였다.

5점 척도인 주관적 건강상태는 전체 평균이 2.493이며 임금근로자(2.461)가 고용주(2.506)나 자영자(2.592)보다 낮아 임금근로자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자영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년 배와 비교한 건강상태나 응급실 방문 여부 등 모든 지표에서 임금근로자가 자영업자보다 건강한 것으로 확인된다.

건강행동 변수 중 질병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알려진 흡연과 음주 중 흡연은 임금근로자에 비해 자영업자 그룹에서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과음 횟수는 고용주가 가장 높고, 임금근로자, 자영자 순으

로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 간 두드러진 차이는 없었다. 반대로 건강을 개선하는 요인으로 알려진 격렬한 신체활동 일수는 자영업자 그룹에서 더 높았다.

전체 취업자 중 남성과 여성 비율은 각각 73.5%, 26.5%이며, 상대적으로 자영업자의 여성 비율이 약 31.1%로 가장 높았고 고용주의 비율이 20.1%로 가장 낮아 자영업자 내부의 이질성을 보여주었다. 임금근로자의 평균연령은 43.9세로 세 그룹 중 가장 낮았고 대학 재학 이상의 비중은 64.4%로 학력 수준이 가장 높은 반면에 자영업자의 평균연령은 49.9세, 대학 재학 이상 비율은 34.4%로 상대적으로 고연령·저학력 경향을 보였다.

가구원수 대비 가구소득은 종사상지위에 관계없이 소득분위가 증가할수록 비중이 높았으며, 산업 및 직종별로 파악했을 때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유통서비스 및 개인서비스 산업에 주로 종사하며 서비스, 판매 근로자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 3.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우선 임금근로자들과 자영업자들의 건강상태를 비교하기 위해 종속변수가 이항 변수(binary variable)인 경우 합동 로짓 모형(Pooled logit model), 순서화된 이산 변수(categorical data)인 경우 합동 순서형 로짓 모형(Pooled ordered logit model)을 사용하여 분석한다. 이는 인과적 효과와 선별효과가 모두 작용한 결과를 보여주며, 두 그룹 간의 전반적인 건강상태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개인의 시간 불변 특성에서 비롯된 잠재적인 내생성을 통제하여 선별효과를 최대한 배제한 상태에서 종사상지위가 건강상태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Andersson(2008), Rietveld et al. (2015) 등 기존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인 고정효과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종속변수가 이항 변수인 경우 고정효과 로짓 모형(Fixed effect logit model)을, 순서화된 이산 변수인 경우 고정효과 순서형 로짓 모형(Fixed effect ordered logit model)을 이용하며, 분석에 사용한 회귀방정

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y_{it}^* = \alpha + \beta s_{it} + X_{it}\gamma + T_t\delta + u_i + \epsilon_{it} \quad (4-1)$$

본 연구의 관심 변수로서  $s_{it}$ 는 개인  $i$ 의  $t$ 년도 종사상지위,  $X_{it}$ 는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변수, 사회·경제적 변수 및 직업 특성 변수들의 벡터,  $T_t$ 는 연도 더미변수의 벡터,  $u_i$ 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time-invariant) 관측 불가능한 개인 고정효과이며, 오차항  $\epsilon_{it}$ 는 로지스틱(logistic)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종속변수인  $y_{it}^*$ 는 관찰되지 않는 잠재변수(latent variable)이며, 관찰 가능한 변수인 건강은 1과 0, 두 개의 값을 갖는 이항 변수이거나 순서가 의미를 지니는 범주형 변수이다. 고정효과 로짓 모형에서의 관찰가능한 이항 종속변수는 식 (4-2)와 같고, 고정효과 순서형 로짓 모형에서의 관찰가능한 범주형 종속변수는 식 (4-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식 (4-3)의  $\delta_1$ 에서  $\delta_{j-1}$ 는 절사점(cutoff point)이며, 고정효과 순서형 로짓 모형은 Baetschmann et al.(2015)이 제안한 Blowup and Cluster (BUC) 추정량을 이용하였다.

$$y_{it} = \begin{cases} 1 & \text{if } y^* > 0 \\ 0 & \text{if } otherwise \end{cases} \quad (4-2)$$

$$y_{it} = \begin{cases} 1 & \text{if } y_{it}^* \leq \delta_1 \\ 2 & \text{if } \delta_1 < y_{it}^* \leq \delta_2 \\ 3 & \text{if } \delta_2 < y_{it}^* \leq \delta_3 \\ \vdots & \\ J & \text{if } \delta_{j-1} < y_{it}^* \end{cases} \quad (4-3)$$

## 제4절 분석 결과

본 연구는 주요 관심변수인 종사상지위(모형 (1), (4))에 성별, 연령, 연령의 제곱, 학력, 가구원 수 대비 소득분위, 혼인 여부 등의 인구·사회경제적 특성(모형 (2), (5)), 산업 더미, 직업 더미 등의 직업적 특성(모형 (3), (6))을 순차적으로 통제하여 결과를 확인하였다<sup>4)</sup>.

<표 4-4>, <표 4-5>는 각각 주관적 건강상태와 동년배와 비교한 주관적 건강상태를 종속변수로 하여 종사상지위와 건강 간의 관계를 순서형 로짓 모형과 고정효과 순서형 로짓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고한다.

순서형 로짓 모형으로 종사상지위와 주관적 건강상태 간의 관계를 확인한 결과(<표 4-4>의 모형 (1)-(3)),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자영업자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임금근로자에 비해 나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용주의 경우 건강상태가 나쁘긴 하나 모든 변수를 통제했을 때 통계적 유의성이 사라졌다. 그 밖에 남성은 본인의 건강상태를 여성에 비해 더 좋다고 평가하였으며, 중학교 이하의 학력보다는 그 이상의 학력 수준에서 주관적 건강상태가 더 높았고,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더 양호한 것으로 확인된다.

선별효과를 최대한 배제하기 위하여 고정효과 순서형 로짓 모형으로 추정된 결과(<표 4-4>의 모형 (4)-(6))는 앞서 분석한 순서형 로짓 모형으로 추정된 결과보다 종사상지위 간 건강 격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임금근로자의 비해 자영업자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더 나빴고, 자영업자의 건강상태가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구·사회경제적 특성, 직업 특성 등의 통제 여부가 추정치의 크기나 유의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합동 모형과 고정효과 모형의 결과를 비교했을 때, 종사상지위와 건강과의 관계가 역인과관계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 미국의 사례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선별효과보다는 자영업

4) 고정효과 순서형 로짓 모형에서 인구·사회경제적 특성 중 학력은 시간에 따라 변화가 거의 없고, 연령은 연도 더미와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있으므로 제외하였다.

자체의 특성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동년배와 비교하여 평가한 주관적 건강상태(<표 4-5>) 역시 앞선 결과와 유사했다. 합동 순서형 로짓 모형에서는 모든 변수를 통제했을 때 고용주의 건강상태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나쁘긴 하지만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고, 자영자의 주관적 건강상태만이 임금근로자에 비해 나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고정효과 순서형 로짓 모형의 결과는 추정치의 크기가 상이하긴 하지만 종업원 유무에 관계없이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간 주관적 건강상태에 차이가 존재하고, 특히 자영자의 건강이 가장 열악함을 보여준다.

객관적인 건강상태를 살펴보기 위해 응급실 방문 여부를 종속변수로 분석한 결과(<표 4-6>) 역시 자영업자의 건강상태가 임금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나쁘다는 것을 보여준다. 로짓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는 모든 변수를 통제했을 때 자영자의 건강상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개인의 고정효과를 통제한 모형에서는 자영자와 고용주 모두 임금근로자에 비해 응급실 방문을 더 많이 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4-7>, <표 4-8>, <표 4-9>는 각각 격렬한 신체활동 일수, 과거 및 현재 흡연 여부, 과음 횟수 등을 종속변수로 하여 종사상지위와 건강행동 간의 관계를 추정한 결과이다.

고정효과 모형으로 추정하였을 때에는 종사상지위와 건강행동 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합동 모형으로 추정했을 때, 고용주의 경우에는 흡연을 더 하거나 과음 횟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건강행동 패턴을 보이지만 개인별 고정효과를 통제한 모형에서는 건강행동의 격차를 확인할 수 없었다.

〈표 4-4〉 주관적 건강상태

	합동 순서형 로짓 모형			고정효과 순서형 로짓 모형		
	(1)	(2)	(3)	(4)	(5)	(6)
임금근로자						
고용주	0.105* (0.058)	0.048 (0.058)	0.060 (0.061)	0.239** (0.122)	0.242** (0.122)	0.229* (0.123)
자영업자	0.334*** (0.048)	0.100** (0.049)	0.115** (0.053)	0.330*** (0.124)	0.337*** (0.125)	0.312** (0.127)
남성		-0.210*** (0.042)	-0.254*** (0.047)			
연령		0.010 (0.023)	0.014 (0.023)			
연령 제곱		0.000 (0.000)	0.000 (0.000)			
중학교						
고등학교		-0.491*** (0.085)	-0.481*** (0.086)			
대학 이상		-0.565*** (0.088)	-0.507*** (0.093)			
소득 1분위						
소득 2분위		-0.207** (0.094)	-0.217** (0.094)		-0.058 (0.124)	-0.080 (0.124)
소득 3분위		-0.384*** (0.093)	-0.398*** (0.093)		-0.098 (0.130)	-0.127 (0.131)
소득 4분위		-0.420*** (0.094)	-0.423*** (0.094)		-0.046 (0.138)	-0.064 (0.139)
소득 5분위		-0.503*** (0.095)	-0.506*** (0.095)		-0.098 (0.146)	-0.122 (0.147)
기혼		-0.023 (0.061)	-0.017 (0.061)		-0.387** (0.195)	-0.389** (0.194)
관측치 수 (패널 수)	19,682	19,676	19,615	15,353 (3,268)	15,345 (3,266)	15,290 (3,257)
직업 변수	No	No	Yes	No	No	Yes
연도 더미	Yes	Yes	Yes	Yes	Yes	Yes

주: 1) \*\*\* p<0.01, \*\* p<0.05, \* p<0.1

2) 괄호 안은 군집강건표준오차(clustered robust standard error)

자료: 한국의료패널 4-12차.

〈표 4-5〉 동년배 비교 건강상태

	합동 순서형 로짓 모형			고정효과 순서형 로짓 모형		
	(1)	(2)	(3)	(4)	(5)	(6)
임금근로자						
고용주	0.065 (0.064)	0.015 (0.065)	0.037 (0.067)	0.296** (0.143)	0.298** (0.144)	0.284** (0.145)
자영자	0.276*** (0.050)	0.080 (0.052)	0.098* (0.057)	0.358** (0.146)	0.361** (0.147)	0.323** (0.149)
남성		-0.108** (0.046)	-0.133*** (0.051)			
연령		0.028 (0.025)	0.032 (0.025)			
연령 제곱		-0.000 (0.000)	-0.000 (0.000)			
중학교						
고등학교		-0.533*** (0.098)	-0.532*** (0.099)			
대학 이상		-0.622*** (0.101)	-0.592*** (0.107)			
소득 1분위						
소득 2분위		-0.310*** (0.113)	-0.326*** (0.113)		0.070 (0.156)	0.036 (0.158)
소득 3분위		-0.495*** (0.110)	-0.513*** (0.110)		0.022 (0.163)	0.003 (0.165)
소득 4분위		-0.530*** (0.109)	-0.539*** (0.110)		0.017 (0.172)	0.016 (0.174)
소득 5분위		-0.623*** (0.110)	-0.630*** (0.110)		0.060 (0.181)	0.052 (0.182)
기혼		-0.004 (0.065)	0.002 (0.066)		-0.079 (0.225)	-0.084 (0.225)
관측치 수 (패널 수)	15,426	15,422	15,370	11,276 (2,754)	11,272 (2,754)	11,224 (2,744)
직업 변수	No	No	Yes	No	No	Yes
연도 더미	Yes	Yes	Yes	Yes	Yes	Yes

주: 1) \*\*\* p<0.01, \*\* p<0.05, \* p<0.1

2) 괄호 안은 군집강건표준오차(clustered robust standard error)

자료: 한국의료패널 4-12차.

〈표 4-6〉 응급실 방문 여부

	합동 로짓 모형			고정효과 로짓 모형		
	(1)	(2)	(3)	(4)	(5)	(6)
임금근로자						
고용주	0.197** (0.098)	0.172* (0.099)	0.186* (0.105)	0.538** (0.228)	0.521** (0.228)	0.560** (0.233)
자영업자	0.212*** (0.075)	0.102 (0.080)	0.115 (0.091)	0.475** (0.228)	0.449* (0.229)	0.492** (0.235)
남성		0.051 (0.073)	0.047 (0.079)			
연령		-0.118*** (0.037)	-0.114*** (0.037)			
연령 제곱		0.001*** (0.000)	0.001*** (0.000)			
중학교						
고등학교		-0.117 (0.120)	-0.094 (0.122)			
대학 이상		-0.328** (0.130)	-0.228* (0.138)			
소득 1분위						
소득 2분위		-0.224 (0.162)	-0.210 (0.163)		-0.324 (0.224)	-0.294 (0.226)
소득 3분위		-0.215 (0.157)	-0.204 (0.159)		-0.338 (0.239)	-0.315 (0.242)
소득 4분위		-0.166 (0.153)	-0.145 (0.155)		-0.374 (0.249)	-0.347 (0.252)
소득 5분위		-0.206 (0.153)	-0.173 (0.155)		-0.242 (0.262)	-0.220 (0.265)
기혼		0.365*** (0.099)	0.378*** (0.100)		0.796** (0.343)	0.821** (0.343)
관측치 수 (패널 수)	21,417	21,409	21,341	5,364 (1,014)	5,359 (1,013)	5,330 (1,009)
직업 변수	No	No	Yes	No	No	Yes
연도 더미	Yes	Yes	Yes	Yes	Yes	Yes

주: 1) \*\*\* p<0.01, \*\* p<0.05, \* p<0.1

2) Panel A와 Panel B 괄호 안은 각각 군집강건표준오차(clustered robust standard error)와 표준오차(standard error)

자료: 한국의료패널 4-12차.

〈표 4-7〉 격렬한 신체활동 일수

	합동 순서형 로짓 모형			고정효과 순서형 로짓 모형		
	(1)	(2)	(3)	(4)	(5)	(6)
임금근로자						
고용주	-0.051 (0.063)	-0.114* (0.064)	-0.106 (0.068)	0.202 (0.154)	0.210 (0.155)	0.193 (0.158)
자영자	-0.107** (0.050)	0.022 (0.052)	0.035 (0.058)	0.122 (0.146)	0.131 (0.147)	0.116 (0.150)
남성		0.911*** (0.049)	0.964*** (0.053)			
연령		0.091*** (0.024)	0.087*** (0.024)			
연령 제곱		-0.001*** (0.000)	-0.001*** (0.000)			
중학교						
고등학교		0.311*** (0.091)	0.291*** (0.091)			
대학 이상		0.430*** (0.094)	0.350*** (0.099)			
소득 1분위						
소득 2분위		0.145 (0.096)	0.140 (0.096)		0.086 (0.150)	0.083 (0.151)
소득 3분위		0.319*** (0.093)	0.310*** (0.093)		0.168 (0.158)	0.163 (0.160)
소득 4분위		0.328*** (0.093)	0.311*** (0.093)		0.147 (0.164)	0.141 (0.165)
소득 5분위		0.435*** (0.093)	0.406*** (0.094)		0.134 (0.172)	0.130 (0.173)
기혼		0.010 (0.060)	-0.003 (0.060)		-0.545** (0.235)	-0.539** (0.236)
관측치 수 (패널 수)	20,961	20,954	20,890	13,970 (2,858)	13,965 (2,857)	13,930 (2,852)
직업 변수	No	No	Yes	No	No	Yes
연도 더미	Yes	Yes	Yes	Yes	Yes	Yes

주: 1) \*\*\* p<0.01, \*\* p<0.05, \* p<0.1

2) 괄호 안은 군집강건표준오차(clustered robust standard error)

자료: 한국의료패널 4-12차.

〈표 4-8〉 과거 및 현재 흡연 여부

	합동 순서형 로짓 모형			고정효과 순서형 로짓 모형		
	(1)	(2)	(3)	(4)	(5)	(6)
임금근로자						
고용주	-0.372*** (0.076)	-0.317*** (0.090)	-0.215** (0.093)	0.341 (0.245)	0.326 (0.246)	0.301 (0.249)
자영자	-0.054 (0.063)	-0.234*** (0.073)	-0.115 (0.081)	0.073 (0.244)	0.064 (0.245)	0.038 (0.250)
남성		-5.048*** (0.159)	-4.965*** (0.160)			
연령		-0.128*** (0.037)	-0.138*** (0.036)			
연령 제곱		0.002*** (0.000)	0.002*** (0.000)			
중학교						
고등학교		0.033 (0.134)	0.003 (0.136)			
대학 이상		0.444*** (0.138)	0.276* (0.147)			
소득 1분위						
소득 2분위		0.096 (0.124)	0.137 (0.123)		-0.164 (0.227)	-0.158 (0.225)
소득 3분위		0.042 (0.132)	0.086 (0.131)		-0.145 (0.236)	-0.123 (0.233)
소득 4분위		0.012 (0.134)	0.020 (0.133)		-0.313 (0.254)	-0.297 (0.253)
소득 5분위		0.099 (0.138)	0.081 (0.137)		-0.354 (0.272)	-0.362 (0.273)
기혼		0.402*** (0.111)	0.374*** (0.111)		0.719 (0.512)	0.729 (0.510)
관측치 수 (패널 수)	20,961	20,954	20,890	5,196 (976)	5,193 (975)	5,173 (973)
직업 변수	No	No	Yes	No	No	Yes
연도 더미	Yes	Yes	Yes	Yes	Yes	Yes

주: 1) \*\*\* p<0.01, \*\* p<0.05, \* p<0.1

2) 괄호 안은 군집강건표준오차(clustered robust standard error)

자료: 한국의료패널 4-12차.

〈표 4-9〉 과음 횟수

	합동 순서형 로짓 모형			고정효과 순서형 로짓 모형		
	(1)	(2)	(3)	(4)	(5)	(6)
임금근로자						
고용주	0.268*** (0.071)	0.184*** (0.071)	0.142* (0.074)	0.082 (0.131)	0.087 (0.131)	0.071 (0.133)
자영자	-0.085 (0.060)	0.002 (0.061)	-0.034 (0.067)	0.025 (0.126)	0.037 (0.127)	0.009 (0.128)
남성		1.729*** (0.057)	1.718*** (0.061)			
연령		0.115*** (0.027)	0.118*** (0.027)			
연령 제곱		-0.001*** (0.000)	-0.001*** (0.000)			
중학교						
고등학교		-0.072 (0.119)	-0.099 (0.120)			
대학 이상		-0.309** (0.121)	-0.341*** (0.126)			
소득 1분위						
소득 2분위		0.010 (0.104)	0.004 (0.104)		-0.108 (0.141)	-0.112 (0.143)
소득 3분위		0.079 (0.103)	0.070 (0.102)		0.013 (0.143)	-0.000 (0.145)
소득 4분위		0.134 (0.104)	0.125 (0.104)		0.147 (0.149)	0.139 (0.151)
소득 5분위		0.177* (0.105)	0.172 (0.105)		0.187 (0.159)	0.172 (0.160)
기혼		0.178*** (0.064)	0.178*** (0.064)		-0.304 (0.223)	-0.317 (0.223)
관측치 수 (패널 수)	17,695	17,689	17,629	13,333 (2,839)	13,329 (2,839)	13,285 (2,834)
직업 변수	No	No	Yes	No	No	Yes
연도 더미	Yes	Yes	Yes	Yes	Yes	Yes

주: 1) \*\*\* p<0.01, \*\* p<0.05, \* p<0.1

2) 괄호 안은 군집강건표준오차(clustered robust standard error)

자료: 한국의료패널 4-12차.

## 제5절 소 결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건강상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간에 건강 및 건강행동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종사상지위가 건강상태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를 추정하였다. 주관적 건강지표, 객관적 건강지표, 건강행동 등 다양한 변수를 활용하여 다각도로 건강상태를 확인하였으며, 자영업자 구성의 이질성을 고려하여 고용주와 자영자로 구분하여 임금근로자에 비해 이 두 그룹의 건강상태가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관적 건강지표(주관적 건강상태, 동년배 비교 건강상태)로 확인했을 때 임금근로자에 비해 자영자의 주관적 건강이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주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종사상지위가 건강에 미친 인과관계를 추정한 결과는 종업원 유무에 관계없이, 즉 고용주인지 자영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자영업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의 건강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객관적 건강지표(응급실 방문 여부)로 종사상지위와 건강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에도 주관적 건강지표와 유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종사상지위와 건강행동(격렬한 신체활동 일수, 과거 및 현재 흡연 여부, 과음 횟수) 간에는 유의한 인과적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자영업자의 건강상태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며, 이는 건강하지 못한 개인이 자영업을 선택하여 나타난 결과가 아닌 자영업이 건강에 미친 인과적 효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자료상의 한계로 인해 자영업의 어떤 특성이 자영업자의 건강을 악화시키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은 확인할 수 없었으나, 우리나라 자영업의 특성과 선행 연구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소득 상실,

재해, 폐업 등의 위험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데서 오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더불어 장시간 근로 및 열악한 근로환경 등이 자영업자들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일 것으로 짐작된다.

자영업자의 경제적 취약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되어 왔다. 이를 반영하여 정부는 2005년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시작으로 경영지원, 혁신, 자생력 강화, 규제혁신 등을 목표로 이들에 대한 정책을 꾸준히 내놓고 있다. 특히 2018년 대책에서는 자영업을 독립적 정책영역으로 규정하여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상당수의 자영업자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별 노란우산공제 가입 확대 및 1인 자영업자 4대 보험 지원기반 마련을 목표로 한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8대 정책과제 중 하나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더해 본 연구의 결과는 자영업자들의 건강 제고 측면에서의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정신적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근로 환경으로 인한 건강 악화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해결책 마련이 요구된다.

안수지(2020)는 유급휴가가 없는 자영업자들은 근로시간이 소득과 직결되기 때문에 의료이용, 건강검진에 따른 기회비용이 임금근로자에 높고, 이로 인해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간 의료이용에 격차가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불충분한 의료이용과 건강검진 미수진으로 인한 질병의 악화는 개인의 의료비용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연결된다. 또한 건강검진을 포함한 의료이용의 격차는 종사상지위 간 건강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사전적이고 예방적 대책으로서 자영업자들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고 건강검진 수진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총괄목표로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설정하고, 보편적인 건강 수준 향상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함께 추진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제시하였다. 형평성 측면에서 볼 때, 성, 소득, 지역 등에 국한되어 있는 기존의 형평성 지표를 근로자의 종사상지위까지 확대하여 건강취약계층

을 확인하고 정책목표와 우선순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제도’를 통해 유급휴가가 없어 병원 방문이 어려운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종사자, 1인 영세자영업자 등의 근로취약계층에게 입원과 건강검진으로 인한 근로소득 손실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대전·성남 등의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또한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를 자영업자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대상자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 제 5 장

### 자영업자의 직업 매칭에 관한 연구

#### 제1절 연구의 배경

현재 하고 있는 일이나 업무 내용이 취업자의 교육 수준이나 기술 수준에 비하여 적합한 수준인지, 과거 경험을 쌓았던 일 또는 전공과 일치하는지와 같은 직업 매칭(job matching)의 질은 인적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이나 업무 내용의 수준이 취업자의 교육 수준이나 기술 수준보다 낮거나 또는 현재 하고 있는 일이나 업무 내용이 과거 경험을 쌓았던 일이나 전공과 일치하지 않아 직업 매칭의 질이 낮다면, 이는 취업자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을 온전히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인적 자원 배분에 비효율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현재 하고 있는 일이나 업무 내용의 수준이 취업자의 교육 수준이나 기술 수준 대비 높거나 현재 하고 있는 일이나 업무 내용이 과거 경험을 쌓은 일이나 전공과 일치하여 직업 매칭의 질이 높다면, 이는 취업자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인적 자원의 낭비가 적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취업자 개인으로서도 직업 매칭의 질이 높은 일을 할 경우 노동시장 성과(labor market outcome)나 자아실현의 측면에서 적지 않은 이점을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논리는 취업자로서 자영업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만일 자영업자의 직업 매칭의 질이 임금근로자에 비하여 낮다면, 자영업 노동

시장에서의 인적 자원 배분이 임금근로자 노동시장에서의 인적 자원 배분에 비하여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반대로 자영업자의 직업 매칭의 질이 임금근로자에 비하여 양호하다면, 자영업 노동시장에서의 인적 자원 배분이 임금근로자 노동시장에서의 인적 자원 배분에 비하여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취업자 중 자영업자의 비중이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하여 상당히 높다는 점을 생각하면,<sup>5)</sup> 자영업자의 직업 매칭의 질은 상당히 중요한 연구 주제라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자영업 노동시장에서의 인적 자원 배분의 효율성 그리고 자영업자의 노동시장 성과와 자아실현을 고려하면, 자영업자의 직업 매칭의 질은 예비창업패키지와 같은 창업지원정책이나 다른 자영업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현재 하고 있는 일이나 업무 내용의 교육 수준 대비 적합도 및 기술 수준 대비 적합도, 현재 종사하고 있는 산업이 과거 종사하였던 산업과 일치하는지 여부, 업무 내용이 학교 전공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자영업자의 직업 매칭의 질이 임금근로자에 비하여 어떠한지에 관하여 특히 고용취약계층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50대 이상 중고령층과 청년층(이재성 외, 2016)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자영업 고용구조의 변화와 추이 및 자영업자의 특성과 소득(금재호 외, 2009), 또는 자영업자의 경영실태(홍민기·오상봉, 2018; 오상봉·김명수, 2019; 홍민기 외, 2020)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기존 연구 문헌은 찾아볼 수 있으나, 자영업자의 직업 매칭에 관한 연구는 찾기 어렵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자영업자의 직업 매칭의 질이 임금근로자에 비하여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창업지원정책이나 다른 자영업 관련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과학적 지식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 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절에서는 이 장의 연구를 위하여 이용하는 자료에 대하여 설명한다. 제3절에서는 이 장의 연구에서 사용하는

5) 2017년 우리나라 취업자 중 자영업자의 비중은 25.4%로, OECD 회원국 중 5위에 해당한다. 단, 이 취업자 중 자영업자의 비중은 무급가족종사자까지도 자영업자로 분류하여 계산한 수치로, 2020년 취업자 중 무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한 자영업자의 비중은 20.2%다(통계청, 2021).

분석방법을 설명하며, 제4절에서는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제5절에서는 이 장 연구의 결론을 내린다.

## 제2절 분석자료 : 한국노동패널조사와 청년패널조사

이 연구에서는 자영업자의 직업 매칭의 질을 50대 이상 중고령층과 청년층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50대 이상 중고령층 사이에서 자영업자의 직업 매칭의 질이 임금근로자의 직업 매칭의 질에 비하여 어떠한지 살펴볼 때는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를 이용한다. 청년층에서 자영업자의 직업 매칭의 질이 임금근로자의 직업 매칭의 질에 비하여 어떠한지 알아볼 때는 청년패널조사(Youth Panel)를 사용한다. 한국노동패널조사와 청년패널조사는 직업 매칭의 질이나 응답자가 자영업자인지 여부,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등과 관련하여 상당히 유사한 종류의 정보를 제공하여 동시에 사용하기에 적절한 자료이다.

한국노동패널조사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1998년부터 2019년까지 22년 동안 매년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5,000가구와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노동 관련 사항을 조사한 패널(panel) 자료이다. 한국노동패널조사는 첫 조사를 1998년 실시한 까닭에 응답자들의 연령이 비교적 높아, 50대 이상 중고령층 자영업자의 직업 매칭의 질이 어떠한지 살펴보기에 적합한 자료이다.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는 응답자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의 교육 수준 대비 적합도 및 기술 수준 대비 적합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정보를 이용하여 회귀분석<sup>6)</sup>의 종속변수(dependent variable)로 사용할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응답자의 교육 수준에 비하여 적합한지를 나타내는 모조변수(dummy variable)와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응답자의 기술 수준과 비교하여 적합한지를 보여주는 모조변수를 만든다. 이 모조변수들은

6) 회귀분석에 대해서는 제3절에서 설명한다.

현재 하는 일이 응답자의 교육 수준 또는 기술 수준에 비하여 어떠한지를 묻는 설문에서 응답자가 “수준이 맞는다”, “수준이 높은 편이다” 또는 “수준이 매우 높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1의 값을, “수준이 낮은 편이다”나 “수준이 매우 낮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0의 값을 갖는다.<sup>7)</sup> 더불어 한국노동패널조사는 응답자의 주된 일자리가 제8차 한국표준산업분류상에서 어느 산업에 속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정보를 이용하여 제8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를 기준으로 응답자가 현재 종사하고 있는 산업이 과거 종사하였던 산업과 일치하는지를 보여주는 모조변수를 생성한다. 다만 경제활동이 왕성할 시기의 직업력을 충분히 추적하기 위해서 이 변수는 1차 조사연도인 1998년에 40대였던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만든다.<sup>8)</sup>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일자리 형태를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로 구분한다. 그리고 임금근로자의 종사상지위는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으로 나누며,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지위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로 나눈다. 이와 같은 응답자의 일자리 형태와 종사상지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응답자가 자영업자인지 여부를 나타내는 모조변수를 생성하고 이를 회귀분석의 독립변수(independent variable)로 사용한다. 이 모조변수는 응답자가 자영업자인 경우 1의 값을,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인 경우 0의 값을 갖는다.<sup>9)</sup> 또한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는 비임금근로자의 일자리에 고용된 종업원이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자영업자의 특성에 따라 직업 매칭의 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 정보를 이용하여 응답자가 종업원 있는 자

7) 현재 하고 있는 일의 교육 수준 대비 적합도나 기술 수준 대비 적합도에 관한 설문에서 응답자가 “수준이 높은 편이다”라거나 “수준이 매우 높다”고 답한 경우, 인적 자원 배분의 낭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응답자의 지식이나 기술로는 벅찬 일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응답자의 지식이나 기술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쉬운 일을 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장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경우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응답자의 교육 수준이나 기술 수준과 비교하여 적합하다고 본다.

8) 단, 후술하듯이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이용한 분석에서는 50대 이상의 응답자만을 표본에 포함한다.

9) 뒤에서 설명하듯 무급가족종사자는 분석에서 제외한다.

영업자인지를 나타내는 모조변수와 응답자가 종업원 없는 자영업자인지를 보여주는 모조변수를 만들어 회귀분석의 독립변수로 이용한다. 응답자가 종업원 있는 자영업자인지를 나타내는 모조변수는 응답자가 자영업자이면서 그 일자리에 고용된 종업원이 있는 경우에는 1의 값을, 응답자가 자영업자이지만 그 일자리에 고용된 종업원이 없거나 또는 응답자가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인 경우에는 0의 값을 갖는다. 응답자가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인지를 보여주는 모조변수는 응답자가 자영업자이면서 그 일자리에 고용된 종업원이 없는 경우 1의 값을, 응답자가 자영업자이지만 그 일자리에 고용된 종업원이 있거나 또는 응답자가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에 종사하는 임금 근로자인 경우에는 0의 값을 갖는다. 이외에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 제공하는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에서 통제변수(control variable)로 사용할 변수를 생성한다. 구체적으로 성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응답자가 남성인지를 나타내는 모조변수를, 나이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응답자의 나이 및 나이의 제곱을 보여주는 변수를, 학력에 관한 정보를 사용하여 응답자의 최종 학력이 고졸 미만인지, 고졸인지, 전문대졸인지, 대졸인지, 석사 학위 이상인지 각각을 나타내는 모조변수를, 혼인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응답자가 미혼인지, 기혼인지, 별거 중인지, 이혼하였는지, 배우자와 사별하였는지 각각을 보여주는 모조변수를, 거주 지역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응답자의 거주 시도를 나타내는 모조변수를 만든다. 가구소득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응답자가 속한 가구가 지난 한 달 동안 얻은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회보험 수급액, 기타 이전소득, 기타소득을 나타내는 변수들을 생성하되,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2019년 원으로 환산한다. 마지막으로 전술한 주된 일자리의 산업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응답자의 주된 일자리가 제8차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에서 어느 산업에 속하는지를 보여주는 모조변수를 만든다.

청년패널조사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2007년 당시 만 15-29세였던 응답자들을 2019년까지 13년 동안 매년 조사한 패널 자료이다. 청년패널조사는 우리나라 청년층의 사회경제활동을 반영하는 기초 자료인 까닭에,

청년층 자영업자의 직업 매칭의 질을 알아보기에 적합한 자료이다.

청년패널조사에서는 업무 내용이 응답자의 교육 수준 또는 기술 수준과 비교하여 적합한지, 그리고 전공과 일치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정보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의 종속변수로 사용할 업무 내용이 응답자의 교육 수준에 비하여 적합한지를 보여주는 모조변수, 업무 내용이 응답자의 기술 수준과 비교하여 적합한지를 나타내는 모조변수, 그리고 업무 내용이 응답자의 전공과 일치하는지를 보여주는 모조변수를 만든다. 업무 내용이 응답자의 교육 수준과 비교하여 적합한지를 나타내는 모조변수와 업무 내용이 응답자의 기술 수준에 비하여 적합한지를 보여주는 모조변수는 업무 내용의 교육 수준이나 기술 수준 대비 적합도에 관한 설문에서 응답자가 “수준이 적절하다”, “수준이 높다” 또는 “수준이 아주 높다”고 응답한 경우 1의 값을, “수준이 낮다”나 “수준이 아주 낮다”고 응답한 경우 0의 값을 갖는다.<sup>10)</sup> 업무 내용이 응답자의 전공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모조변수는 관련 설문에서 응답자가 업무 내용이 자신의 전공과 “그런대로 맞다”, “맞는다”, “아주 잘 맞다”라 응답한 경우에는 1의 값을, “맞지 않다”, “전혀 맞지 않다”라 응답한 경우 0의 값을 갖는다.

청년패널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종사상지위를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로 나눈다. 이러한 응답자의 종사상지위에 관한 정보를 사용하여 응답자가 자영업자인지를 보여주는 모조변수, 응답자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인지를 나타내는 모조변수, 응답자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인지를 보여주는 모조변수를 만들고 이를 회귀분석의 독립변수로 이용한다. 응답자가 자영업자인지를 나타내는 모조변수는 응답자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나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1의 값을,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0의 값을 갖는다. 응답자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인지를 나

10) 업무 내용이 교육 수준이나 기술 수준과 비교하여 적합한지를 묻는 설문에서 응답자가 “수준이 높다”라거나 “수준이 아주 높다”고 답한 경우, 각주 3에서 제시한 것과 비슷한 이유로 업무 내용이 응답자의 교육 수준 또는 기술 수준에 비하여 적합하다고 본다.

타내는 모조변수는 응답자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1의 값을, 응답자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이거나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0의 값을 갖는다. 응답자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인지를 보여주는 모조변수는 응답자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인 경우 1의 값을, 응답자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이거나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0의 값을 갖는다.<sup>11)</sup> 더불어 청년패널조사가 제공하는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관한 정보를 사용하여 회귀분석에서 통제변수로 사용할 변수를 만든다. 구체적으로는 성별에 관한 정보를 사용하여 응답자가 남성인지를 보여주는 모조변수를, 조사연도와 출생연도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응답자의 나이와 나이의 제곱을 보여주는 변수를, 학력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응답자의 최종 학력이 고졸 미만인지, 고졸인지, 전문대졸인지, 대졸인지, 석사 학위 이상인지 각각을 나타내는 모조변수를, 혼인 상태에 관한 정보를 사용하여 응답자가 미혼인지, 기혼인지, 별거 중인지, 이혼하였는지, 배우자와 사별하였는지 각각을 나타내는 모조변수를, 거주지역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여 응답자의 거주 시도를 보여주는 모조변수를 생성한다. 가구소득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응답자가 속한 가구가 지난 1년간 얻은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기타소득을 나타내는 변수들을 만들되,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지수를 사용하여 2019년 원으로 환산한다. 마지막으로 현 직장의 산업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응답자의 현 직장이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에서 어느 산업에 속하는지를 나타내는 모조변수를 생성한다.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이용하여 50대 이상 중고령층 자영업자의 직업 매칭의 질에 대해서 분석할 때는 50대 미만의 응답자는 표본에서 제외한다. 무급가족종사자는 이 연구의 초점이 아니므로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사용하여 구축한 표본과 청년패널조사를 이용하여 구성한 표본 모두에서 제외한다. 종속변수 모두가 누락된 관측치나 독립변수나 여러 통제변수 중 하나의 변수라도 누락된 관측치 또한 모든 표본에서 제외한다.<sup>12)</sup> 결과적

11) 후술하듯 무급가족종사자는 표본에서 제외한다.

12) 미취업자는 응답자가 자영업자인지를 나타내는 모조변수가 누락되어, 오직 취업자만이 표본에 포함된다.

으로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사용하여 구성된 표본에는 40,252개의 관측치, 청년패널조사를 이용하여 구축한 표본에는 37,715개의 관측치가 있다. <표 5-1>은 요약 통계량(summary statistics)을 제시하고 있다. 이 표가 보여주는 수치는 한국노동패널조사와 청년패널조사가 제공하는 개인 가중치를 이용하여 추정된 것이다.

### 제3절 분석방법 : 선형 확률 모형

이 연구에서는 자영업자의 직업 매칭의 질이 임금근로자의 직업 매칭의 질에 비하여 어떠한지 살펴보기 위하여 회귀방정식 (5-1)에 있는 선형 확률 모형(linear probability model)을 50대 이상 중고령층과 청년층 각각을 대상으로 추정한다.

$$y_{idst} = \beta_0 + \beta_1 selfemp_{idst} + \beta_2 X_{idst} + d + s + t + \epsilon_{idst} \quad (5-1)$$

회귀방정식 (5-1)의  $i$ 는 개인  $i$ ,  $d$ 는 개인  $i$ 가 종사하고 있는 산업  $d$ ,  $s$ 는 개인  $i$ 가 거주하고 있는 시도  $s$ ,  $t$ 는 연도  $t$ 를 의미한다.  $y_{idst}$ 는 종속변수로 50대 이상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개인  $i$ 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이 교육 수준에 비하여 적합한지를 나타내는 모조변수, 개인  $i$ 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이 기술 수준과 비교하여 적합한지를 보여주는 모조변수 또는 개인  $i$ 가 현재 종사하고 있는 산업이 과거 종사하였던 산업과 일치하는지를 나타내는 모조변수이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y_{idst}$ 는 개인  $i$ 의 업무 내용이 교육 수준과 비교하여 적합한지를 보여주는 모조변수, 개인  $i$ 의 업무 내용이 기술 수준에 비하여 적합한지를 나타내는 모조변수 또는 개인  $i$ 의 업무 내용이 전공과 일치하는지를 보여주는 모조변수이다.  $selfemp_{idst}$ 는 독립변수로 개인  $i$ 가 자영업자인지를 나타내는 모조변수이다.  $X_{idst}$ 는 통제변수로 성별, 연령, 교육 수준, 혼인

〈표 5-1〉 요약 통계량

	중고령층		청년층	
	(1)	(2)	(3)	(4)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교육 수준 대비 적합	0.840	0.367	0.902	0.297
기술 수준 대비 적합	0.854	0.353	0.900	0.300
과거 종사했던 산업과 일치	0.921	0.270	-	-
전공과 일치	-	-	0.831	0.375
자영업자	0.439	0.496	0.084	0.278
종업원/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0.116	0.321	0.021	0.142
종업원/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0.321	0.467	0.064	0.244
남성	0.649	0.477	0.570	0.495
연령(세)	58.501	7.127	31.286	4.628
고졸 미만	0.441	0.496	0.004	0.064
고졸	0.326	0.469	0.253	0.435
전문대 졸	0.057	0.232	0.279	0.448
대졸	0.141	0.348	0.428	0.495
석사학위이상	0.036	0.186	0.036	0.186
미혼	0.014	0.117	0.643	0.479
기혼	0.832	0.374	0.351	0.477
별거	0.012	0.109	0.000	0.017
이혼	0.056	0.231	0.006	0.075
사별	0.086	0.280	0.000	0.013
금융소득(만원)	2.046	26.330	39.493	458.710
부동산소득(만원)	14.750	163.383	28.568	699.228
사회보험 수급액(만원)	11.732	67.908	-	-
기타 이전소득(만원)	4.199	68.140	-	-
기타소득(만원)	0.925	23.499	9.225	267.356

주: 중고령층의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회보험 수급액, 기타 이전소득, 기타소득은 지난 한 달간의 금액. 청년층의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기타소득은 지난 1년간의 금액.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4-22차 및 청년패널조사 1-13차.

상태, 가구소득과 같은 개인  $i$ 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이다. 구체적으로 성별과 관련해서는 개인  $i$ 가 남성인지를 나타내는 모조변수를, 연령과 관련해서는 개인  $i$ 의 연령과 연령의 제곱을 보여주는 변수를

$X_{idst}$ 에 포함한다. 교육 수준과 관련해서는 개인  $i$ 의 최종 학력이 고졸인지를 보여주는 모조변수, 전문대 졸인지를 나타내는 모조변수, 대졸인지를 보여주는 모조변수, 석사 학위 이상인지를 나타내는 모조변수를  $X_{idst}$ 에 넣는다. 교육 수준에 관해서는 개인  $i$ 의 최종 학력이 고졸 미만인지를 보여주는 모조변수가 누락변수(omitted variable)인 셈이다. 혼인 상태에 관한 변수로는 개인  $i$ 가 기혼인지를 보여주는 모조변수, 별거 중인지를 나타내는 모조변수, 이혼하였는지를 보여주는 모조변수, 배우자와 사별하였는지를 나타내는 모조변수를  $X_{idst}$ 에 포함한다. 혼인 상태와 관련해서는 개인  $i$ 가 미혼인지를 나타내는 모조변수가 누락변수이다. 가구소득과 관련하여서는 50대 이상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분석할 때에는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회보험 수급액, 기타 이전소득, 기타소득을,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기타소득을  $X_{idst}$ 에 포함한다.<sup>13)</sup>  $\epsilon_{idst}$ 는 오차항이다. 이 분석에서는  $selfemp_{idst}$ 의 계수인  $\beta_1$ 에 초점을 둔다.

자영업자의 특성에 따라 직업 매칭의 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 보기 위해서는 회귀방정식 (5-2)에 있는 선형 확률 모형을 50대 이상 중고령층과 청년층 각각을 대상으로 추정한다.

$$y_{idst} = \beta_0 + \beta_1 emp_{idst} + \beta_2 noemp_{idst} + \beta_3 X_{idst} + d + s + t + \epsilon_{idst} \quad (5-2)$$

회귀방정식 (5-2)의 독립변수인  $emp_{idst}$ 는 50대 이상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개인  $i$ 가 종업원이 있는 자영업자인지를 나타내는 모조변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개인  $i$ 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인지를 보여주는 모조변수이다. 또 다른 독립변수인  $noemp_{idst}$ 는

13) 가구 근로소득의 경우 응답자의 근로소득이 가구 근로소득에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직업 매칭의 질과 응답자의 근로소득 사이에는 내생성(endogeneity)이 있을 수 있다. 이에 가구 근로소득은 통제변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가구 근로소득을 통제변수에 포함하더라도 제4절에서 제시하는 것과 유사한 분석 결과를 얻는다.

50대 이상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분석에서는 개인  $i$ 가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인지를 보여주는 모조변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개인  $i$ 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인지를 나타내는 모조변수이다. 회귀방정식 (5-2)의 나머지는 회귀방정식 (5-1)과 같다. 이 분석에서는  $emp_{idst}$ 의 계수인  $\beta_1$ 과  $noemp_{idst}$ 의 계수인  $\beta_2$ 에 초점을 맞추며, 종업원 또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종업원이나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사이에 직업 매칭의 질이 다른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beta_1$ 과  $\beta_2$ 를 비교한다.

한국노동패널조사와 청년패널조사 모두 패널 자료이므로 한 개인의 시점별 관측치의 오차항 사이에 상관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하기 위하여 회귀방정식 (5-1)과 (5-2)를 추정할 때 군집강건 표준 오차(cluster-robust standard error)를 추정한다. 군집의 수준은 응답자 개인이다. 또한 모든 추정에서 한국노동패널조사와 청년패널조사가 제공하는 개인 가중치를 이용한다.

## 제4절 분석 결과

<표 5-2>, <표 5-3>, <표 5-4>, <표 5-5>, <표 5-6>, <표 5-7>은 50대 이상 중고령층 사이에서 자영업자의 직업 매칭의 질이 어떠한지에 대한 분석 결과를, <표 5-8>, <표 5-9>, <표 5-10>, <표 5-11>, <표 5-12>, <표 5-13>은 청년층 사이에서 자영업자의 직업 매칭의 질이 어떠한지에 관한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추정 결과의 강건성(robustness)을 확인하기 위하여 모든 표의 (1)열에서는 독립변수에 해당하는 변수만을 회귀방정식 (5-1)이나 (5-2)의 우변에 포함하여 얻은 추정 결과를, 모든 표의 (2)열에서는 독립변수와 함께 응답자의 성별, 연령, 교육 수준, 혼인 상태, 가구소득을 보여주는 통제변수를 회귀방정식 (5-1) 또는 (5-2)의 우변에 포함하여 구한 추정 결과를 제시한다. 모든 표의 (3)열에서는 독립변수에 더하여 응답자의 성별, 연령, 교육 수준, 혼인 상태, 가구소득을 나타내는 통제변수 및 응답자가 종사하고 있는 산업을 보여주는 모조변

수, 응답자의 거주 시도를 나타내는 모조변수, 연도 모조변수와 같은 통제변수까지 모두 회귀방정식 (5-1)이나 (5-2)의 우변에 포함하여 얻은 추정 결과를 제시한다. 이 장의 연구에서는 각 표 (3)열에서 보여주는 모든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를 회귀방정식 (5-1) 또는 (5-2)의 우변에 넣어서 구한 추정 결과를 가장 선호한다. 하지만 각 표 (1)열, (2)열 및 (3)열에서 보여주는 분석 결과에서 독립변수의 계수의 추정치가 상당히 강건하다면, 누락변수로 인한 편의(omitted variable bias)에 대한 우려를 많이 덜 수 있다.

## 1. 50대 이상 중고령층 자영업자의 직업 매칭

<표 5-2>는 50대 이상 중고령층 사이에서 자영업자의 직업 매칭의 질이 어떠한지를 임금근로자의 직업 매칭의 질과 비교하여 본 분석의 결과를 보여준다. 이 표에서 제시하는 분석에서는 현재 하는 일이 응답자의 교육 수준에 비하여 적합한지를 나타내는 모조변수가 종속변수이다. (3)열에서 보여주는 점 추정치(point estimate)에 따르면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응답자의 교육 수준에 비하여 적합할 확률이 응답자가 자영업자인 경우 응답자가 임금근로자인 경우보다 6.9%포인트 더 높다. 이 점 추정치는 1% 유의 수준(significance level)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1)열과 (2)열은 이 추정 결과가 상당히 강건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표 5-2〉 임금근로자 대비 자영업자의 직업 매칭의 질(50대 이상 중고령층) :  
교육 수준 대비 적합

	교육 수준 대비 적합		
	(1)	(2)	(3)
자영업자	0.051*** (0.006)	0.049*** (0.007)	0.069*** (0.007)
남성		-0.006 (0.007)	-0.012 (0.007)
연령		-0.014*** (0.005)	-0.008 (0.005)
연령 제곱		0.000** (0.000)	0.000 (0.000)
고졸		-0.041*** (0.008)	-0.066*** (0.008)
전문대 졸		-0.033* (0.019)	-0.077*** (0.019)
대졸		-0.030** (0.014)	-0.081*** (0.014)
석사학위 이상		0.046** (0.020)	-0.031 (0.021)
기혼		0.006 (0.031)	0.036 (0.031)
별거		-0.020 (0.040)	0.015 (0.039)
이혼		-0.021 (0.034)	0.002 (0.034)
사별		0.028 (0.032)	0.069** (0.032)
금융소득(만원)		-0.000 (0.000)	0.000 (0.000)
부동산소득(만원)		0.000* (0.000)	0.000 (0.000)
사회보험 수급액(만원)		-0.000 (0.000)	-0.000 (0.000)
기타 이전소득(만원)		0.000** (0.000)	0.000* (0.000)
기타소득(만원)		0.000 (0.000)	0.000 (0.000)
종사 산업 모조변수			X
거주 시도 모조변수			X
연도 모조변수			X
관측치 수	40,188	40,188	40,188

주: \*\*\* p<0.01, \*\* p<0.05, \* p<0.1. 괄호 안은 표준오차(standard error).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4-22차.

〈표 5-3〉 임금근로자 대비 종업원 있는 자영업자 및 종업원 없는 자영업자의 직업  
매칭의 질(50대 이상 중고령층) : 교육 수준 대비 적합

	교육 수준 대비 적합		
	(1)	(2)	(3)
종업원 있는 자영업자	0.079*** (0.009)	0.084*** (0.009)	0.111*** (0.009)
종업원 없는 자영업자	0.041*** (0.007)	0.037*** (0.007)	0.049*** (0.008)
남성		-0.006 (0.007)	-0.012 (0.007)
연령		-0.014*** (0.005)	-0.007 (0.005)
연령 제곱		0.000** (0.000)	0.000 (0.000)
고졸		-0.043*** (0.008)	-0.069*** (0.008)
전문대 졸		-0.038** (0.019)	-0.084*** (0.019)
대졸		-0.037*** (0.014)	-0.090*** (0.014)
석사학위 이상		0.041** (0.020)	-0.039* (0.022)
기혼		0.002 (0.031)	0.032 (0.031)
별거		-0.024 (0.040)	0.011 (0.039)
이혼		-0.023 (0.034)	0.000 (0.034)
사별		0.025 (0.033)	0.066** (0.033)
금융소득(만원)		-0.000 (0.000)	0.000 (0.000)
부동산소득(만원)		0.000 (0.000)	0.000 (0.000)
사회보험 수급액(만원)		-0.000 (0.000)	-0.000 (0.000)
기타 이전소득(만원)		0.000*** (0.000)	0.000** (0.000)
기타소득(만원)		0.000 (0.000)	0.000 (0.000)
중사 산업 모조변수			X
거주 시도 모조변수			X
연도 모조변수			X
관측치 수	40,090	40,090	40,090

주: \*\*\* p<0.01, \*\* p<0.05, \* p<0.1. 괄호 안은 표준오차(standard error).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4-22차.

<표 5-3>은 50대 이상 중고령층 사이에서 종업원 있는 자영업자와 종업원 없는 자영업자의 직업 매칭의 질이 임금근로자의 직업 매칭의 질과 비교하여 어떠한지를 살펴본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이 표에서 보여주는 분석에서도 <표 5-2>에서 제시하는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응답자의 교육 수준과 비교하여 적합한지를 나타내는 모조변수가 종속변수이다. (3)열에서 보여주는 점 추정치들에 의하면 현재 하는 일이 응답자의 교육 수준과 비교하여 적합할 확률은 응답자가 종업원 있는 자영업자인 경우 응답자가 임금근로자인 경우보다 11.1%포인트 더 높으며, 응답자가 종업원 없는 자영업자인 경우 응답자가 임금근로자인 경우보다 4.9%포인트 더 높다. 이 점 추정치들은 모두 1% 유의 수준하에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또한 응답자가 종업원 있는 자영업자인 경우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응답자의 교육 수준에 비하여 적합할 확률이 응답자가 종업원 없는 자영업자인 경우보다 6.2%포인트 더 높으며, 이 차이도 1% 유의 수준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1)열과 (2)열은 이와 같은 추정 결과가 상당히 강건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표 5-4> 또한 50대 이상 중고령층에서 자영업자의 직업 매칭의 질이 어떠한지를 임금근로자의 직업 매칭의 질과 대비하여 본 분석 결과를 제시하지만, 이 표에서 보여주는 분석에서의 종속변수는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응답자의 기술 수준과 비교하여 적합한지를 나타내는 모조변수이다. (3)열에서 제시하는 점 추정치에 의하면 응답자가 자영업자인 경우 응답자가 임금근로자인 경우보다 현재 하는 일이 응답자의 기술 수준에 비하여 적합할 확률이 7.1%포인트 더 높다. 이 점 추정치는 1% 유의 수준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1)열과 (2)열에 따르면 이와 같은 추정 결과는 꽤 강건하다.

〈표 5-4〉 임금근로자 대비 자영업자의 직업 매칭의 질(50대 이상 중고령층) :  
기술 수준 대비 적합

	기술 수준 대비 적합		
	(1)	(2)	(3)
자영업자	0.051*** (0.006)	0.050*** (0.006)	0.071*** (0.007)
남성		-0.004 (0.006)	-0.010 (0.007)
연령		-0.013*** (0.005)	-0.008* (0.004)
연령 제곱		0.000*** (0.000)	0.000 (0.000)
고졸		-0.035*** (0.008)	-0.061*** (0.008)
전문대 졸		-0.029 (0.019)	-0.072*** (0.019)
대졸		-0.028** (0.013)	-0.073*** (0.013)
석사학위 이상		0.046** (0.020)	-0.026 (0.021)
기혼		0.010 (0.029)	0.039 (0.029)
별거		-0.021 (0.039)	0.010 (0.037)
이혼		-0.017 (0.032)	0.003 (0.032)
사별		0.029 (0.031)	0.069** (0.030)
금융소득(만원)		-0.000 (0.000)	0.000 (0.000)
부동산소득(만원)		0.000* (0.000)	0.000 (0.000)
사회보험 수급액(만원)		-0.000 (0.000)	-0.000 (0.000)
기타 이전소득(만원)		0.000** (0.000)	0.000 (0.000)
기타소득(만원)		0.000 (0.000)	0.000* (0.000)
종사 산업 모조변수			X
거주 시도 모조변수			X
연도 모조변수			X
관측치 수	40,165	40,165	40,165

주: \*\*\* p<0.01, \*\* p<0.05, \* p<0.1. 괄호 안은 표준오차(standard error).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4-22차.

〈표 5-5〉 임금근로자 대비 종업원 있는 자영업자 및 종업원 없는 자영업자의 직업 매칭의 질(50대 이상 중고령층) : 기술 수준 대비 적합

	기술 수준 대비 적합		
	(1)	(2)	(3)
종업원 있는 자영업자	0.078*** (0.008)	0.081*** (0.008)	0.109*** (0.008)
종업원 없는 자영업자	0.042*** (0.007)	0.038*** (0.007)	0.053*** (0.008)
남성		-0.004 (0.006)	-0.010 (0.007)
연령		-0.013*** (0.005)	-0.007* (0.004)
연령 제곱		0.000*** (0.000)	0.000 (0.000)
고졸		-0.038*** (0.008)	-0.063*** (0.008)
전문대 졸		-0.033* (0.019)	-0.078*** (0.019)
대졸		-0.035*** (0.013)	-0.081*** (0.013)
석사학위 이상		0.041** (0.020)	-0.034 (0.022)
기혼		0.007 (0.029)	0.036 (0.029)
별거		-0.025 (0.039)	0.006 (0.038)
이혼		-0.019 (0.032)	0.001 (0.032)
사별		0.027 (0.031)	0.066** (0.031)
금융소득(만원)		-0.000 (0.000)	0.000 (0.000)
부동산소득(만원)		0.000 (0.000)	0.000 (0.000)
사회보험 수급액(만원)		-0.000 (0.000)	-0.000 (0.000)
기타 이전소득(만원)		0.000*** (0.000)	0.000* (0.000)
기타소득(만원)		0.000 (0.000)	0.000* (0.000)
중사 산업 모조변수			X
거주 시도 모조변수			X
연도 모조변수			X
관측치 수	40,067	40,067	40,067

주: \*\*\* p<0.01, \*\* p<0.05, \* p<0.1. 괄호 안은 표준오차(standard error).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4-22차.

<표 5-5>는 50대 이상 중고령층 사이에서 종업원 있는 자영업자와 종업원 없는 자영업자의 직업 매칭의 질이 임금근로자의 직업 매칭의 질에 비하여 어떠한지를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이 표에서 제시하는 분석에서도 <표 5-4>에서 보여주는 분석과 같이 현재 하는 일이 응답자의 기술 수준과 비교하여 적합한지를 보여주는 모조변수가 종속변수이다. (3) 열에서 보여주는 점 추정치들에 따르면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응답자의 기술 수준에 비하여 적합할 확률이 응답자가 종업원 있는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응답자가 임금근로자인 경우보다 10.9%포인트 더 높으며, 응답자가 종업원 없는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응답자가 임금근로자인 경우보다 5.3%포인트 더 높다. 이 점 추정치들은 1% 유의 수준 하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더불어 현재 하는 일이 응답자의 기술 수준과 비교하여 적합할 확률은 응답자가 종업원 있는 자영업자인 경우 응답자가 종업원 없는 자영업자인 경우보다 5.6%포인트 더 높으며, 이 차이 또한 1% 유의 수준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1)열과 (2)열에 의하면 이러한 추정 결과는 상당히 강건하다.

<표 5-6>은 50대 이상 중고령층에서 자영업자의 직업 매칭의 질이 어떠한지를 임금근로자의 직업 매칭의 질과 비교한 분석 결과를 보여주되, 이 표에서 제시하는 분석에서는 현재 응답자가 종사하고 있는 산업이 과거 종사하였던 산업과 일치하는지를 보여주는 모조변수를 종속변수로 사용한다. (3)열에서 보여주는 점 추정치는 응답자가 자영업자인 경우 응답자가 현재 종사하고 있는 산업이 과거 종사했던 산업과 일치할 확률이 7.2%포인트 더 높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점 추정치는 1% 유의 수준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1)열과 (2)열은 이러한 추정 결과가 상당히 강건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표 5-6〉 임금근로자 대비 자영업자의 직업 매칭의 질(50대 이상 중고령층) :  
과거 종사했던 산업과 일치

	과거 종사했던 산업과 일치		
	(1)	(2)	(3)
자영업자	0.067*** (0.004)	0.069*** (0.004)	0.072*** (0.005)
남성		0.031*** (0.005)	0.026*** (0.006)
연령		0.006 (0.009)	-0.005 (0.012)
연령 제곱		-0.000 (0.000)	0.000 (0.000)
고졸		-0.003 (0.005)	-0.006 (0.006)
전문대 졸		0.007 (0.013)	0.006 (0.014)
대졸		0.007 (0.009)	0.011 (0.010)
석사학위 이상		0.054*** (0.012)	0.054*** (0.013)
기혼		-0.018 (0.019)	0.011 (0.018)
별거		-0.022 (0.033)	-0.009 (0.032)
이혼		-0.045** (0.021)	-0.016 (0.021)
사별		-0.042** (0.021)	-0.010 (0.021)
금융소득(만원)		-0.000 (0.000)	-0.000 (0.000)
부동산소득(만원)		-0.000 (0.000)	0.000 (0.000)
사회보험 수급액(만원)		-0.000 (0.000)	-0.000 (0.000)
기타 이전소득(만원)		-0.000 (0.000)	-0.000 (0.000)
기타소득(만원)		-0.000 (0.000)	-0.000 (0.000)
종사 산업 모조변수			X
거주 시도 모조변수			X
연도 모조변수			X
관측치 수	17,789	17,789	17,789

주: \*\*\* p<0.01, \*\* p<0.05, \* p<0.1. 괄호 안은 표준오차(standard error).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4-22차.

〈표 5-7〉 임금근로자 대비 종업원 있는 자영업자 및 종업원 없는 자영업자의 직업 매칭의 질(50대 이상 중고령층) : 과거 종사했던 산업과 일치

	과거 종사했던 산업과 일치		
	(1)	(2)	(3)
종업원 있는 자영업자	0.068*** (0.006)	0.066*** (0.006)	0.070*** (0.007)
종업원 없는 자영업자	0.067*** (0.004)	0.070*** (0.005)	0.074*** (0.006)
남성		0.031*** (0.005)	0.026*** (0.006)
연령		0.005 (0.009)	-0.006 (0.012)
연령 제곱		-0.000 (0.000)	0.000 (0.000)
고졸		-0.003 (0.005)	-0.005 (0.006)
전문대 졸		0.008 (0.013)	0.007 (0.014)
대졸		0.008 (0.009)	0.012 (0.010)
석사학위 이상		0.055*** (0.012)	0.054*** (0.014)
기혼		-0.017 (0.019)	0.011 (0.019)
별거		-0.021 (0.033)	-0.008 (0.032)
이혼		-0.044** (0.021)	-0.016 (0.021)
사별		-0.040* (0.021)	-0.009 (0.022)
금융소득(만원)		-0.000 (0.000)	-0.000 (0.000)
부동산소득(만원)		-0.000 (0.000)	-0.000 (0.000)
사회보험 수급액(만원)		-0.000 (0.000)	-0.000 (0.000)
기타 이전소득(만원)		-0.000 (0.000)	-0.000 (0.000)
기타소득(만원)		-0.000 (0.000)	-0.000 (0.000)
종사 산업 모조변수			X
거주 시도 모조변수			X
연도 모조변수			X
관측치 수	17,736	17,736	17,736

주: \*\*\* p<0.01, \*\* p<0.05, \* p<0.1. 괄호 안은 표준오차(standard error).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4-22차.

<표 5-7>은 50대 이상 중고령층 사이에서 종업원 있는 자영업자와 종업원 없는 자영업자의 직업 매칭의 질이 임금근로자의 직업 매칭의 질과 비교하여 어떠한지를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며, 이 표에서 제시하는 분석에서도 <표 5-6>에서 보여주는 분석에서의 마찬가지로 응답자가 현재 종사하고 있는 산업이 과거 종사하였던 산업과 일치하는지를 나타내는 모조변수를 종속변수로 이용한다. (3)열에서 제시하는 점 추정치들은 응답자가 종업원 있는 자영업자인 경우와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인 경우, 응답자가 임금근로자인 경우보다 현재 종사하고 있는 산업이 과거 종사하였던 산업과 일치할 확률이 각각 7.0%포인트와 7.4%포인트 더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 점 추정치들 모두 1% 유의 수준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다만 응답자가 종업원 있는 자영업자인 경우의 현재 종사하고 있는 산업이 과거 종사했던 산업과 일치할 확률과 응답자가 종업원 없는 자영업자인 경우의 현재 종사하고 있는 산업이 과거 종사하였던 산업과 일치할 확률이 다르다는 증거는 없다. (1)열과 (2)열에 따르면 이와 같은 추정 결과는 꽤 강건하다.

## 2. 청년층 자영업자의 직업 매칭

<표 5-8>은 청년층 사이에서 자영업자의 직업 매칭의 질이 임금근로자의 직업 매칭의 질에 비하여 어떠한지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이 표에서 보여주는 분석의 종속변수는 업무 내용이 응답자의 교육 수준과 비교하여 적합한지를 나타내는 모조변수이다. (3)열에서 제시하는 점 추정치에 의하면 응답자가 자영업자인 경우 응답자가 임금근로자인 경우보다 업무 내용이 응답자의 교육 수준과 비교하여 적합할 확률이 3.6%포인트 더 높다. 이 점 추정치는 1% 유의 수준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하지만 (1)열과 (2)열에 따르면 이러한 추정 결과는 그다지 강건하지 않다.

〈표 5-8〉 임금근로자 대비 자영업자의 직업 매칭의 질 (청년층) : 교육 수준 대비 적합

	교육 수준 대비 적합		
	(1)	(2)	(3)
자영업자	0.002 (0.008)	-0.008 (0.008)	0.036*** (0.008)
남성		-0.008 (0.005)	0.004 (0.005)
연령		0.021*** (0.005)	0.018*** (0.005)
연령 제곱		-0.000*** (0.000)	-0.000*** (0.000)
고졸		-0.016 (0.037)	-0.051 (0.036)
전문대 졸		-0.002 (0.037)	-0.054 (0.036)
대졸		0.012 (0.037)	-0.057 (0.036)
석사학위 이상		0.024 (0.038)	-0.061* (0.037)
기혼		0.010** (0.006)	0.012** (0.005)
별거		-0.085 (0.091)	-0.050 (0.075)
이혼		-0.014 (0.034)	0.005 (0.034)
사별		0.084*** (0.008)	0.123*** (0.034)
금융소득(만원)		-0.000 (0.000)	-0.000 (0.000)
부동산소득(만원)		-0.000** (0.000)	-0.000 (0.000)
기타소득(만원)		-0.000 (0.000)	-0.000 (0.000)
종사 산업 모조변수			X
거주 시도 모조변수			X
연도 모조변수			X
관측치 수	37,715	37,715	37,715

주: \*\*\* p<0.01, \*\* p<0.05, \* p<0.1. 괄호 안은 표준오차(standard error).  
자료: 청년패널조사 1-13차.

〈표 5-9〉 임금근로자 대비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및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직업 매칭의 질 (청년층) : 교육 수준 대비 적합

	교육 수준 대비 적합		
	(1)	(2)	(3)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0.010 (0.015)	-0.001 (0.016)	0.045*** (0.014)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0.001 (0.009)	-0.010 (0.009)	0.033*** (0.009)
남성		-0.008* (0.005)	0.004 (0.005)
연령		0.021*** (0.005)	0.018*** (0.005)
연령 제곱		-0.000*** (0.000)	-0.000*** (0.000)
고졸		-0.016 (0.037)	-0.051 (0.036)
전문대 졸		-0.002 (0.037)	-0.054 (0.036)
대졸		0.012 (0.037)	-0.057 (0.036)
석사학위 이상		0.024 (0.038)	-0.061* (0.037)
기혼		0.010* (0.006)	0.012** (0.005)
별거		-0.085 (0.092)	-0.049 (0.075)
이혼		-0.014 (0.034)	0.005 (0.034)
사별		0.084*** (0.008)	0.123*** (0.034)
금융소득(만원)		-0.000 (0.000)	-0.000 (0.000)
부동산소득(만원)		-0.000** (0.000)	-0.000 (0.000)
기타소득(만원)		-0.000 (0.000)	-0.000 (0.000)
종사 산업 모조변수			X
거주 시도 모조변수			X
연도 모조변수			X
관측치 수	37,715	37,715	37,715

주 : \*\*\* p<0.01, \*\* p<0.05, \* p<0.1. 괄호 안은 표준오차(standard error).  
자료 : 청년패널조사 1-13차.

<표 5-9>는 청년층에서 종업원 있는 자영업자와 종업원 없는 자영업자의 직업 매칭의 질이 임금근로자의 직업 매칭의 질과 비교하여 어떠한지를 살펴본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표 5-8>에서 제시하는 분석에서와 같이 이 표에서 보여주는 분석에서도 종속변수는 업무 내용이 응답자의 교육 수준에 비하여 적합한지를 나타내는 모조변수이다. (3)열에서 보여주는 점 추정치들은 업무 내용이 응답자의 교육 수준과 비교하여 적합할 확률이 응답자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인 경우 응답자가 임금근로자인 경우보다 4.5%포인트 더 높으며, 응답자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인 경우 응답자가 임금근로자인 경우보다 3.3%포인트 더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 점 추정치들 모두 1% 유의 수준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하지만 (1)열과 (2)열에 따르면 이러한 추정 결과는 그렇게 강건하지 않다. 응답자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인 경우의 업무 내용이 교육 수준에 비하여 적합할 확률과 응답자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인 경우의 업무 내용이 교육 수준과 비교하여 적합할 확률이 다르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다.

<표 5-10>도 청년층에서 자영업자의 직업 매칭의 질이 임금근로자의 직업 매칭의 질과 비교하여 어떠한지 살펴본 분석 결과를 보여주지만, 이 표에서 제시하는 분석에서 사용하는 종속변수는 업무 내용이 응답자의 기술 수준에 비하여 적합한지를 보여주는 모조변수이다. (3)열에서 제시하는 점 추정치는 업무 내용이 응답자의 기술 수준과 비교하여 적합할 확률이 응답자가 자영업자인 경우 응답자가 임금근로자인 경우보다 2.7%포인트 더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 점 추정치는 1% 유의 수준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그러나 (1)열과 (2)열에 의하면 이와 같은 추정 결과는 그렇게 강건하지 않다.

<표 5-11>은 청년층 사이에서 종업원 있는 자영업자와 종업원 없는 자영업자의 직업 매칭의 질이 어떠한지 임금근로자의 직업 매칭의 질과 비교하여 본 결과를 제시하되, <표 5-10>에서 보여주는 분석에서처럼 이 표에서 보여주는 분석에서도 업무내용이 응답자의 기술 수준에 비하여 적합한지를 나타내는 모조변수를 종속변수로 이용한다. (3)열에서 보여주는 점 추정치들에 따르면 응답자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인 경우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인 경우, 응답자가 임금근로자인 경우보다 업무 내

〈표 5-10〉 임금근로자 대비 자영업자의 직업 매칭의 질(청년층) : 기술 수준 대비 적합

	기술 수준 대비 적합		
	(1)	(2)	(3)
자영업자	-0.010 (0.008)	-0.019** (0.009)	0.027*** (0.008)
남성		-0.010** (0.005)	0.005 (0.005)
연령		0.025*** (0.005)	0.022*** (0.005)
연령 제곱		-0.000*** (0.000)	-0.000*** (0.000)
고졸		-0.007 (0.041)	-0.048 (0.041)
전문대 졸		0.015 (0.041)	-0.046 (0.041)
대졸		0.035 (0.041)	-0.045 (0.041)
석사학위 이상		0.058 (0.042)	-0.042 (0.042)
기혼		0.012** (0.006)	0.013** (0.005)
별거		0.013 (0.088)	0.048 (0.086)
이혼		-0.030 (0.036)	-0.007 (0.037)
사별		0.079*** (0.009)	0.126*** (0.049)
금융소득 (만원)		-0.000 (0.000)	-0.000 (0.000)
부동산소득 (만원)		0.000 (0.000)	0.000* (0.000)
기타소득 (만원)		-0.000 (0.000)	-0.000 (0.000)
종사 산업 모조변수			X
거주 시도 모조변수			X
연도 모조변수			X
관측치 수	37,715	37,715	37,715

주: \*\*\* p<0.01, \*\* p<0.05, \* p<0.1. 괄호 안은 표준오차(standard error).  
자료: 청년패널조사 1-13차.

〈표 5-11〉 임금근로자 대비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및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직업 매칭의 질(청년층) : 기술 수준 대비 적합

	기술 수준 대비 적합		
	(1)	(2)	(3)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0.010 (0.015)	-0.002 (0.016)	0.048*** (0.014)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0.016* (0.009)	-0.025*** (0.009)	0.020** (0.009)
남성		-0.011** (0.005)	0.004 (0.005)
연령		0.025*** (0.005)	0.022*** (0.005)
연령 제곱		-0.000*** (0.000)	-0.000*** (0.000)
고졸		-0.007 (0.041)	-0.048 (0.041)
전문대 졸		0.015 (0.041)	-0.046 (0.041)
대졸		0.035 (0.041)	-0.045 (0.041)
석사학위 이상		0.058 (0.042)	-0.042 (0.042)
기혼		0.011** (0.006)	0.013** (0.005)
별거		0.014 (0.089)	0.050 (0.086)
이혼		-0.029 (0.036)	-0.007 (0.037)
사별		0.079*** (0.009)	0.126*** (0.049)
금융소득(만원)		-0.000 (0.000)	-0.000 (0.000)
부동산소득(만원)		0.000 (0.000)	0.000 (0.000)
기타소득(만원)		-0.000 (0.000)	-0.000 (0.000)
종사 산업 모조변수			X
거주 시도 모조변수			X
연도 모조변수			X
관측치 수	37,715	37,715	37,715

주 : \*\*\* p<0.01, \*\* p<0.05, \* p<0.1. 괄호 안은 표준오차(standard error).  
자료 : 청년패널조사 1-13차.

용이 응답자의 기술 수준과 비교하여 적합할 확률이 각각 4.8%포인트와 2.0%포인트 더 높으며, 이 점 추정치들은 모두 1% 유의 수준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또한 이 점 추정치들에 의하면 업무 내용이 응답자의 기술 수준에 비하여 적합할 확률은 응답자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인 경우 응답자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인 경우보다 2.8%포인트 더 높으며, 이 차이는 10% 유의 수준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하지만 (1)열과 (2)열은 이러한 추정 결과가 그렇게 강건하지는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표 5-12> 또한 청년층에서 자영업자의 직업 매칭의 질이 어떠한지 임금근로자의 직업 매칭의 질과 비교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지만, 이 표에서 보여주는 분석에서는 업무 내용이 응답자의 전공과 일치하는지를 나타내는 모조변수를 종속변수로 이용한다. (3)열에서 제시하는 점 추정치에 따르면 응답자가 자영업자인 경우 업무 내용이 응답자의 전공과 일치할 확률이 응답자가 임금근로자인 경우보다 2.3%포인트 더 낮다. 이 점 추정치는 10% 유의 수준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1)열과 (2)열은 이러한 추정 결과가 비교적 강건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표 5-13>은 청년층 사이에서 종업원 있는 자영업자와 종업원 없는 자영업자의 직업 매칭의 질이 임금근로자의 직업 매칭의 질과 비교하여 어떠한지 살펴본 결과를 보여주되, <표 5-12>에서 제시한 분석에서처럼 이 표에서 보여주는 분석에서도 업무 내용이 응답자의 전공과 일치하는지를 나타내는 모조변수를 종속변수로 사용한다. (3)열에서 제시하는 점 추정치에 의하면 응답자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인 경우의 업무 내용이 전공과 일치할 확률과 응답자가 임금근로자인 경우의 업무 내용이 전공과 일치할 확률이 다르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다. 하지만 다른 점 추정치는 응답자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인 경우 업무 내용이 응답자의 전공과 일치할 확률이 응답자가 임금근로자인 경우보다 2.9%포인트 낮다는 점을 보여주며, 이 점 추정치는 5% 유의 수준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1)열과 (2)열에 따르면 이와 같은 추정 결과는 비교적 강건하다.

〈표 5-12〉 임금근로자 대비 자영업자의 직업 매칭의 질(청년층) : 전공과 일치

	전공과 일치		
	(1)	(2)	(3)
자영업자	-0.074*** (0.013)	-0.072*** (0.013)	-0.023* (0.012)
남성		-0.021*** (0.007)	-0.001 (0.007)
연령		0.031*** (0.006)	0.024*** (0.006)
연령 제곱		-0.000*** (0.000)	-0.000*** (0.000)
고졸		0.059 (0.071)	0.023 (0.066)
전문대 졸		0.110 (0.071)	0.048 (0.066)
대졸		0.160** (0.071)	0.080 (0.066)
석사학위 이상		0.225*** (0.071)	0.122* (0.067)
기혼		0.002 (0.008)	0.010 (0.007)
별거		-0.082 (0.126)	-0.027 (0.108)
이혼		-0.132*** (0.045)	-0.101** (0.042)
사별		0.131*** (0.014)	0.219*** (0.071)
금융소득(만원)		-0.000 (0.000)	-0.000 (0.000)
부동산소득(만원)		-0.000*** (0.000)	-0.000 (0.000)
기타소득(만원)		-0.000*** (0.000)	-0.000*** (0.000)
종사 산업 모조변수			X
거주 시도 모조변수			X
연도 모조변수			X
관측치 수	37,715	37,715	37,715

주: \*\*\* p<0.01, \*\* p<0.05, \* p<0.1. 괄호 안은 표준오차(standard error).  
자료: 청년패널조사 1-13차.

〈표 5-13〉 임금근로자 대비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및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직업 매칭의 질(청년층) : 전공과 일치

	전공과 일치		
	(1)	(2)	(3)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0.053** (0.025)	-0.053** (0.026)	-0.005 (0.023)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0.080*** (0.014)	-0.078*** (0.014)	-0.029** (0.013)
남성		-0.021*** (0.007)	-0.001 (0.007)
연령		0.031*** (0.006)	0.025*** (0.006)
연령 제곱		-0.000*** (0.000)	-0.000*** (0.000)
고졸		0.059 (0.071)	0.023 (0.066)
전문대 졸		0.109 (0.071)	0.048 (0.066)
대졸		0.160** (0.071)	0.080 (0.066)
석사학위 이상		0.225*** (0.071)	0.122* (0.066)
기혼		0.002 (0.008)	0.010 (0.007)
별거		-0.081 (0.127)	-0.026 (0.109)
이혼		-0.132*** (0.045)	-0.100** (0.043)
사별		0.131*** (0.014)	0.219*** (0.071)
금융소득(만원)		-0.000 (0.000)	-0.000 (0.000)
부동산소득(만원)		-0.000*** (0.000)	-0.000 (0.000)
기타소득(만원)		-0.000*** (0.000)	-0.000*** (0.000)
종사 산업 모조변수			X
거주 시도 모조변수			X
연도 모조변수			X
관측치 수	37,715	37,715	37,715

주 : \*\*\* p<0.01, \*\* p<0.05, \* p<0.1. 괄호 안은 표준오차(standard error).  
자료 : 청년패널조사 1-13차.

## 제5절 소 결

자영업자의 직업 매칭의 질은 자영업 노동시장에서의 인적 자원 배분의 효율성 및 자영업자의 노동시장 성과와 자아실현을 고려할 때 상당히 중요한 연구 주제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 고용구조의 변화와 추이 및 자영업자의 특성과 소득(금재호 외, 2009) 또는 자영업자의 경영실태(홍민기·오상봉, 2018; 오상봉·김명수, 2019; 홍민기 외, 2020)를 살펴본 기존 연구 문헌은 찾을 수 있으나, 자영업자의 직업 매칭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이 장의 연구에서는 고용취약계층에 속하는 50대 이상 중고령층과 청년층(이재성 외, 2016) 사이에서 자영업자의 직업 매칭의 질이 임금근로자의 직업 매칭의 질과 비교하여 어떠한지 살펴보고, 현재의 실정에 맞는 창업지원정책이나 다른 자영업 관련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과학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 장의 연구에서는 50대 이상 중고령층 자영업자의 직업 매칭의 질에 대해서 분석할 때에는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청년층 자영업자의 직업 매칭의 질에 관하여 분석할 시에는 청년패널조사를 이용하였다. 두 분석에서 모두 선형 확률 모형을 추정하였다.

이렇게 얻은 분석 결과에 따르면 50대 이상 중고령층 사이에서는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에 비하여 교육 수준이나 기술 수준과 비교하여 적합한 일을 하고 있을 확률이 더 높으며, 과거 종사하였던 산업에서 일하고 있을 확률도 더 높다. 종업원 있는 자영업자와 종업원 없는 자영업자 모두에게서 이러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반면 청년층 사이에서는 자영업자, 그중에서도 특히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임금근로자와 비교하여 업무 내용이 자신의 전공과 일치할 확률이 더 낮다.

이러한 발견은 50대 이상 중고령층에서는 자영업 노동시장이 임금근로자 노동시장에 비하여 인적 자원의 낭비가 적으며, 자영업자들이 임금근로자들과 비교하여 노동시장 성과나 자아실현의 측면에서 보다 나은 기회를 누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를 고려하면 50대

이상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지원정책이나 자영업 관련 대책과 관련해서는 창업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적합한 창업 기회를 찾아주는 일도 여전히 그 중요성을 부정하기는 어렵지만,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의 공정 거래를 확립하는 일 등에 더 많은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동시에 이 연구의 분석 결과는 50대 이상 중고령층과는 대조적으로 청년층의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들은 자신들이 학창 시절 배우고 익힌 지식을 활용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청년층의 경우 임금근로자 노동시장과 비교하여 자영업 노동시장에서는 인적 자원의 낭비가 발생하는 비효율성이 존재하며,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들이 노동시장 성과 또는 자아실현의 관점에서 충분한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고려하면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지원정책이나 자영업 관련 대책에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창업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자신들이 학창 시절 배운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창업 기회를 찾아주는 일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 제 6 장

###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개별 취업자로서 자영업자의 노동이동과 삶의 질의 실태가 어떠한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노동이동 분석은 생애사적 차원에서 자영업 경험자의 노동시장 이력을 분석하고, 특정 사회인구집단으로서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형태로서 자영업 진입의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본 분석은 결혼, 출산, 육아의 생애주기 시점을 포괄하는 핵심 노동 연령대와 가족돌봄을 이유로 경력단절을 겪은 여성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중·고령 및 청년에 집중된 기존 자영업자의 노동이동 분석의 대상을 확대하는 데 기여한다. 삶의 질 분석은 자영업자들의 건강상태와 직업 매칭 질에 대해 분석한다. 임금근로자와의 비교를 통한 자영업자들의 건강과 직업 매칭 질의 실태 파악은 취업자로서 자영업자의 일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방향 설계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치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2장은 자영업 경험자들의 첫 일자리 시작부터 25년에 걸친 노동이력을 분석하고, 유사한 노동이력을 가지는 집단을 유형화하여 노동이력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았다. 배열분석 및 군집분석의 결과, 자영업 경험자의 노동이력은 ① 상용직으로 일하다 다른 종사상지위로 전환되기도 하지만 대체로 오래 상용직을 지속하는 집단, ② 상용직에서 일정기간 지속 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고용주)로 전환되거나 고용주로 첫 일자리 시작 후 지속하는 집단, ③ 상용직 또는 임시일용직에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자영자)로 전환하거나 자영자로 시작하여 지속하는 집단, ④ 대체로

무급가족종사자를 오래 지속하는 집단, ⑤ 상용직이나 임시일용직으로 시작해서 다른 종사상지위나 실직 상태로 잦은 전환이 일어나는 집단, ⑥ 임시일용직을 오래 지속하는 집단, ⑦ 상용직을 오래 지속하다 퇴직하는 집단, ⑧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에서 비교적 이른 시기에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집단으로 총 8개의 유형으로 요약되었다.

노동이력 유형별 인적 특성과 소득을 비교한 결과,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고용주)의 지위를 오랜 기간 동안 지속하는 유형2가 학력과 소득이 가장 높은 집단으로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는 상용직을 오랜 기간 유지하는 집단인 유형1이 학력과 소득 모두에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자영업 경험자의 생애 첫 일자리 시작부터 25년간의 노동이력을 살펴본 결과, 많이 알려진 바와 같이 임금근로자에서 조기 퇴직 후 자영업에 진출하는 개인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여러 종사상지위를 거쳐 자영업에 진출하거나, 자영업을 거쳐 다시 임금근로자나 무직 상태로 전환되는 경우도 관측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이 자영업을 오랜 기간 지속하는 경우보다 자영업에서의 경력을 축적하기 전에 다른 종사상지위로 옮겨가는 단기간 자영업 경험자들에게 더욱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큰 틀에서는 자영업으로의 안정적인 진입과 퇴출을 돕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정책이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자영업 집단 내 이질성을 고려한 개인 맞춤형 컨설팅과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의 정책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제3장은 경력단절 여성의 노동시장 재취업 형태별 진입 패턴을 살펴보고, 자영업으로의 진입에 인적자본 특성, 가족요인 그리고 노동시장 경력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경력단절 직전 일자리를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으로 구분하여, 직전 일자리의 종사상지위에 따른 자영업 진입의 특성 차이를 비교하였다.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결정요인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30대 후반에서 40대 연령대 여성의 재취업 가능성이 컸다. 이는 학령기 아동을 둔 어머니의 연령대로 여성 고용률의 M자 곡선이 30대 후반에 다시 증가하는 것과 일치하는 현상이다. 특히,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경력단절 여성의 재

취업 가능성이 낮게 나타나 가족돌봄을 이유로 경력단절을 겪고 있는 여성에게 있어 자녀돌봄이 재취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가구소득이 높은 경우 경력단절 탈출 가능성이 낮았다. 노동시장 경력의 영향을 보면, 직전 일자리가 상용직일수록, 현재 까지 노동시장에서 가졌던 일자리 수가 많을수록 경력단절 상태를 벗어날 가능성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노동시장 이탈 이전 노동시장에서 다양한 일자리 경험뿐 아니라 안정적인 지위에서 일한 경험이 경력단절 상태 이탈에 긍정적 영향요인임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재취업 상태를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 연령은 임시·일용직으로의 재취업에만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전체 재취업 결정요인에서 확인되었던 고등학생 이하 자녀 존재의 부정적 영향은 상용직 및 임시·일용직으로의 재취업에서 모두에서 나타나 자녀돌봄의 책임이 임금근로자로의 재취업에 부정적 영향요인임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높은 가구소득은 임시·일용직으로 재취업할 가능성을 유의미하게 낮추지만, 상용직으로의 재취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가구의 경제적 여건이 좋을수록 경력단절 여성이 불안정한 일자리를 통해서라도 노동시장에 복귀해야 할 필요성이 줄어들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경력단절 이전 노동시장에서 축적한 경력 중 상용직 일자리의 경력이 길수록 임시 및 일용직 재취업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낮고, 직전 일자리가 상용직이었던 경우에도 임시 및 일용직에 비해 상용직으로 재취업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경력단절 이전 안정적인 종사상지위를 통해 축적한 경력은 경력단절 상태를 벗어나 재취업 시 안정적인 지위를 가지는 데 중요한 영향요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경력단절 여성의 자영업 진입 결정요인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체 여성의 자영업 진입 결정요인 결과는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자영업 진입 해저드는 감소하였다. 이는 기존의 여성 자영업 결정요인 연구에서 확인된 학력이 높을수록 자영업보다는 임금근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경력단절 여성들의 자영업 진입에도 유사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경력단절 이전까지 노동시장에서 축적한 상용직 경력이 많을수록 자영업 진입 가능성이 줄어들었으며, 경력

단절 이전 일자리가 자영업 및 고용주일수록 자영업 진입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또한 주관적으로 건강할수록 자영업 진입을 통해 경력단절 상태를 벗어날 가능성이 낮았다. 두 번째, 경력단절 직전 일자리를 임금근로와 비임금근로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높은 학력의 부정적 영향이 임금근로 이후 경력단절 여성에게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임금근로 이후 경력단절 상태에 있는 30대 여성의 경우만 20대에 비해 자영업 진입 확률이 높게 나타나, 자영업이 노동시장 재진입을 위한 하나의 경로로 작용하는 기제는 임금근로 이후 특정 연령대의 여성에게 국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배우자의 존재 또한 임금근로 이후 경력단절 여성의 자영업 진입에만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배우자의 경제활동 여부에 상관없이 배우자의 존재는 자영업 진입 가능성을 높였다. 상용직 임금경력의 부정적 효과 또한 임금근로 이후 경력단절 여성에게만 확인되었다. 세 번째, 임금근로 이후 경력단절 여성을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여부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고등학생 이하 자녀 존재는 상용직 이후 경력단절 여성이 자영업 진입을 통해 경력단절 상태를 이탈할 가능성을 줄였다. 돌봄이 필요한 자녀의 존재가 여성의 자영업 선택의 주요 요인으로 알려졌지만, 상용직 일자리를 가족돌봄의 이유로 그만둔 경력단절 여성에게 학령기 자녀 존재는 자영업 진입을 통한 경력단절 탈출보다는 경력단절 상태를 지속하게 하는 요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앞의 임금근로 이후 경력단절 여성의 자영업 진입 분석에서 확인된 배우자 존재의 긍정적인 영향과 상용직 임금근로 경력의 부정적 영향은 상용직 일자리를 가졌던 경우에만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임시·일용직 이후 경력단절 상태에 있는 여성은 30-40대 초반까지 자영업을 통한 경력단절 이탈 가능성이 크고, 직전 일자리가 비상용직일지라도 임금 수준이 높았던 일자리였다면 자영업을 통한 경력단절 가능성이 줄어들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가족돌봄 등의 이유로 경력단절 상태에 있는 여성에게 학령기 자녀의 존재는 재취업 일자리의 종사상지위에 상관없이 재취업의 저해요인으로 확인될 뿐 아니라 상용직 일자리 이후 경력단절 상태에 있는 여성의 자영업 진입에도 부정적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력단절 이전 안정적 지위에서 축적한 노동시장 경력은 노동시장

재진입을 유리하게 하며, 임시·일용직 일자리로의 재취업과 자영업 진입의 가능성을 낮추는 역할을 하였다. 자영업 진입을 통한 경력단절 상태 이탈에 있어 여성 개인의 인적 특성, 가족요인 그리고 노동시장 경력미치는 영향은 경력단절 이전 일자리의 임금 및 비임금 여부, 그리고 종사상지위에 따라 달랐다. 이러한 결과는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서비스가 각 개인의 노동시장 경력을 바탕으로 특화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창업을 통한 재취업이 자영업 분야의 경력을 가진 경우에 선택되는 경력단절 탈출 경로라는 점에서 창업 지원서비스가 이전 자영업 경험을 세분화하여 상담 및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4장은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의 건강상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한 연구이다.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간에 건강 및 건강행동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종사상지위가 건강상태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를 추정하였다. 주관적 건강지표, 객관적 건강지표, 건강행동 등 다양한 변수를 활용하여 다각도로 건강상태를 확인하였으며, 자영업자 구성의 이질성을 고려하여 고용주와 자영자로 구분하여 임금근로자에 비해 이 두 그룹의 건강상태가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관적 건강지표로 확인했을 때 임금근로자에 비해 자영자의 주관적 건강이 나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용주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종사상지위가 건강에 미친 인과관계를 추정한 결과는 종업원 유무에 관계없이, 즉 고용주인지 자영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자영업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의 건강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객관적 건강지표로 종사상지위와 건강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에도 주관적 건강지표와 유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종사상지위와 건강행동(격렬한 신체활동 일수, 과거 및 현재 흡연 여부, 과음 횟수) 간에는 유의한 인과적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자영업자의 건강상태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며, 이는 건강하지 못한 개인이 자영업을 선택하여

나타난 결과가 아닌 자영업이 건강에 미친 인과적 효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자료상의 한계로 인해 자영업의 어떤 특성이 자영업자의 건강을 악화시키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은 확인할 수 없었으나, 우리나라 자영업의 특성과 선행 연구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소득 상실, 재해, 폐업 등의 위험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데서 오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더불어 장시간 근로 및 열악한 근로환경 등이 자영업자들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일 것으로 짐작된다.

자영업자의 경제적 취약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되어 왔다. 이를 반영하여 정부는 2005년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시작으로 경영지원, 혁신, 자생력 강화, 규제혁신 등을 목표로 이들에 대한 정책을 꾸준히 내놓고 있다. 이에 더해 본 연구의 결과는 자영업자들의 건강 제고 측면에서의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정신적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근로 환경으로 인한 건강 악화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해결책 마련이 요구된다.

불충분한 의료이용과 건강검진 미수진으로 인한 질병의 악화는 개인의 의료비용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연결된다. 또한 건강검진을 포함한 의료이용의 격차는 종사상지위 간 건강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사전적이고 예방적 대책으로서 자영업자들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고 건강검진 수진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제도’를 통해 유급휴가가 없어 병원 방문이 어려운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종사자, 1인 영세자영업자 등의 근로취약계층에 입원과 건강검진으로 인한 근로소득 손실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대전·성남 등의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또한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를 자영업자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대상자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제5장은 50대 이상 중고령층과 청년층 자영업자의 직업 매칭의 질이 임금근로자의 직업 매칭의 질과 비교하여 어떠한지 살펴보아, 현재의 실정에 맞는 창업지원정책이나 다른 자영업 관련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과학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 연구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50대 이상 중고령층 사이에서는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에 비하여 교육 수준이나 기술 수준과 비교하여 적합한 일을 하고 있을 확률이 더 높으며, 과거에 종사하였던 산업에서 일하고 있을 확률도 더 높다. 중업원 있는 자영업자와 중업원 없는 자영업자 모두에게서 이러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반면 청년층 사이에서는 자영업자, 그중에서도 특히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임금근로자와 비교하여 업무 내용이 자신의 전공과 일치할 확률이 더 낮다.

이러한 발견은 50대 이상 중고령층에서는 자영업 노동시장이 임금근로자 노동시장에 비하여 인적 자원의 낭비가 적으며, 자영업자들이 임금근로자들과 비교하여 노동시장 성과나 자아실현의 측면에서 보다 나은 기회를 누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를 고려하면 50대 이상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지원정책이나 자영업 관련 대책과 관련해서는 창업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적합한 창업 기회를 찾아주는 일도 여전히 그 중요성을 부정하기는 어렵지만,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의 공정 거래를 확립하는 일 등에 더 많은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동시에 이 연구의 분석 결과는 50대 이상 중고령층과는 대조적으로 청년층의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들은 자신들이 학창 시절 배우고 익힌 지식을 활용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청년층의 경우 임금근로자 노동시장과 비교하여 자영업 노동시장에서는 인적 자원의 낭비가 발생하는 비효율성이 존재하며,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들이 노동시장 성과 또는 자아실현의 관점에서 충분한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고려하면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지원정책이나 자영업 관련 대책에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창업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자신들이 학창 시절 배운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창업 기회를 찾아주는 일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강순희(2016), 「취업청년의 초기 일자리 변동과 고용안정성」, 『한국청소년연구』 27(4), pp.5~29.
- 강순희·안준기(2010), 「대졸자의 실업경험의 낙인효과」, 『한국경제연구』 28(2), pp.201~231.
- 권명진·김선애(2019),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삶의 질 영향 요인에 대한 융합적 고찰」, 『한국융합학회논문지』 10(9), pp.333~342.
- 금재호·김기승·조동훈·조준모(2009), 『자영업 노동시장 연구(I) - 자영업의 변화 추이와 특성』, 한국노동연구원.
- 김난주(2016),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과 재취업 이후 고용유지 분석」, 『산업관계연구』 26(2), pp.1~27.
- 김우영(2009), 「자영업자의 이질성과 취약자영계층에 대한 정책과제」, 『200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pp.230~269.
- 김이선·이상직·권현지(2019), 「위기 속 노동시장 진입 세대의 노동이동을 통해 본 위기 후 한국 여성노동시장」, 『한국여성학』 35(1), pp.1~37.
- 김일광(2018), 「우리나라 자영업 업체 현황과 재무특성에 관한 연구 - 산업별 비중 및 창·폐업, 생존기간 분석을 중심으로」, 『지역산업연구』 41(3), pp.343~364.
- 김정원(2021),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경험에 관한 질적 메타분석」, 『여성연구』 108(1), pp.131~160.
- 김종숙 외(2011), 『경력단절의 임금손실 추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주영(2010), 「여성의 경력단절과 노동시장 재진입」, 『노동리뷰』 8월호, pp.36~50.
- 남윤미(2017), 「국내 자영업의 폐업률 결정요인 분석」, 『BOK 경제연구』 제2017-5호, pp.1~27.

- 민무숙 · 정혜숙 · 신선미 · 이택면 · 최윤정(2013), 『경력단절여성 대상별 취업지원 활성화 방안』, 여성가족부.
- 민현주 · 이수경(2018), 「중·고령자의 노동시장지위 변화 유형화: 중심 추세모형 (Group-based Trajectory Model)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논총』 34(2), pp.169~194.
- 박경숙 · 김영혜(2003), 「한국 여성의 생애 유형: 저출산과 M 자형 취업 곡선에의 함의」, 『한국인구학』 26(2), pp.63~90.
- 방하남 · 신인철(2011), 「강요된 선택: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과 재취업의 동학분석」, 『한국사회학』 45(1), pp.73~108.
- 성재민(2018), 『자영업 분석 인프라 구축 및 자영업의 동태적 변화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 성지미(2002), 「여성의 자영업 결정요인과 경력단절 가능성」, 『노동경제논집』 25(1), pp.1~20.
- 손연정(2019), 「중고령층 노동이동과 자영업 소득」, 『노동리뷰』 9월호, pp.32~45.
- 신재열 · 김중성(2020), 「청년층의 자영업 진입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15(1), pp.247~257.
- 안수지(2020),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의 의료 이용 차이: 시간의 기회비용 관점에서」, 『경제학연구』 68(4), pp.119~153.
- 안주엽 · 홍서연(2002), 「청년층의 첫 일자리 진입: 경제위기 전후의 비교」, 『노동경제논집』 25(1), pp.47~74.
- 오상봉 · 김명수(2019), 『자영업 경영상황의 동태적 변화 연구(Ⅱ)』, 한국노동연구원.
- 이병희(2002), 「노동시장 이행 초기 경험의 지속성에 관한 연구」, 『노동정책연구』 2(1), pp.1~18.
- 이상영 · 신현웅(2012), 「자영업자의 건강실태와 의료 이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 방안」, 『보건복지포럼』 194, pp.62~73.
- 이승렬 · 손연정(2018), 『중고령 자영업자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이유진 · 김의준(2014), 「기혼여성 재취업의 동태적 분석: 고학력 집단을 중심으로」, 『경제연구』 32(4), pp.87~114.

- 이재성 · 정한나 · 안준기 · 김하영(2016), 『고용취약계층의 경제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고용정보원.
- 임은정 · 오상도(2018), 「경력단절여성의 개인특성과 자아존중감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가족지지 조절효과」, 『한국창업학회 2018 춘계학술대회 발표집』, pp.97~107.
- 임진(2016), 「최근 자영업 고용 현황 및 시사점」, 『금융포커스』 25(30), pp.12~13.
- 장정연 · 이주현 · 권기현(2019), 「경력단절여성의 좋은 일자리 재취업 영향요인 분석」, 『여성경제연구』 16(2), pp.51~75.
- 장지연(2003), 「중·고령자의 경력이동: 대안적 은퇴과정으로서의 근로시간단축과 자영업창업의 비중」, 『한국사회학』 37(2), pp.95~121.
- 장지연 외(2009), 『중·고령자 근로생애사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전해진 · 박재환(2015), 「창업생태계 변화가 여성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0(2), pp.85~96.
- 정석영 · 김응규 · 김우영(2020), 「자영업의 증가는 경제성장과 실업률에 영향을 미치는가?」, 『산업경제연구』 33(6), pp.1937~1959.
- 정이환(2013), 「기업내부노동시장의 변화, 1982~2007: 직종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7(5), pp.209~240.
- 정인구 · 양동우(2020), 「경력단절여성의 계획된 우연역량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개인 환경요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5(5), pp.129~143.
- 정진성 · 장지연(2001), 「여성 비임금근로자의 특성과 생애경력」, 『성곡논총』 32(3), pp.53~83.
- 정혜주 · 민윤경 · 변보경(2019), 「대출 여성의 경력 유형화를 통한 경력 단절 해소 방안 연구」, 『여성연구』 100(1), pp.69~96.
- 조동훈(2013), 「자영업 결정요인 국제 비교 분석: 산업과 가족구조 효과」, 『산업관계연구』 23(2), pp.127~146.
- 지민웅 · 박진 · 박양신(2020), 『취업자로서의 소상공인 진입 및 퇴출 결정요인 분석』, 산업연구원.

- 최강식·정진욱·정진화(2005), 「자영업 부문의 소득분포 및 소득결정요인: 분위회귀분석」, 『노동경제논집』 28(1), pp.135~156.
- 최민정(2015), 「경력단절 여성 지원정책의 현황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227, pp.62~73.
- 통계청(2021), 『2020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 홍민기·오상봉(2018), 『자영업 경영상황의 동태적 변화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 홍민기·오상봉·노승욱(2020), 『자영업 경영상황의 동태적 변화 연구(Ⅲ)』, 한국노동연구원.
- 황선주(2017), 「경력단절여성의 개인 특성과 창의성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한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bbott, A., and A. Tsay(2000), “Sequence analysis and optimal matching methods in sociology”, Review and prospect.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29, pp.3~33.
- Andersson, Pernilla(2008), “Happiness and health: Well-being among the self-employed,” *Journal of Socio-Economics* 37(1), pp.213~236.
- Baetschmann, Gregori, Kevin E. Staub, and Rainer Winkelmann (2015), “Consistent estimation of the fixed effects ordered logit model,” *Journal of the Royal Statistical Society: Series A (Statistics in Society)* 178(3), pp.685~703.
- Bonneuil, Noël and Kim, Younga(2017), “Precarious employment among South Korean women: Is inequality changing with time?”, *The Economic and Labour Relations Review* 28(1), pp.20~40.
- Brzinsky-Fay C., Kohler U., Luniak M.,(2006), “Sequence analysis with Stata”, *Stata Journal* 6(4), pp.435~460.
- Halpin B.(2017), “SADI: Sequence Analysis Tools for Stata,” *The Stata Journal* 17(3), pp.546~572.

- Kwon, H. K.(2009), “Interaction of External Family Support and Economic Pressure on Marital Satisfaction Under the Economic Crisi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7(5), pp.59~68.
- Prottas, David J., and Cynthia A. Thompson(2006), “Stress, satisfaction, and the work-family interface : a comparison of self-employed business owners, independents, and organizational employees”,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11(4), pp.366~378.
- Rietveld, Cornelius A., Hans van Kippersluis, and A. Roy Thurik(2015), “Self employment and health : Barriers or benefits?,” *Health economics* 24(10), pp.1302~1313.
- Stephan, Ute, and Ulrike Roesler(2010), “Health of entrepreneurs versus employees in a national representative sample,” *Journal of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83(3), pp.717~738.
- Van der Zwan, Peter, Roy Thurik, Ingrid Verheul, and Jolanda Hessels(2016), “Factors influencing the entrepreneurial engagement of opportunity and necessity entrepreneurs,” *Eurasian Business Review* 6(3), pp.273~295.



◆ 執筆陣

- 김영아(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 손연정(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윤준현(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 홍정림(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취업자로서 자영업자 연구

- |          |  |
|----------|--|
| ▪ 발행연월일  | 2021년 12월 24일 인쇄<br>2021년 12월 30일 발행   |
| ▪ 발 행 인  | 황 덕 순  |
| ▪ 발 행 처  | <b>한국노동연구원</b><br>☎ 대표 (044) 287-6080 Fax (044) 287-6089<br>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br>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
| ▪ 조판·인쇄  | 고려씨엔피 (02) 2277-1508/9   |
| ▪ 등록 일 자 | 1988년 9월 13일   |
| ▪ 등록 번호  | 제2015-000013호  |

© 한국노동연구원 2021      정가 6,000원

ISBN 979-11-260-0515-4